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11일 1958. 3. 27. 제 3종우편물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 253호

발행인 황 병 태
편집인 노 승 두
편집장 박 동 규
발행소 한국 외국어 대학교
외 대 신 문 사
전화 962—7128(직통)
13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17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조선일보사 발 두 영

제412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5년 4월 9일 (화요일)

시대고(苦)를 안고 우뚝 선 정론30년

『대동의 기쁨』 판화:미술동인「두렁」

창간 30주년 축사

기개찬 어조와 패기찬 필력으로

자유언론과 정론직필이란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간단(間斷)없이 달려온 외대학보, 외대문화의 조성자로 그위치를 다져온 30년의 세월앞에 우리는 우선 경건함과 가슴벅찬 감격을 느껴본다.

신문호수 하나하나에 담긴 불의와 강압에도 꺾이지 않는 정론의 체취와 참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바쳐온 대학언론의 영상들을 오늘 창간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와 그시련의 시간들을 되새김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명깊은 일이 아닐수 없다. 때마다 불어오던 이 땅위의 난기류 속에서도 순수한 대학인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확산 시키고, 대학 지성사의 금자탑을 쌓기 위해 지난(至難)의 몸짓으로 일관해온 외대학보는 이제 성숙한 장년기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것이다.

민주정치는 자비의 정치가 아닌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속에서 이루어 진다고 믿기에 모든 민주사회에서의 언론의 본질은 파사현정(破邪顯正),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표현되는 사회정의의 구현에있는 것이다.

언제 부터인가 종속적인 이념과 가치관의 유입으로 우리의 고유한 뜻과 행동양식이 침해받고 깨어질때 양심있고 지조있는 정의로운 대학인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대학언론을 통해 기개찬 어조와 패기에찬 필력으로 그 목소리를 알려왔다. 그것은 외대학보의 나아갈길을 제시했고 이는 곧 외대인이 나아갈 길이자 이민족과 이 사회가 정리하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까지 승화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 현실에 안주 할 수만은 없는 우리의 대학언론은 진정 이땅에서 필요로하고 요구되는 민주화의 길에 미미한 빛이나마 비추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희구했고,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언론자유의 봇돌림을 멈추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떠하건 또다시 이땅에 폐쇄되고 질식된 언론상황이 반복되거나 강요된다면 자유언론 정론직필을 향한 외대학보의 발걸음은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나라의 민주화와 대학의 자율적 기능회복을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다.

캄캄한 밤하늘에 총총히 밝힌 별들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주현상만은 아니듯이 지금까지 쌓아온 외대학보 30년의 언론사는 알게 모르게 정의로운 대학문화 형성에 영향을끼쳐 왔다.

다시금 지나온 세월앞에 경건한 성찰과 함께 보다 성숙되고 보다 확장된 대학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외대학보는 제2의 거듭남을 시도할 것이다.

외 대 학 보

아직도 바람 불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박 경 원 〈불문2〉

1955년 4월 11일 「진리·평화·창조」의 학교에서는 「자유 언론, 정론 직필」의 뜻을 밝히고 신문을 발행하다. 그부터 30여년 흐른 1985년 4월 9일 이 지면은 온갖 외풍 화초처럼 활짝 피어 올라서 보호받는 우리에 말하지 않고 시대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화하는 진정한 대학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는 한 사회와 제도권 언론이 제 구실을 다하지 않기 그들이 제 구실을 다하도록 하라고 산문들 보이는 진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민 역대 (歷代) 의 손길은 한없이 많다. 결코 거부할 수 없으리라. 이제도 바람 불고 있는 우리들의 대학 이제도 바람 불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제발 제 구실 못하는 제도를 물리가고 때문는 유사 언론을 만들어내는 정권을 몰아내고 자기 이제도 제도권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는 한 이제도 바람 불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30년을 이어온 우리들의 대학 이제도 바람 불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대학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保障)해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그 불안한 삶을 제대로 한번 지켜 있는 우리 언제 이 시대를 제대로 한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지켜 있는 우리 언제 그 불안한 삶을 제대로 한번 지켜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 언제 이 시대를 제대로 한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지켜 있는가 생각하면 그때도 무슨 불안을 품고 있었다 하리라는 이들의 경멸 경멸이란 이들의 경멸 제대로 한 번도 못 지켜 보낸 이들 보복이란 보복이란 보복이란 벌써 지금 보복이란 보복이란 벌써 지금 보복이란 보복이란 벌써 지금

사설

참된 양심들의 합성
—4.19 25주년에 붙여

4.19혁명 25주기를 맞이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참지성인으로서 그 의의와 정신을 재인식한다는 것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 볼때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4.19혁명이일어나게된 동기는 사회의 전반적인 기류가 국민의 요구와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고있었고, 내적인 모순이 구조적으로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몇가지 사회적 분위기에서 찾아본다면 먼저 정치적인 요인으로이승만의 일당 독재체제를유지하기위한 사사오입, 3.15부정선거를 숨한 발췌치헌 같을 들는 반이사적인 정치적 파행성을 지적할 수 있겠고, 경제적인 원인으로는 해방이후 식민지 잔재를 철저히청산하지못한 상태에서, 정권과 결탁한 특혜재벌과 매판자본에 의해 심화된 경제풍속의 상태를 들수있겠다.

4.19는이러한 사회적 제모순이 체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일어난 미완의 혁명으로서반봉건, 반외세부쟁인 동학농민운동 3.1운동의 공건한주체의식으로부터 이어지는 민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위한 반독재부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4월혁명을 통하여 이땅의 살아있는 민주적 생명력을 확인케 하였고, 진정한 민의를 외면하거나 말살하는 정권은 가혹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러나, 80년의 「트거운 봄」을 경험한 이후 자율화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민주화」「자율화」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4월의 교훈」이 아닌 「4월의경고」를 곰곰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4·19의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단순히 4·19정신의 수립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정신과 이념의 지속적인 확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관 그시대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민중의 주체적 의사가 결집된 것이라고 정의할 때, 4월혁명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우리의 실천적인 과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한다.

물론 상위체제에 의한 비민주적 정치형태가 4.19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이땅에 넘어닥친 해방의 무드는 그동안 간직해오던 고유한 한민족의 모든 양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게한 국민들의 무비판적인 서구문화의 수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대학이 안고 있는 시대적 사명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닌 오랜세월을 두고 부파된 집이라는것은 모두가 잃고있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알고있는 「4·19의 정신」과 그 당시의 「주도 세력」들의 활동을 비교해 볼 때 결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4·19를 바라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는 지금의 기성세대인 당시의 주역들이 과연 현재 일어난 사회개혁의지를 실천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음을 솟아나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호르는 역사속에서 이제 우리가 확고히 다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4·19정신의 계승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생운동이념의 재정립을 통해 사회개혁의지로 이를 승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곧 4·19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 보는것이다.

의연한 정론의 자세를

◇총장 창간 기념사

<황병태 총장>

대학언론의 모범으로 평가받아온 우리외대학보가 창간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외대학보는 항상 날카롭고 지적인 비판과 대학이 나아가야할 바를 꾸준히 제시 함으로써, 탄탄한 언륜을 집적해 왔다. 외대학보는 또한 대학문화의 창도자로서, 학문적탐구 정신의 확산을위한 매개체로서 그기능을 십분발휘해왔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외대학보가 믿음직스러운 장년에 이르기 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한 것 만은 아니었다. 50년대 이후 한국 대학들이 경험해야 했던 어려움 만큼, 외대학보도 많은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회가 혼돈필으로써 대학이 심한 갈등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나, 사회적 가치 정향의 표류가 대학인들의 행동방향감각에 혼미사태를 가져올때 마다,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것이다.

이같은 혼돈의 와중 속에서도 외대학보가 결코 정도의 길을 외연하게 정론적 자세로서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인론에 대한 외대인들의 남다른 관심은 물론, 외대학보를 거쳐간 많은 동문들과 학생기자 여러분, 그리고 지도교수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외대학보 창간 30주년을 맞음에 있어, 대학 언론을 대학 발전의 기틀로 삼고 전력해 왔고, 하고있고 그리고 하게될 외대학보에 관여하고 있는 편집 학생은 물론 모든 일반 학생들과 감회를 나누고 축하를 하면서, 몇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대학 분위기와 대학인들의 정신적 양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직시하여, 과연 어떠한 길이 대학의 지성사적 전개에 기여할 수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외대학보가 추구하기 바란다.

둘째, 외대학보가 보다 폭넓게 학생들의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 제안을 수렴하는데 노력하기 바란다. 학생들의 참여가 없이 대학 언론은 생명력을 확립하는 것은 곧, 우리대학이 세계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할수있는 바탕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몇가지점에 유의하면서 외대학보가 대학인 모두에게 대화의 채널과 광장이되고, 기쁨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민족혼을 품고 세계로…

◇이사장 개교 기념사

<김흥배이사장>

뜻깊은 개교기념일을맞아 그동안 대학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우리 외대인의 긍지와 지성을 찌새겨봅니다.

개교이래 외대는 확고한 교육정신과 창조의지로 배진해왔읍니다. 광명정대한 소망과 민족혼을 품고 국제사회의 불볕는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어 빛나는 민족적 긍지로써 이상과 영광을 추구하는 거목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결같습니다.

학문에 지름길이 없듯이 대학발전에도 지름길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오직 진실과 시간의 귀중함 속에서 땀으로 축적하여야만 튼튼한 반석이 된다고 하겠읍니다. 외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착실하게 차질없이 지속적인발전을해왔읍니다. 이 진실과착실함이 쌓이 ㅡ,심니 비약적이라는 말을 써도 당당한 장년 외대가 된 것입니다.

외대는 이제 이문시대에서 이문—용인시대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일대 80만평부지에 용인캠퍼스 종합건설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문사학 외대! 세계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외대인은 일심전력, 정심대도의 정신으로 길을 틀고 달려야 하겠읍니다.

지름길은 없지만 빠른길은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충실로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고 도서관의 별관이 꺼지지 않는 캠퍼스, 민족의 땀과 열기가 이글거리는 캠퍼스는곧 학문의 수준을 높여주고 나아가 외대의 명성을 드높여 줄것입니다.

외대인 여러분, 대학은 지성인의 고향입니다. 외대는 외대인 모두의 고향입니다. 세계곳곳에서 활약하는 외대인들은 진리평화창조의 비둘기 상징탑을 생각합니다. 고향의 흙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곳이 대학이라는 말이 있읍니다만, 외대야말로 가슴과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기 위해 모두 힘써야 하겠읍니다. 낭비없고 내일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눈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다 함께 우리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장년이 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정성을 더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외대는 드디어 외계(外界)로 진출하고

—본교 개교 50주년을 상상한다

서기 2004년 4월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50주년을 미리 가본다.

실천하는 지성

1954년 4월20일 영·불·독·중·로어과등 5개학과로 출발한 본교는 1980년 10월 2일 종합대로 승격된지 벌써 25년, 동·서양어대, 법정, 상경대, 문리과대, 사범대, 공과대, 가정대, 음악, 미술대학등 10개 단과대학에 81개학과 3만여명의 학부생과 72개학과의 대학원생 6천여명으로 매머드 종합대로 성장해있다.

1954년 종교2가 82번지 영보빌딩가교사에서 개교한이래 57년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로 이전했다가 79년 용인캠퍼스가 설치된 이후 종합대로의 발전을 위해 용인의 새 캠퍼스로 2천년까지 이전하게 했으나 중간에 「모종의 사건」—내용은잘 모르겠지만—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아예 5년을 더 늦춰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전면이전을 했다.

이문동의 구캠퍼스에는 외국어연수원과 일부 대학원만이남아 옛날의 영화 (?) 를 회상하게 만든다. 용인에 새로운 대학촌이 형성되고 이문동은 순수 주택가로 남고 산재해 있던 술집, 다방, 카페등은「유흥가통폐합조치」(21세기 외대개혁입법예외해)가 취해져 「종합민주 (民酒) 주점」「상록수」등의 이름을갖고 모현면으로이한 외국어주입교육에서 벗어나 인문·사회과학 제분야에 걸친 다양한 교과목을 배도 있게 고수함으로써 이른바 「전인교육」의 산실이 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우수한 언어실력을 기초로 인문·사회·자연과학 각 분야는 논부시기계발전하고있다.

하는 공이 크다. 또 그 파에는 영화 E'T의 주인공과 흡사하게 생긴 Native Speaker가 강의를 하고 있어 40대의 교수님들을 옛날 생각에 잠기게 하기도 한다고…

수업방법에 있어서도 종래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발표·연구·실험·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고 도서관 이용시간도 대폭 연장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을 위한 도서관의 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고 도서관 이용시간도 대폭 연장되었다.

민주화 실현

학교행정의 시스템도 많이변했다. 종래에 문교부라는 정부기관에서 모든 대학행정에대한 시시콜콜한 간섭을 배제하고 진정한 자율적 행정체제를 갖추고있다. 모든 행정은 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대표가 모여서결정하는 대학에 있어서 고전적 자유의 참된 실현을 보게된다.

또 학생선발방법도 80년대의 학력고사에 대한 병폐이나 나눠먹기가 아니라 대학입국이 독자적 선발과정을 거쳐 뽑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며 모든 학생활동에 적극적이다.

학생자치기구는 개교이후 정치적여건에 의해 그 존폐여부가 결정되었던 총학생회가1984년 필대수 흡산들의 결의로 부활된 이래 몇차례의 외풍 (外風) 에도 전체졸산들의 「수호결의」로 그 명맥을 이어 개교 50주년인 지금은 제38대 총학생회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학생활동은 80년말까지만 해도 대부분 사회,정치현실에 대한 참여로 사회민주화운동, 데모등으로 이야기되어왔지만 그간 끈질긴 학생과 민중들의 투쟁에 힘입어 국민 스스로가 뼈아픈 민선의 민간정권이 들어섬으로서 학생운동의 방향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민족통일운동으로 그 기본노선을 변경시키게 되었다.

학생의 사회참여는 격한 시위보다는 연구와 인식을 통한 발전적 대안제시에 주력하고있다. 때를지않은, 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용감한 제안들은 많이 정부시책에 반영되어 간다.

80년대 말에 들어선 민간정부는 몇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지만 지속적인 민주화의 추진과 경제·사회등에 개혁조치로 빈부의 격차등 내부적 모순은 많이 완화되어 있다.

서클활동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매우 활성화 되어있다. 그간 애로가 되어왔던 학교의 재정지원이나 서클를 학보등의문제도 모두 해결된 상태에서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대학문화의 다양성을 만껏 누리고 있다.

학생 활동

매년 오월은 본교의 최대행사의 하나인 축제가 벌어진다. 「전통과 전보의 조화」의 명제를 걸고있는 외대축제는 모두 일주간에 개최되는데 각종 초청강연회 심포지움등의 학생활동, 각 서클이나 학과별 행사등 다양하게 벌어지고 마지막날의 폐막제는 80년 5월의 추모행사와 횃불제가 벌어지는데 왕산의 80만평에 타오르는 갖가지의 횃불들로 왕산캠퍼스는 온통 불야성을 이룬다.

또 다른 행사로는 모의 유엔총회, 모의올림픽등이 본교의 독특한 행사로 이어 내려오고 있고 그밖에 서클제, 학예제, 신입생환영회 등의 행사가 매년 치러지고 있다.

개교50주년을 맞은 본교는 바야흐로 반세기의 세월동안 약10만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세계 방방곡곡에 배출시켜놓고 있으며 곧 외계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나갈 전망이다. 개교50주년을 맞은 본교는 명실공히 세계속의 대학으로 민족을 업고 세계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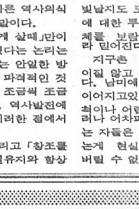
<논설부>

신설된 외계어과엔 E·T가 강의를 맡고 있고
신뢰와 믿음, 사랑과 존경이 가득찬 캠퍼스로

미니 칼럼

▲20세기 최대의 희극배우라 할만한 히틀러는 「젊은이여! 위험하게 살아라」라는 말로 수많은 독일 청년들을 열광케 했다고 한다. 그러한 그는 열광하는 청년들을 이용하여 전쟁을 시작하고 결국은 패전했다.

위험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추구하는바를 가장 명확히 성취하려는 행동양식임을 말한다. 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추구하는바가 무엇이냐 하는문제이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위험하게 사느냐 가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비록 히틀러 자신은 올바른 역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망언 (妄言)이라 할지라도 그의 「위험하게 살아라」란 말은 오히려 명언(名言)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역사의 단면을 보여준다. 올바른 역사의식과 사대인식만 갖추고 있다면 말이다.

▲역사파장에 있어서도「위험하게 살배」만이 무엇인가 발견과 진보가 가능했었다는 논리는 성립한다. 단순히 전해져 내려오는 안일한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좀더 새롭고 파격적인 것을 추구함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이다. 역사발전에 있어서 소위 「창조적 파괴」는 이러한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존재한다.

그러나 「변화」와 「파격」 그리고 「창조를 위한 파괴」는 지배계급의 기득권유지와 항상 대립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배, 피지배계급의 궁극적 평등을 위한 저항은 지배계급의 교묘한 지배이데올로기와 물리적 힘에 의해 끊임없이 탄압을 받아왔다. 특히나 폭력적·비합법적 수단으로 기득권을 차지한 지배집단에 있어서는 기득권유지와 더불어 기득권 취득시 행한 행위(行爲) 의 은폐로 말미암아 피지배계급의 저항에대한 탄압은 더욱더 극렬해질수밖에 없는 요소를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저항을 시도하여 정체되어있는 어떠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려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지배계급의 탄압과 억압에 의해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삶을 감수하면서.

▲역사의식과 시대인식 그리고 진실한 양심과 열렬히는 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할 때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한층 빛날지도 모른다. 그것이 위험스러운만치 그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희생 자체를 보람과 즐거움으로 간직할수도 있으리라 믿어진다.

지구촌 곳곳에 엎늘리는 자들의 비명이 끊이질 않고 그들의 저항 또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남미에서 유럽에서 필리핀에서 한반도로 이어지고있다. 할자투쟁전자에대한 도전은 무척이나 어렵고 위험스럽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창조적 소수」 아니 모든 억눌리는 자들은 그런 위험을 안고서싸워 나가야 하는게 현실이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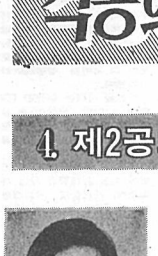
祝 외대학보 창간 30주년 祝 개교 31주년

母校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주식회사 우성유통 전무 곽우현
주식회사 삼화 상무 김무준
신원통상 주식회사 상무이사 김민국
조양상선 주식회사 이사 김정언
극동건설 주식회사 전무이사 김천만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상무이사 민병용
동방산업 주식회사 부사장 민병용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강인덕
한국항공화물협회 부회장 권영길
문화연필공업주식회사 전무이사 박덕신 (무순)

격동의 한국현대사 60년대의 인식

4. 제2공화국 정치체제와 5·16



박 병 주
(대학원 정외과3학기)

Ⅰ. 머리말

1961년 5월 16일, 일단의 젊은 군장교들이 주도한 쿠데타는 장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는 4.19 봉기로 인해 이승만 독재 정권이 붕괴된후, 1960년 7월에 들어선 제2 공화국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장면 정부의 해체는 한국에 있어서 민주 정부를 세우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당시 한국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감은 사라지고, 정치 체제는 민주화를 추진해 나갈 능력을 상실하였다. 장면 정권이 안고 있던 이러한 혁명적 상황은 오늘날 많은 신생국들이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종고에서는 권력 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촛점을 두고 4.19부터 5.16까지의 정치사 (政治史) 를 개괄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Ⅱ. 허정과 과도 정부

1. 과도정부의 성격

경찰의 발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데모에 가담하는 등 시위의 물결이 확산되고 격화되자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 또한 가중되었다. 반면 이승만의 혁명적인 지지 기반인 경찰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군이 시위군중에 대한 발포를 거부하는 일련의 사태가 잇따르자 1960년4월 26일 결국 이승만은 사임하였다. 이러한 와중속에서 이틀전 이승만으로부터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허정은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으로 체제 변동의 과도 정부의 수반이 되었다.

허정은 이승만및 한민당 양측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 국민당 (후에 민주당) 이나 자유당에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허정은 배후에 조직화된 정치 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도한혹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권력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이승만이 물러준 관료 기구와 경찰 조직뿐이었으나 4.19 혁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를 숙정해야만 하는 자가당착적 과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허정의 과도 내각은 정권의 연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비혁명적인 방법에 의한 혁명」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사실상 이 말은 허정 내각의 성격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허정 정부는 그 존속기간 내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기 상충하는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시켜야만 했다. 군부와 경찰, 경제계, 학생, 자유당, 민주당, 혁신계 또는 좌익계 정치인들이 당시의 주요한 정치세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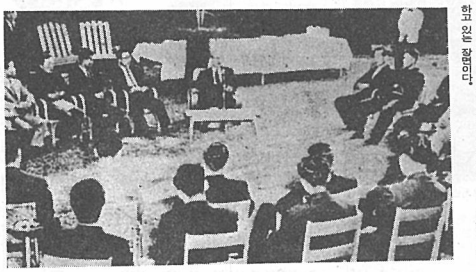
이 조정 과정에서 과도 정부는 상호 모순된 목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양면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군부 내의 부패및 과거의 부정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처벌해야할 입장이었으나 섣불리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될 구실을 주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자유당 정권의 고관들과 부정축재자들을 일벌하라는 학생들과 언론계의 요구에 응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그러한 조치는 경찰력을 마비시키고 경제의 기초를 무너뜨린 위험을 내포하고있었다. 또 양당체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했으나, 자유당의 부활로 좌익정당의 활성화도 좌시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모순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허정내각은 가장 조심스럽고 온건한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과도정부 사회의 어떤 세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용할수 없었다는 점은 그 뒤에 더, 이로써 자유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당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유당을 계속 하나의 아당으로 존속시키려는 「재건파」 와 차기 선거를 위해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개혁파」 로 분열되어 통일전선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부정 선거와 관련되어 지도적 인들인 이재학이 구속되고, 이승만이 하와이로 도피하자, 자유당의 재건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자유당 의원들은 대다수 탈당하고 말았다. 이승만정권이 무너지자 갖가지 사회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집단과 개인들 사이에서 급격한 해체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3. 혁신세력의 재등장

기존의 지배구조가 해체되는 것과 반대로 혁신 세력은 다시 정치 무대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강



◇제2공화국의 출범하였으나 사회는 혼란해져 이에 4·19를 주동하였던 학생들과 봉기하였던 시민들은 다시 시위를 전개하고 나왔다. 데모대 속에 수많은 중고등학교 교복이 눈에 띄고 있음 (사진은 장면정권이 붕괴되기 직전의 모습)

혁명세력과 반(反)세력의 대립, 좌·우파의 갈등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분열은 장면정권의 몰락을 가져왔고 민주정부 설립, 발전의 염원도 좌절

고정훈은 4월 혁명의 「진정한 목표 실현」 을 제1 과제로 삼고, 선거에서의 승리보다 정치 구조의 혁각적인 개혁에 더 관심을 기울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통한여 학생계층의 지지·지원 받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들 혁신 세력이 주장하는 통일론, 한반도 중립화론, 중공의 유엔 가입 등의 정강이 던 급진적 성격은 허정과도정부와 보수적인 의회의 탄압 대상이 되었다. 고정훈은 구속되고, 혁신계 인사들중 많은수가 과거 남로당원이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혁신 세력이 민중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할수 있었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과 함께 내부의 분열과 반목, 특히 사대당 내의 「진보당」그룹과 서상일 그룹간의 갈등등으로 인해 혁신 세력은 1960년 7월 선거에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혁신계 후보가 경합하는 일은 흔하였고 결과는 혁신 세력이 민의원 5석을얻는데그쳤다.

Ⅲ. 제2공화국의 정치 과정

1. 민주당의 분열

60년 7.29 총선은 선거에 참여한 정치세력중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민주당에게 압승을 안겨주었다. 반면 혁신세력은 조직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정견도 인기를 끌지못하였다. 민주당이 여당이 되리라는 일반적인 예상때문에 정부의 관료와 경찰들이 민주당에 협조하였으며, 실업계는 정치자금을 민주당에 제공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신파와 구파로 심각하게 분열된상태에 있었으며 구파는 한민당을 전신으로하는 토착지주세력의 후예들로 신파는 구자유당정부하의 관료및 법조계출신들로 대학적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구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윤보선과 김도연을 내세웠으나 의석수에서 약간 열세에있던 신파는 대통령직을 구파의 윤보선에 넘기는대신 실질적 내각의수반인 국무총리에는 자파의장면을 추천하였다. 결국 구파중 일부가 신파로 이탈함으로써 대통령에는 윤보선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국회의중인을 얻게되었다. 그러자 구파내의 김도연 유진산등이 이끄는 65명의 의원들은 「민주당」을탈당하여「신민당」을결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부터 불안하게 다수에 의존한 장면은 지지 기반을 확대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할 숙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장면이 신파내에서도 자신과 특히 가까운 구자유당계와 흥사단 그룹의 인사들만으로 내각을 구성하자 민주당에 가담한 일부 구파 의원들과 신파내 소장파들은 당 지도층에 적대적 성향을 띠게되었으며 약 40명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 두 집단의 확고한 지지를 상실한 장면 정부는 그 안정과 효율성에있어 심각한 위협상에 처하게되었다.

그러나 장면은 이들 소외된 집단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결과 내각은 -.. 의 승인을 얻지못해 개각이 남발되었다. 이러한 장면정부가 파도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강력한 리더쉽을 행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일 수밖에 없었다.

2. 장면정부의 딜레마

장면정부에 처음으로 불만과 한말을표시한 집단은 자유주의적 지식인과 대학생그룹이었다 그들은 장면정부에 4·19 당시 학살에 책임있는 자유당시절의 장교와 3·15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것을 요구하였고 사법부가 개헌을 이유로 이를을 가볍게 처벌하자 한 생물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등 데모가 다시극단적인 양상을띠며 전국적으 파급되어갔다 이에다급해진 장면 정부는 전자유당정권의 관료들을 재판하기위한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기로하였고 국회는 장면의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소급법을제정하여 입격한차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정축재자들을 취급하면서도 장면 정부는 이와 비슷하게 대처하였다. 처음에 장면 정부는 부정 축재자에 대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친혁명 세력은 크게 실망을 느꼈다. 국회내외에서 부정축재의 상환조건이 지나치게관대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갔고, 결국 흥어 엄한 징계 법안이 민의원에서 통과되었고 이 법안이 참의원에서 수정을 거치는동안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가들은 상당히 감소되어졌다. 그러나 실업계는 장면정부가 불법적인 기업활동을 징계하려 했으며, 기업의 기본적인 이익을 지켜주려는 성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장면 정부는 처음에는 지식인, 학생, 군부의 소장파교장 그룹이 일 과를 이루는 「친혁명 세력」을, 나중에는 경찰, 공무원, 지방 유지 및 실업계 등의 「반혁명 세력」을 연속적으로 소외시켜 갔다. 이는 장면 정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장면 정부를 지지할 정치세력이 거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좌·우 대립의 노정

장면 정부아래에서의 좌파운동은 혁신계 정당들의 운동과 교원 노조로 대표되는 급진적 노동, 농민 및 학생 운동의 3가지 양태로나타나서 전개되었다.

7월 총선에서 철저한 패배를 맛본 혁신 정당들은 급진파와 중도파로 전체적인 재정립이 이루어졌다. 급진파는 장면 정부를 와해시키고 기존의 헌법 구조를 파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중도파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기치아래 정상적인 정치 일정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혁신 정당들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이 적었으므로 그들의 주장을 가두로 몰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통일」 이라든가 「민족주의」 같은 대체로 상징적인 이유를 통해서 도시의 군중과 젊은이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내려고 노력하였다.

장면 정부가 혁신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키자 혁신정당이 조직한 항의 시위는 노조와 학생들의 가세를 받아 점차 그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구,부산,마산 등지에서는 시위군중과 경찰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혁신정당들의 운동이외에는 이승만 정권이무너진뒤정치적으로 의미있는 노동운동이 발전하였는데 전국 교원노조의 성립이그것이다. 이것은 그, 급진적 이데올로기와 합법성에관한 논쟁 때문이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고나선 교원 노조 연맹의 급진성은 시위와 융공분자의 침투활동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법안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전폭적 항거에 동참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 통일 연맹을 중심으로한 학생들도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였으며, 그 급진성은 전투적 행동으로서 나타났다. 이들은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여, 한미 정책협정과 반공법안에 반대하는 항의집회와 가두시위에 학생과 시민들을 동원하였다. 이들 시위자들의 수는 200~300명으로 적었지만 민족주의적 신조를 확고히 지녔으며 경찰과의 대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적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급진적 학생들에대한 가장중요한 반격은 우익세력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익청년 조직과 재향군인단체 등은 혁신계와급진적 학생들의 「용공적」 행위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였다. 우익 세력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단한 반향적적 반동이 곧 뒤따를 것이라는위협을명확히내포하고 있는의미로해석되어입주었다.

4. 군사쿠데타와 장면 정부의 붕괴

제2 공화국을 통하여 유일하게 전국 규모의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할 능력을 갖춘 군부는 한국 정치에 있어 결끝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였다. 4월 혁명 이후 군부내에서 소장파 장교들을 중심으로 정군 운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이승만정권의 부패일한 성격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던 무능하고 부패한 고위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 기간 중 군부를 정화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후 장면 정부는 온건파 고위장성들의 반항과 반역을 두려워하고, 한국 군부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대규모부부 숙청 작업을보류시상태에놓여있게되었다.

불만이 누적된 소장파 장교들은 반정의 소장을 중심으로 쿠데타 계획을 진행시켰고, 이들은 격렬한 파·우 대립이 노정된 상황으로부터 군사 쿠데타의 정당화를 구하여 그들의 계획을 강행시켰다. 상반된 집단과 부분적인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효과적으로 다룰수 없었던 장면 정부는 군부내의 쿠데타 음모를 탐지하고 이를 분쇄할 능력 또한 결여한 것이었다. 결국 1961년 5월16일장면정부는군사쿠데타에의해 그 종말을 보게되었으며동시에 제2공화국도 붕괴되고말았다.

Ⅳ. 맺음말

이제까지 4·19부터 5·16까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정부가 살아남아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과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민주정부가 실패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패턴이 제시되고 있다. 소수 군인들의 정권욕이라든가, 행정권이 약화된 의원내각제적 권력구조, 또는 장면총리의 무능력등이 제기되기도 하며, 민주적 정치 문화의 결여, 사회 경제적 저개발 단계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것은,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의 갈등 그리고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분열이 정부붕괴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정부도 적대세력의 한복판 연합하여 다른 한쪽을 억눌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민주정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부과받은 장면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능력도 외사도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이 있으며 이 비극은 아직도 민주주의 실험기에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도 잃어서는안될 교훈으로 남아있다.

□제4회 한국 아프리카학회 학술발표회

학술단신

—4월12일(금)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본교 대학원 104호(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내용과 강사는 「한국과 블랙아프리카제국간의 경제협력」, (김시경, 단국대교수) 「아프리카 정치와 우리의 진출방안」, (조이환, 본교교수) 「한국과 아프리카와의 유대강화」(윤석주, 한국인구보건원 초빙연구원)등이다.

□흥사단 정기 글요강좌

4월 12일에는 「문인비의 문명관」 (강기철, 비교문명연구소장), 19일에는 「개방화 논의의 실상과 허상」 (유인호, 중앙대 교수) 26일에는 「한국신문의 진단과 반성」 (안광식, 이대교수) 「한국방송의 진단과 반성」 (최창섭, 서강대 교수)으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오후 6시30분이다. 전화문의는 743—2514.

□제3기 「오늘의책」 독서대학

4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흥사단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1. 4월 9일, 도서 : 「공동체문화Ⅱ」강사 : 백기환 주제 : 「민족공동체의 이념과 그 실천적 과제」

2. 4월16일, 도서 :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학민사 간) 강사 : 문익환(목사) 주제 : 「민족의 통일, 민족의 부활」

3. 4월23일, 도서 : 「한국사회변동연구」 (민중사 간) 강사 : 김진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주제 :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4. 4월30일, 도서 : 「한국자본주의론」(까치사 간) 강사 : 이대근 (성균관대 무역학과교수) 주제 : 「차관경제의 전개」

5. 5월7일 도서 「민중사회학」 (종로서적간) 강사 : 한완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주제 : 「민중들의 문제점」

□한국국제 정치학회 월례발표회

4월11일 오후3시 프라자호텔 덕수홀 B실에서 개최되며 주제와 강사는 「소련경제의 문제점과 대외정책」 (안택원, 한국경신문화연구원교수) 「소련, 미국, 한국 북한의 사례를 통해본 양자조약의 이론 실제분석연구」 (안영선, 국방관리연구소)

□제1회 흥사단 교육논단

4월11일(木) 오후 6시30분 흥사단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주제와 강사는 「제3세계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규환, 이대교수)이다.

□전·진·상(全·眞·常)교육관 월요강좌

4월15일에는 「생산의 기쁨과 슬픔」 (최재영·농민) 22일에는 「조국을 사랑하는 기쁨」 (문익환·목사) 29일에는 「나의 삶, 나의문학」 (이호철·소설가) 으로 매주 오후 7시 종두로2가11—2 소재 본 교육관에서 개최된다. 전화문의는 776—1712.

母校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금호실업주식회사 이사 송기혁

미륭건설주식회사 이사 신정수

삼성물산주식회사 전무 윤기선

버너양행 대표이사 안인모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사 윤민호

남지전자주식회사 전무 윤봉현

태화섬유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이광찬

한국샤프주식회사 총무이사 이기찬

영태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세열

기아산업주식회사 무역담당이사 이수장 (무순)

대학촌부재 용인캠퍼스

지방 캠퍼스건설 재점검 필요

용인캠퍼스가 장기 발전계획(Master Plan)에 따라 2000년대를 내다보고 그 건설의 첫삽을 뜬 것은 지난 79년의 일이었다.

그이후 숱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작년에는 산고의 고통속에서 자라온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금년들어 기숙사의 완공과 입주 그리고 5월초 입주 예정인 제3캠퍼스동의 건설등 양적인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용인캠퍼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에 눈을 돌릴 때면 우선 무엇보다도 교통난과 복지시설, 기반조차 잡혀 있지 않은 대학문화 부재현상등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족한 분위기와 여건은 이루 손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79년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캠퍼스 육성책은 시작되었고 여기에는 서울의 명문사립을 필두로 대거 참여케 되는 이른바 「지방 캠퍼스 건설 붐」이 일었던 것이다. 그러나 각대학이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함 이 지방캠퍼스 건설은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정부에서 내세운 「그 지방 학생의 대학수요를 그 지방에서 수용한다」는 본 취지나 특징과는 상당히 멀어진 채 오히려 지방인구의 도시유입촉매 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재 등록대와 몇개 사립대의 지방캠퍼스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서울 근교에 자리잡고 있는 캠퍼스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를 캠퍼스 소속학생들의 70~80%이상이 서울서 주거를 하면서 통학을 하고 있는 사실 한가지 만으로도 지방캠퍼스 건설이 모순된 길을 걸어 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이런점에서볼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지방캠퍼스 건설계획은 재점검을 통한 확고한 캠퍼스건설의 비젼 (Vision)을 제시해 줄수있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검토되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2천년을 바라보며 완전이주를 전제로 추진중인 본교의 용인캠퍼스건설도 그러한 선상에서 고려의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인캠퍼스의 경우 타대학 지방캠퍼스보다 서울에서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당국의 용인캠퍼스에 대한 건설 의욕이 타대학 보다 높다는 것에 비해 현재의 용인캠퍼스 주변과 내부 위락, 복지시설 등 대학으로서 또는 캠퍼스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여건의 발전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볼 때 현재 추진중인 본교의 용인캠퍼스 건설계획과 아울러 학생들의 대학문화 형성욕에 대해 한 번등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취재팀은 용인캠퍼스를 비롯해 몇개의 지방캠퍼스를 취재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용인캠퍼스와 주변지역

모현면은 용인캠퍼스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자 용인캠퍼스가 명실상부하고 학교한 기반을 갖추고 대학촌을 형성할 경우 가장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촌(村)이자 용인캠퍼스의 대문(?)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캠퍼스내 본관에서 걸어 20~30분 가량 걸리는 모현면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곳으로 생활주점 3개, 술과 밥을 파는 식당 3개, 당구장 1개, 등이 모현의 상업성을 띤 업소 전부라고 볼수 있다.

대학문화라는 것이 대학내부 뿐만아니라 주변학술집 까페, 다방등 향락적이고도 오락적인 기능인 것만은 아니라는점이 사실이지만, 만남의장소, 대화나토론의장소, 정서를 순화시킬수있는 장소가 없다는점은 어떻게보면 뜬문제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촌형성이 바람직한형상이라볼때, 이러한 시설부족은 캠퍼스주변주민들과 학생들 간의 괴리감을 가져다줄수있는여지가 있다는 문제라고 보겠다.

모현에서 식당을 경영하고있는 이모씨는 『하루에 5명~6명정도의 외대생들이(그것도 기숙사가 들어선이후) 간간이 들렀다가 가는게 고작이죠』 라면서 『용인캠퍼스가 이곳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우리아 정말 마음이 들뜬 상태였고 뭔가 좋아지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솔직히 많았지요』 라는 말에서 캠퍼스건설당시의 부풀었던 꿈이 지금은 실망어린 마음으로 변해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곳 모현면의 주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무엇보다도 버스정류장이 캠퍼스내에 위치해 있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와 학교의 출발 또한 교내에서 이루어져 동네로 나올 여건이 없다는데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또한 이와함께 외대가 이곳에 들어선 이후 외대생들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에 있어서는 같은 동네 길모씨(27세)는 「한마디로 임곤주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좋은 편은 못된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서울에서야 담배를 피우고 대낮에 술을 퍼먹고 여자남자가 팔장을 끼고 같이 다니는 서로 얼굴을 모르는사이 사람은 일쑤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곳은 봉건적인 보수성을 던 순박하다할 시골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기에 여학생들의 옷차림은 학생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대학 전체를 싸잡아 욕하기가 일쑤인 것은 속일 수가 없읍니다』 면서 그 동안 용인캠퍼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전해 준다.

이러한 인상이 사실임을 강조하면서 근처 모식당에서는 아예 학생단체손님을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한다고 한다.

문화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양식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대학문화 역시 일반적인 문화현상의 범주속에서도 질적인 또는 특수한 측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대학 구성원들의 내외적인 형동, 언어, 사고 양식에의해 든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문화란것이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은 대학주변부의 술집, 다방, 당구장, 식당등을 위시한 소비지향적 향락적 기능만을 포함하는 성격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반면 그러한 요소들이 대학촌이나 대학문화의 형성 요건에 전혀 내포되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들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용인캠퍼스 주변부의 「문화적인 성격의 여건」은 극히 미비하고 부족한 상태이자 사실상 대학촌이나 대학문화라 일컬을 수 없을정도로 단지 「시골마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이라 하겠다.

타대학의 경우 대학촌

서울에서 1시간여 거리에 위치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제2캠퍼스) 는 여러면에서 용인캠퍼스 환경과 대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방캠퍼스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안성캠퍼스의 경우도 용인과 같은 시기에 출발하였으나 학교측과 학생들의 노력은 어느정도 대학촌 형성에의 틀과 아울러 자연스럽게 진전한 방향으로 「대학 문화」가 형성되어가게 만들 것이다. 이러함에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는 서클활동 또한 활기를 띤다고 한다.

또 중대 안성캠퍼스주변지역에서 특이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건지리가 주거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반면 네리가 오락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변지역에에까지도 기능적인 다양성을 통한 대학촌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네리는특새있는 볼거지를 갖추고 있는데 철제, 까페(Cafe)와 당구장, 술집, 라면집이 골비하게 널려있지만 방짐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고, 이곳에 완벽하게 자취만을 위해서새롭게 주택이 꾸며져 있다는 점과 하숙하는 학생들을 거의찾아볼 수가 없으며 자취생들로써피하라면등 간이식사를 할 수 있는 도구 밖에는 갖추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네리를 에워싸고 있는 건지리가 주거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반면 네리가 오락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주변지역에에까지도 기능적인 다양성을 통한 대학촌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네리는특새있는 볼거지를 갖추고 있는데 철제, 까페(Cafe)와 당구장, 술집, 라면집이 골비하게 널려있지만 방짐은 전혀 찾아볼수 없었고, 이곳에 완벽하게 자취만을 위해서새롭게 주택이 꾸며져 있다는 점과 하숙하는 학생들을 거의찾아볼 수가 없으며 자취생들로써피하라면등 간이식사를 할 수 있는 도구 밖에는 갖추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 네리 주성주택가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과학학 (경제학과 2년) 조영진군은 『처음 학교시당은 열양시가 산정한 칼로리계산에 의해 식사가 준비되고 있으므로 굳우리가 직접 손으로 해먹을 때의 수고나 석유곤로의 석유값, 시간등 여러여건을 고려한다면 자연적으로 식당에서 사먹게되며 남는 시간은 공부와 여러부분에 적절히 사용할수 있는 셈이되죠』 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안성캠퍼스 역시 아직은 성숙한 단계의 대학촌이나 대학문화가 형성되었다는 느낌은 크게 받을 수가 없는것 이라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네리 주성주택가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과학학 (경제학과 2년) 조영진군은 『처음 학교시당은 열양시가 산정한 칼로리계산에 의해 식사가 준비되고 있으므로 굳우리가 직접 손으로 해먹을 때의 수고나 석유곤로의 석유값, 시간등 여러여건을 고려한다면 자연적으로 식당에서 사먹게되며 남는 시간은 공부와 여러부분에 적절히 사용할수 있는 셈이되죠』 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안성캠퍼스 역시 아직은 성숙한 단계의 대학촌이나 대학문화가 형성되었다는 느낌은 크게 받을 수가 없는것

외대학보 창간30주년을 축하한다

미네르바의 봄을 위하여

◇총학생회장 이규해

이 땅의 언론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를 스치는 것은 언론기관 자체의 독자성보다 외부의 힘, 특히 정권의 힘에 의해서 보도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가슴아픈 현실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소수의 힘과 의도에 의해서 민중의 눈과 귀가 틀어막히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강할수록 우리사회는 발전보다 퇴보의 길을 걸게 된다는 것이다.

외대의 명실상부한 언론기관으로서의 외대학보도 이 땅의 현실여건에 존속하는 이상 그 영향을 쉽게 뛰어넘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학보에 대한 결핍, 지면제한등 여러 상황들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진리탐구의 장인 상아탑의 언론을 우골탑에 가두는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외대학보의 노력은, 상아탑의 언론을 되찾으려는 그리고 외대발전의 근간을 이루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은 전 외대인의 관심과 성원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실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미네르바의 봄을 위한 첫이요 나아가 서서히 동터오를 봄을 향한 것이다.

그러나 허상의 자율화 분위기속에서 계속되고있는 학보에 대한 기타 제약조건이 사라지지 않는한 우리가 바라는 상아탑의 모습도 변새필 우려가 많다는 우려를 떨칠수가 없다.

대학이 참다운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외대학보의 역할은 실로 막대하며 또 진정한 대학의 언론이고자 노력하는 외대학보의 노력은 더욱 중요한 것이기에 외대학보 기자들은 기필코 은둔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겨나가는 투사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외대인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입을 대신해 온 외대학보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계속 미네르바의 봄을 앞당기는 외대학보의 내일과 발전을 기대한다.

『대학의 목탁』되길…

고대신문편집국장 원준형

무슨 일이 있전 신문은 꼬박 꼬박 발행일자에 맞춰 나온다.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어김없이 나오기 때문에 독자는 신문만드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도한다. 그러나 신문이 나오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깃들여 있다. 8면, 월고 3백여매, 6만여자 마다에 정성이 모아져 나오는것이다.

창간 30주년, 우리네가 태어나기도 전이다. 그때은 세월동안 외대학보 선배기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학언론 외대학보가튼 제하고있다.

대학신문은 대학사을 대상으로하는 특수신문이다. 독자=대학생은 일련 동필의 집단인것 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그네들의 사고, 행동, 생활은 천차만별이다. 그래한 것을 대학신문인 소화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모두 소화하려면 수십년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서 말이 생각하는것, 가장 관심이 높은것,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해야할 것들을 신문은 다룬다. 올해부터 8·8·8·4면으로 외대학보는 발행된다고 한다. 이전보다는 면이 늘어났지만 조금지나면 또 증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여건은 증면을 쉽사리 용납하지 않는다. 그때도 증면은 해야 한다. 아니 증면보다는 신문이 다양해져야 한다.

나는 외대학보가 무슨 이념을 갖고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모른다. 그러나 외대학보의 기자들과 독갑은 이념을 갖고있는 집단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기에 외로움을느끼게된다. 여러가지 소음들이 많은 세상, 억지도 있고 해곡도 난무한다. 그속에서 신문은 올은것만을, 최소한 그 상황하에서 완벽한 논리나, 분석이 나와야한다. 할자로 남기때문이다. 그일을 위해 외대학보가 많은일을 했고 또한 많은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만족은 금물,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대학보는 우리네가 있기전부터 있어왔다. 또 우리네가 사라진후에도 외대학보는 존재할 것이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대학의 목탁』으로 대학의 문화를 이끌어가길 30주년을 축하하며 기대한다.

상상과 연민의 외대학보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는 본보는 외대학보 창간 당시 기자생활을 했고 외대학보의 산 증인이자최장기 구독자이기도한 본교허세욱(C과) 교수와 자리를함께 했다.

『외대 학보가 벌써 서른살이 되었다니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여는 허교수는 근 21년간 미버클리대 중국문제 연구소에서 중국현대 문학을 연구하고지난달 귀국한탓인지 국내 분위기가 조금은 낯설단다.

허교수가 외대학보와 처음인연을 맺은것은 외대학보가 창간된해인 지난 55년도. 54년 외대가종로 영보빌딩에 자리를 잡은이듬해 영보빌딩에 있던 동화백화점 (현신세계백화점) 5층 조그만 방에서책상 2개를 갖다놓고 4면짜리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때는 원고지 1장 잉크 1병까지 학교에 신청을 해서 일일이 구입해 사용할정도로 신문의 제작, 관리, 행정면이그야말로 수공업적 형태 였어.』 월남전때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제작하다 순직한 백광남선배 (R과 1회) 와 단둘이 신문을 만들면서도 마음만은 항상 뜨거웠던데 감회에젖은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외대학보가 격월간, 월간, 격주를 거쳐 주간면으로 퇴기까지 그동안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말하는 허교수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보사라는 집단이 메마른 곳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며 다원화된 사회풍토가 그렇기도 하지만 어쩐지 아쉬운듯 하다고. 당시 학보를 학장은 직접 오자 (誤字) 를 골라줄 정도로 신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으며 교수들도 의견을 되돌려 주며 커피를 사주기도 했다고 말한다.

『50년대 대학생들은 상당히 의욕적이었던것같에, 항상 독자들의 원고가 넘칠정도로 참여가 활발했지』라며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얘기하는 허교수는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기자들은 아니라등교학생들끼리 종로 일대 싸구려술집에서 밤늦도록 문학과 철학등에 대해 토론을 하곤 했었지』라며 요즘 대학생들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것을 싫어함논정잘다고 임스반트젤의 형세때를 겪었기도 한다. 신문의 영사성을 강조하는 허교수는 지난 78년 본교 25년사정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교내에 역사정리를 하고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으로 볼때 외대학보가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것』임을 인식하고 특히 보도면에 있어서의 공평위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기록이불중요하다고 말한다.

<중국어과 허세욱교수>

◇위 사진은 본보 1호신문.

69년부터 71년까지 외대학보 주간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던 허교수는 『당시의 주간 2년 동안은 제작자가 아닌 보호자(?)의 입장이었기에 아쉬운 기억밖에 없었던 것같에』라며 무엇보던 시대를 회상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어보인다. 50년대를 제외하고는 일간지, 대학신문 할것없이 언론통제가 심해 배포금지, 압수가 부지기수 였다고. 최근의 학원통학에 대한 질문에 『2년 동안의 타지생활로 잘 몰랐으나 「자유보」를 보고 놀랐다』며 「오랜만의 봄」에 학생들이 조금 들떠 있는것 같은데 순간적인 격정(激情)이나 설레임, 흥분은 빨리 가라앉히고, 이상과 정열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지속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한다.

『장년 30주년을 맞은 외대학보는 내용의 혁신은 차치하고라도 체재는 어느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젊은이의 호흡이 살아숨쉬는 순수 대학문화의 활성화라는 측면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한다. 미국 버클리대 광장에서 한쪽에서는 즐넘기와 제기차기를 하고 바로 그옆에서는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에대해 열띤토론을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최근 외대학보를 보니까 대학원생등 학부학생에 대한 전면 할애를 볼수 있는데 이는 참 바람직한 것같에. 타학교와의 교류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라며 몇가지 조언을 하다가 불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대학신문 기자들이 힘든 틀어도 힘든만큼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시대사적 사명의 무엇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순수하고 진실된 「젊은이의 소리」「젊은이의 삶」을 외대학보가 표현했으면 한다는 허교수는 외대학보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선배입장에서 뿌듯하다는 대견스러워 한다.

(부자정 않아있는 기자에게 『이제 얘기좀 그만하자』고 사정하는(?) 허교수는 외대학보를 항상 사랑과 연민으로 지켜보아 왔다며 「젊은이다운 순수와 정열로서 진실된 언론의 사명을 다 해달라」는 선배로서의 따뜻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황하일 기자>

미네르바의 동지들에게

◇이대학보편집장 김경애

미네르바를좋아하는동지들에게!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지내던 고향친구의 소식을전해를은때와 같은 반가움으로 갓 서른의 길목에 들어선 「외대학보」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소. 제 앞가림에 바빠 무심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미안함도 갚을수 없소.

서로 멀리 떨어져 고막을 함께하지 못했다해도,무심히 지나치는 눈빛 한가닥만으로도 서로의 심사를 헤아릴 수있는 오랜 지기((知己)의 믿음으로, 지난 삼십해 한간 한간 탑돌려 매주어 담아온 원고지에의 애환을 이해할수 있을것같소.

그러나 서른이란 나이는, 모르는 사이 부쩍 자란 자신의 키를 보고 스스로 놀라와 하고 대견해하는 소년에게 이제는 머이상 보호망이 들러선 동네놀이터에서 놀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엄숙한 경고라고 생각하오.

가지고 놀던 모래흙마저 말랄 틸어버리고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해야할 머넓은 세계가 성숙한 장년의 혜안과 담력을 지닌 새로운 그대들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오.

틀른 밖은 아직 어두운 한밤중이오. 앞아야 할 것이 머많은 우리에게, 앞아서는 안될것을 먼저 가르쳐주는 세상이고, 하고 싶은 말이 태산같은 우리에게 해서는 안될 얘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눈치를 배워주는 세상이요.

누구하나 밥집을 밝혀를 등불을 틀려주지 않소, 앞서간 불빛은 아스라한 산등성이 너머 잡히지 않는 그림자만 같으오. 그나마 세찬 바람이 불어 꺼질듯, 꺼질듯 위태롭기만 하다오.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등불이 되라, 스스로 빛이 되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오. 아직은 우리에게 바람에 맞설 튼튼한 방패 하나 없는데 말이요. 어제면 어둠이 걷힌 밝은 세상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지도 모르겠오.

동지들이 미네르바를 좋아함은 스스로 그 운명을 의연히 받아들이고자 함이라 생각하오.

어둠이 걸힐 그 날까지, 지치지 않고 새벽을 에고할 미네르바의 부엉이, 외대학보의 외침은 그 새벽을 함께 맞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의식을 깨를 것이라 기대하오.

현실 안주 않는 신문되길

◇부산대신문편집국장 민영수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허깔민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일글을 들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때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이땅의 언론 상황이다. 필봉이 휘어야만 하는 고통이 따른다. 우리의 아픔을 외칠수 없기에 답답한 어름이다.

일글을 들릴수 밖에 없는 민중의 아버지인가! 이땅의 기성언론은 일글을 들리고 만다.

민중의 아픔, 없는자의 울음을, 화장한 배우의 허상이 아니라 고통, 필박, 그것을 몸짓으로 울어야 한다.

이것이 언론이고 민주사회다. 태양이 구름에 잠깐 가려진것을 보고서 태양이 사라졌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가려진 태양은 구름이 걸히면 더욱더 강한 빛을 발한다. 그것이다. 숨겨진 실체, 앞지 못하는 몸짓이 알려진다. 출려진다. 하나 그것이 언론일테이요, 길이다.

허깔리고 귀먹고 화상당한 기성언론은 침묵이다. 침묵당하고있다.

대학신문이라는 것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한다. 성격이나 내용이 시종일관 같을 수 없다.

50·60년대 문예지 성격의 신문이 아니다. 80년대 이 상황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시대는 대학신문이 대학신문으로만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아카데미즘 추구라는 명목으로 신문 고유의 저널 성격을 무마시킬수 없다.

「외대학보」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의 신문과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라 모든 대학신문은 이제 대학사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기성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에 대학언론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지 않을지?

언론의 일부분이기에 언론이라는 명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론가 막힌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평안할지 모른다. 하지만 언론이 현실문제에서 곪아터질 때까지있다면사회는병든다.

30년의 성상을 겪어온 「외대학보」가 이 땅에 한알의 씨앗을 묻어두고 흘려간 씨앗을 물어두고 흘려간 신문이길 바란다.

언론만을 내세우고서 안주하는 「외대학보」는 되지 않으리라.

물은 사유에서 깨어나 우리의 신문이 되길 바라며, 민중의 언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진실어린 한줄의 글을…

<동양일어과2년정현성>

사람도 나이가 서른이면 『걱어진 환갑』이라해서 이때는 서서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룻이, 외대학보도 30년이 람 긴 역사와 오랜전통을 가지고 대학언론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온데 대해 독자의 한 사람으로써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와 격려가 더 할수록 신문을 만들고 있는 기자들의 책임은 더욱 커질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우리신문이 자른실의 언론만으로 되는것이 아닌 이상, 꾸준한 창조적 노력과 이에따른 산고(産苦) 의 고통을 감수해낸 연륜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수 있기때문이다.

서른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자리에서 『사위지기자사 (士爲知己者死)』 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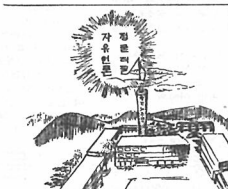
「선비는 모름지기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인데, 글을 쓰는 기자들도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램이다. 자고마치 2만4천이넘는 독자의 눈들은 「글쓴이」의 글 한 자, 한 귀절을 유심히 살피고 있으며, 좋은 글에는 같이 좋아하며 공감한다. 그러나 자기성찰없이 쓰여진 글을 볼때는 본노와 함께 질책도 서슴치 않는다.

창조의 고통을 겪고 난 신문을받아 볼때 독자들은 신문을 더욱 신뢰하게 될것이고 「글쓴이」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될것이다.

무엇보다도 「글쓰는 이」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에 먹칠하는 「오명」을 두려워 해야 할것이며, 글 한줄에도 눈물을 흘릴수 있는 마음의글을 독자들에게 선사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졸산」들의 모든 고뇌와 한이 그 속에서 응집일수 있도록 많이다.

외대학보와 기자여러분들의 건투를 빈다.

외대만평



장한 뜻 기리어 한결 같은 30년

母校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반도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연우

동산토건주식회사 전무이사 정한균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상무이사 조말수

한창섬유공업주식회사 상무 최병욱

해외항공화물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인환

효성물산주식회사 전무 최재원

천일홍업 사장 윤덕노

휘닉스무역상사 전무 이규호

국제상사 대표 안봉수

형우물산 사장 오형규 (무순)

한국의 현대 언론사상 75년 3월의 동아·조선 투위만큼이나 처절한 상황과 수난속에서 투쟁한 사건은 더이상 없었다. 안종필선생은 본교 영어과(62년 졸업) 동문이며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70년대 언론 자유투쟁의 선봉에 서서 사실상 언론자유운동을 주도해 나가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78년 10.24 민권일지 사건으로 영어 (囹圄) 생활중 악화된 간암으로 인해 1980년 2월29일 운명하였다. 오늘날 언론자유가 다만 언론인들만의 자유가 아니고 민족의 자유, 민중의 자유임이명백하다고 할때, 70년대 유신 정권에 저항하여 투쟁하던 안위원장의 생애는 80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오늘의 언론에 귀감이 될 것으로 믿으며 여기 그의 전기를 싣는다. —편집자주—

서서죽은 자유언론의 순교자 안종필

——동아투위 위원장 고(故) 안종필 동문의 일대기

1.「서울의 봄」과 그의 죽음

79년 10·26이 지난후 사회여러층에서는 모두 자유의 바람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서울의 봄」이라고 확각을 하고있을 무렵이었다. 1980년2월29일, 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이날에 모든 일간지는 김대중씨를 비롯한 687명에게 긴급조치 해제에 따른 보완조치로 실시된 복권기사를 1면 톱으로 장식했다. 이렇듯 민주화의 바람은 새역사를 기대하면서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이날, 서울대학 병원에서는 50여명의 동아투위위원, 그리고 가족들과 이해동목사가 인공호흡기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안종필위원장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조용히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의사의 손길을 무수한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이해동 목사의 마지막 예배가 끝나자 그의 호흡은 자연스레 멈춰졌다. 오랜 투병끝에 자신의 삶과 이 시대의 정의와의 투쟁이 끝난것이다. 1년여의 천만부당한 옥살이에서 얻은 병마와 처절하게 싸우다 타계한 그분의 죽음은 이의지, 조민기 기자에 이어 세번째로 자유언론의 제단에 바쳐진 순교의 제물이었다.

3월4일 오전10시 안위원장의 장례식날 대학병원의 영결식장은 이른 봄날씨 그대로 맑았다. 식장앞 광장 한가운데에는 동아투위위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주위에는 3백여명의 조객들이 숙연히 서 있었다. 이해동목사의 묵도로 영결식이 시작됐다. 문익환목사는 울먹이며 가까스로 「증언」을 했고, 문병란시인의 「땅의 연가」를 낭독했다.

「아픔을 참으며
오늘도 나는 누워 있다
수많은 손들이 더듬고 파헤치고
내 수염은 새벽의 나체 위에
가만히 쓰러지는 사람
농부의 때묻은 발바닥이
내 부르튼 가슴에 입을 맞춘다.
「땅의 연가」중에서—

시낭독이 끝나고 고인의 녹음 육성이 확성기를 통해 나오자 장내의 흐느낌은 급내 폭포를 이루었다.

「아침 조회를 열겠습니다. 우리가 밖에나와 투쟁한지도 오늘로 2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로 시작되는 안위원장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울려 퍼지고 동아투위위원들이 모일때마다 늘 제창하던 『정도(正道)의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 우리들은 주장한다』는 구호가 나오자 식장안의 투위위원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나 크게 그의 목소리에 맞춰 복창했다.

『1. 회사측은 132명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등 사원에 대한 부당해임 및 무기정직을 철회하라. 2. ○○○ 주필과 △△△ 방송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가라..』

2.「자유언론실천 선언」과 동아투위

지금부터 11년전 1974년 10월24일, 이날은 유명한 동아일보의 「10·24 자유언론실천 선언」으로 한국 언론사상 영원히 기억될 날이겠지만, 그 주역으로나선 기자들에게는 길었는 수난과 박해와 시련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동아일보사의 신문·방송·잡지를 제작하는 180여 기자 전원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 민주사회 존립의 기본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을 결의했으며 각 부의 대표들을 뽑아 선언의 실천을 위한 특위(特委)를 구성했다.

이 선언의 여파는 전국의 신문, 방송잡지인들에 파급되어 유신시대 자유언론을 주장하는 큰 물결이되어 흘렀다. 그러나 그후에도 언론에대한 탄압은 그치지 않았다. 그 당시 문제기사들중 특히 각대학 메모기사, 김대중씨의 설문 기자회견 테이프 등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묵살돼 버렸을뿐만 아니라 용어의 왜곡까지 시작되어 「C I A」나 「보안사」를 「모 (某)기관」으로, 「부정부패」를「사회부조리」로「학생데모」를 「학원사태」로 「임금동결」을 「임금안정」으로…. 이 시기가 바로 제도언론이 관제화되어가는 길목이었다.

이같은 기자들의 자유언론을 위한 줄임없는 문제제기는 ㅅ사내(社內)상하간에 갈등의 불씨가 되어, 12월23일 허가없이 특위가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분회집행부 5명등 기자 28명에게 무려기 감봉 및 견책처분을 내렸다. 바로 이즈음에 그유명한 「광고탄압」이 시작되어 무려기 광고해약사태가 노골화됐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는 「동아」를 위한 격려광고와 그밖에도 많은 성원을 보여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등 비중 큰 기사가 실로 오랫만에 1면톱을 장식하기도 했다.

그후 회사측은 광고탄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문제기사들을 약화시키고 외면해버렸다. 특히 75년 국민투표 취재단은 구성도 하지 않고 투표 당일인 12일 아침방송에서는 「봉비는 투표대열, 평온한 가운데 활기」라는 식의 기사가 방송됐고 신민당 지구당 회의장의 도청사건이 속보 한줄없이 지면에서 사라지는 등 무수한 기사들이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무렵 항간에는 「동아광고 사태는 곧해결될 것이며 당시 공화당 정책위의장의 「동아일보의 역사와 긍지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통해 곳곳에서 「경영자로하여금 자유언론 실천 기자들을 내몰아 버림으로써 광고를 되돌려 받게 한다」는 추측을 낳았다. 이즈음 편집차장으로 있던 안종필은 소위 데스크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간부들의 자유언론실천 의지를 밝힌 「2·8선언」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시종일관 겉은 기자들과 뜻을 같이 해 왔다.

동아사태의 진상

2월28일 주주총회의 결과 「관권에 동화된 관선주필」로서의 ×××은 자유언론 실천운동 탄압의 주역이 되었다. 3월 8일 회사측은 경영난으로 인한 기구축소 조치로 심의실과 편집국의 기획부 과 학부및 출판국 출판부를 없애고 소속사원중 기자협회 분회원 7명을 포함 18명을 해임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이날 열린 분회총회에서 회원들은「①분회원들의 봉급을 깎아서 동료사원 18명을 구제해 주도록 건의하고 ②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신문, 방송, 잡지의 제작은 계속하되 밤에는 농성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설상가상으로 전임분회장이자 자유언론 실천운동의 주역이었던 장윤환 기자와 외신부의 박지동기자를 해임했다.

이를 기화로 12일 2백여명의 기자가 참석한 긴급총회에서 기자들은 노예의 쭈쩍(甃足) 보다는 자유의 고행을 택하는 민주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자유언론실천백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으로 제작거부와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국과 편집국, 방송국에서 각각 기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을 때, 김영삼총재, 고은, 함석헌옹 등의 민주인사들이 이틀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했다. 를과 소금만으로 이농성은 16일까지 계속되었다.

이날을 기해 드디어 밖에 있는 공무국사원, 운전기사, 판매국직 원들로부터 이들 농성사원들을 쫓아낸다는 정보가 전해져 왔다. 한 노운전사는 구내전화를 통해 『2백여명의 보급소 직원들이 각목과 돌, 쇠줄등을 준비해 놓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응조심하라』고 일러주며 울먹였다. 이날밤 해임기자들은 양심선언을 하고 외신기자들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그 자리에 있던 「시노트」신부(75년4월30일 반공부활절)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추방됨)에게 말했다.

『동아다운 동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다만 드거운 양심 하나로 1974년 10월24일 자유언론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이제 우리는 동아에서 양심의 시대가 지나가고 배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양심의 소리에 따라 일단 동아를 떠나가는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남아 있는 동료들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다. 75년3월16일.』

16일밤 10시가 지나면서 신문사앞 길거리에는 천관우·함석헌씨, 정일형의원, 이택돈의원등 저명인사와 2백여명의 시민과 내외 보도진들이 몰려와 통금이 될 때까지 기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외쳤다.

드디어 3시20분경 술넘새를 뚫기에 손에 광도높은 전지를 들은 200여명의 폭도들은 산소용접기와 해머로 철문을 부수고 「와—」하는 함성과 함께 각목을 휘두르며 창문을 뛰어넘었다. 기자 한명에 3, 4명씩붙어들어 주먹질, 몽둥이질, 발길질로 이들을 창밖으로 내던졌다. 폭도들에게 매질을 당한 정연수기자는 각목에 맞아 안경이 두동강이 났고, 임채정, 성유보 등의 기자들이 부상했다. 3시50분경 이들은 다시 3층 편집국으로 몰려와 큰 각목으로 쇠창살과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기자들에게 소화기로 가스를 뿜어댔다.

그러나 이때 양시 분회장으로 있던 안종필은 『이들과 싸우지 말자.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싸우자』고 외치며 기자들에게 냉정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는 간단하고 힘차하게 총회를 갖고 「자유언론 만세」 「민주회복 만세」「동아일보 만세」를 부른 뒤 농성중 사용했던 도구들을 챙기고 사회부 뒤 기둥에 걸게걸었던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 쓴 대형 휘호족자를 앞세우고 계단을 내려가며 애국가를 불렀으나, 현관을 나설 무렵 애국가는 어느새 오열로 변해 있었다. 이들이 사옥을 나섰을 때는 마침 새벽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기다리고 있던 이택돈의원을 비롯한 인사들과 한맺이리가 되어 빗속에서 분루(憤淚)를 삼켜야 했다.

이렇게해서 폭도들에 의해 17일 강제축출당한 기자및 사원들은 그날로 신문회관 강당에 모여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들은 자유언론의 재탈환을 위해 순교자적 정신으로 싸움것을 결의한다. 이들은 매일아침 8시반경 후문앞에 모여 출근하는 사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주장을 담은 등사한 진동아(眞東亞) 를 배부하고 사옥앞에 도열, 투인의 시위를벌이는 등 120여명의 기자들은 자유언론을 위해 고달픈 싸움을 전개해 나갔다. 그들이 축출당하고 난뒤 동아사옥 앞에는 길목길목마다 막아선 사복경찰이 새로 발굴된 기자증을 안가진 축출사원들에게 「가짜기자」라고 모욕을 주는등 치졸한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렇게쫓겨난 114명의투위위원들은 그후로 출판생활고에 허덕여야 했으며 3투 출판사를 기웃거리기도, 택시운전사를 하기도했다. 부인 이광자여사가 약국을 경영하고있는 안씨는 그리생활난에 어려움은없었으나 이것이 마음그를 고민하게했으며, 투위위원들의 생계걱정과 자유언론 수호를위한 그의 고통은 끊일날이 없었다. 때문에 그는 투위의위원장으로서 투위원들 개개인의 고민을 자신의일처럼받게 고뇌했으며 사랑과 관용의견지로투위원들에게는 훌륭한 리더가되었다. 그러나그는 원칙의 면에있어서는 한치의양보도 없었으며 한번도 유신독재권력과 타협하지 않이 강한의지로 오랫동안 동아투위를 이끌어 나갔다.

3.어린시절에서 위원장이 되기까지

안종필. 1937년 부산에서 안체열씨와 우복순여사 사이 4남4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어려서부터 남에게 헌신적이었고 순진한 소년이었다. 특히 금전의 면에서는 무더기고 순수했으며 일찍부터 동아일보의 특파원이 되고싶어했다. 56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해외 특파원의 꿈을 안고 그는 외대 영어과에 입학한다. 대학의 자유언론을 향한 뜨거운 의지는 힘의 논리에 외해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법정에서 장윤환위원은 「자유언론이란 나무는 언론인의 피로써 길러지고 펜과 마이크로 수호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안종필위원장도 『우리들은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뛰기되어 구속됐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기자로 복귀할 때 쓸것이다. 언론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공기가 없으면 인간이 살수 없듯이, 우리는 기자가 해야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법은 시행되기 전에 철폐돼야 한다.』며 당당하게 말했다.

그는 끝까지 동아일보로 복귀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복귀는 안종필 개인의 꿈이던 기자생활의 재실현을 의미하는 것일뿐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한국언론에 있어서의 반성과 개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자유언론의 쟁취에 대한 신앙과 확신이었다.

2월17일 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황인철 변호사가 그에게 반대신문을 한다. 『지금과 같은 긴급조치 아래서도 자유언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긴급조치는 국가 위기등 긴급사태에만 발동되는 것이지만, 언론자유는 천부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자유언론의 동물입니다. 따라서 자유언론은 긴급조치이전의 것입니다. 사람은 듣고, 보고, 말하지못하면미치고 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유언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썩고 미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긴급조치 밑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제한될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2년형을 언도받았고 2차 민권일지 사건의 성유보, 이기중, 윤활식의원들도 3년에서 5년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조선·동아 투위위원들과 가족 그리고 많은 민주 시민들이 동아일보사 앞에서 도열시위를 벌였으며 앰네스티 사무실에서 농성도 하고 「구속 언론인을 위한 밤」을 열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줄임없이 노력하였으나, 결국 긴급조치의 철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위원장은 김종철, 홍종민, 정연주 기자와 함께 성동구치소로 이감되었다. 그 후로 안종필씨의 건에서는 암이 움트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안성열 성유보위원들의 건강도 날로 심각해져만 갔다. 옥중에서는 다른 위원들의 건강을 걱정하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한다. 그래야 밖에있는 동지들이 우리 건강걱정 안하면서 더욱 자유언론을 위해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면서 『하루빨리 옥문을 나서서 다시 자유언론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 했다.

그는 감옥안에 있었어도 결코 퇴인이 아니었다. 안에 있던 간수들까지도 그에게만은 「위원장님」이라는 존칭을 썼다. 옥중에서 그는 동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동아투위의 한사람이 되었다는것이 더없이 행복하다. 75년 봄, 회사에서 쫓겨날 때에는 들른 마지막 결정이야 내가 했지만 사실, 자네들같은 젊은 친구들의 편위기에 밀려서 나온 감도 없지않았다. 그러나 내가 역사에 대하여 맷맺히고 당당한 일을 하고 있기에, 고생스럽지만 깊은 뜻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이다.

5.투병과 그의최후

79년 10월경부터 그는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즈음에 썼던 병은 악화될대로 악화되었던 것이다.

79년 12월 4일 구속 집행 정지로 출감하였으나 곧 원자력 병원에 입원을 해야 병세의 진전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결국은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기자는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장 이장규 박사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화분을 선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봄이 되면 이 화분의 꽃에도 꽃이 필 것이며 제 건강도 이처럼 회생될 것입니다. 꽃이 필때 함께 그 꽃을 보면서 「소주나 한잔 나누십시다」』 그러나 이장규박사는 그 꽃이 봄에 피는 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몇일을 집에서 요양을 했으나 이미 그의 결예는 죽음이 다가와 있었다. 2월28일 『빨리 일어나서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려야 할텐데』 하면서 걱정을 했으나 그날로 갑자기 간성 (肝性) 혼수에 빠져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다시 일어날수 없게 되었다. 꽃도 아직 피지 않았고 동아투위 5주년 기념식도 아직못 치렀는데 그냥 그렇게 그분은 가버리고 말았다. 유신말기 3년의 암담한 시절의 동아투위 위원장으로서자유언론실천운동을 선도해온 그분이 그렇게가버려졌다.

6.역사속으로

영결식장은 다시 이병주 위원장대리의 조사와 고은씨의 조시(吊詩)로 넘어가면서 더욱 통분과 숙연으로 일어붙은것 같았다. 이위원장대리는 「안위원장. 안형」을 목놓아 부르면서 「특재자 박정희가 살해되지 않았더라면 옥사했을 당신, 당신의 죽음은 유신독재가 저지른 타살이었습니다」라며 울부짖었다. 고은시인은 조시(吊詩)에서

『당신의 죽음은 당신의 삶 그대로 민영이 예필이의 아버지이지만
당신의 죽음은 이제 우리 역사의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대학병원 한 귀퉁이 영결식장으로부터 우리 역사 온갖 삶과 죽음의 역사속으로 가십니다.

이 말 한마디 증언하기 위해서 당신이 남긴 동지들 이제까지 울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울겁니다.

그러나 분합니다. 진정코 분합니다.

우리가 이북하고야 말 민주주의를위한 영령이여 자유의 영령이여 그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하던 민주주의를 못보고 가버리시는 당신의 죽음이 참으로 분하고 분합니다.』

라고 절규하며 「여보시오 안 위원장. 안형」을 연거푸 외쳤다. 함세웅 신부는 『선생님께서 쓴 언론은 뽀으로 쓴 글재주가 아니라 당신의몸과 피로서 쓴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모두 그분의뜻을 따르는 자유언론의 작은 실천자가되게 하여주십시오.』 라고 기도 했다. 조선투위 정태기위원장도 슬픔을 가누며 추도사를 읽어내려갔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마지막 모습앞에서 우리의 사무친 슬픔, 통념한 마음을 모두어 역사를 제자리로, 앞으로 밀고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큰 말을, 역사의 버린 말씀을 크게 휘둘러 곡필(曲筆)과 곡필하는 자들을 버릴 것을 다짐합니다.…내일이면 다시 우리들은 안형이 말리신 자유언론의 깃발을 펄럭이며 민주화를 향한 민중의 대열에 신문기자로서 앞장서 있을 것입니다.

자유언론과 민주주의에 순(殉)하신 안종필동지시여. 이나라 민중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이나라 언론의 뛰어가는 길을 보우(保佑)하시는 수호신이 되소서』

영결식의 마지막에 동아투위 김학천동지의 조가가 흘렀다.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핏듯마냐. 그날쓰러져간 젊음같은 꽃사태가….」 그리고는 른아들 민영과 딸 예필의 손을 잡은 미망인 이광자여사는 프리지아 한송이씩을 손에 쥐고 차디찬 유해가 누워있는 광앞에 섰다. 그뒤로 수많은 조객들이 줄을 이어 헌화했다.

정오가 지나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서서히 영결식장을 빠져나간 영구차는 동아일보 사옥앞에 멎었다. 그날 각목과 산소용접기에 쫓겨 내몰렸어 쳐졌던 그 광화문 거리. 거리의 기자가 되고서도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어했던 그 사옥은 신문 방송차와 취재용 승용차로 바리케이트를 친채, 아 영구행렬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으로 환강히 버티고있었다. 옛 동료하나 눈에 띄지 않았는 다만 길가던 시민들만이 걸음을 멈추고 신문에도 나지 않은 이 뜻밖의 거창한 장례행렬을 넋여겨 보고 있었다. 그러곤 영구행렬은 바로 일산기독공원 묘지로 향했다.

7.서서죽은 자유언론의 순교자

안종필, 43세의 나이로 70년대 이땅의 언론자유만을 위해 그 한몸 불태우다 간 사람이다.

그는 결코 혁명가도 투사도 아니었다. 어느 시인의 시구절처럼 그는 자기 맷대로 색깔을 칠하고 제멋대로 선을 그어 뜨겁게 뜨겁게 울고만 있는 이 땅에서 진정한 기자가 되고 싶어하던, 기자만이 되고 싶어하던 사람이었다. 그냥 동아가 아닌 진동아(眞東亞)를 만드는것자체를 더불어하고 그리워 기뻐했다.

「인간애에 있어서 말할 권리가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만을 외치다 가버린 사람, 비내리는 새벽녘에 거지처럼 쫓겨나 거리의 기자가 되었어도 언론을 천직으로 알고 자신의 확신과 언론에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이땅에 새역사가 꽃필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유언론의 대도(大道)를 당당히 걸어나가자고 말하던 사람.

감옥으로 갈 때도 「내가 하던 선에서 머도덜도 말고 당당히 계속하라」는 말을 남긴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던 그분은 결코 유신 독재하에서도 굴하지 않은, 서서 죽은 자유언론의 순교자였다.

(이 글은 취재와 관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취재: 양정철기자
박영미 기자

◇1975년 3월17일 쫓겨난 114명 기자들은 매일아침 이렇게 침묵시위를 벌였다. (두번째 고개숙인 사람이 안종필동문이다)

"듣고, 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치고 만다. 사회도 역시 자유언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썩고 미치고 만다"

4.「10.24민권일지 사건」과 옥중생활

그러기를 4년을 지내왔으며, 결국 이들의 투쟁은 10·24 민권일지 사건으로 폭발한다. 78년의 이 일은 안종필이 유명을 달리할 수 밖에 없었던 직접적 도화선이 된 사건이었다. 이것은 동아투위의 「10·24 4주년특집」중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와 「보도되지않은 민주인권 사건일지(1977년10월부터 1978년10월까지) 」가 이른바 긴급조치 9호에위반된다는 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는 현재 이땅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 즉 대학생데모사건, 동일방직사건, 수많은 양심범의 투옥등을 현 제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것은 그자체가 벌써이며, 민중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인으로서 언론자유와 사실보도의 권리를 갖고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제도와 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안종필, 장윤환, 김종철 등 7명의 위원이 구속되었고 그후에도 성유보, 이기중, 윤활식위원이 구속되는 등 모두 10명의 위원들은 이사건으로 동아일보에서 축출된 후 3년반만에 이들은 석방되어 다시 기자생활을 할거요.』

이즈음 그는 파거보다 더 깊은 신앙심으로 견뎌냈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했으며 조금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투서우리만치 냉정했으며 고통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돌아오는 3월17일 투위창립5주년 기념식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때 투위동료들은 한동안 눈시울을 적셨다. 2월13일 기자협회보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단 한마디도 자신의 투병에기는 꺼내지 않았으며 해직기자문제와 언론계에 관한 얘기만을 주로 했다. 2월14일 병원측은 머이상

◇1980년 3월 4일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영결식장에서 이돈명(변호사)씨가 조사를 읽고있다.

학풍재정립을 위한 과제들

—③교내 연구기관의 실태

대학은 강의를 통한 지식의 전수기능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한다. 단순히 기존의 지식만을 주입하는 곳이 아닌 새로운 사실과 법칙을 주어진 학문의 틀에서 재창조해가는 곳이라는 것이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는 세계의 학문조류에 뒤지지않고 본교의 학문발달을 위해서는 사실과 법칙에 대한 연구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것이다.

대학내의 연구기능은 교수의 개인적노력으로서도 담당할 수 있겠지만 각 분야의 전문연구소가 중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때이러한 점에서 각 연구소는 관계분야의 조사연구, 자료 및 도서의 수집과 간행, 외부단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산학 (産學) 협동, 연구발표 및 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본교의 연구소는 69년 처음 설립된 경제경영연구소를 비롯하여 작년에 신설된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등총14개소가설치운영되고있다. 그런데 14개의 연구소중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몇개의 연구소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연구소는 활동이 극히 미비해 1년 사업으로 한차례의 연구논문집발간과 학술세미나 개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의 경우「우리나라의 대소 (対蘇) 및 동유럽 제국과 관계증진에 기여하고자 제반사정을 조사연구하려는 부설기관으로 1972년 발족되었다. 이 연구소는 연구논문집의 정기발간과 학술잡지 「슬라브 연구」를 간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문교부로부터「소련의 한국학 연구현황」이라는 외부 프로젝트 (project) 를 받아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언어연구와 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시키는데에 공헌」한다는 취지하에 설립된 언어연구소의 경우는 다섯차례의 심포지엄개최와 연구논문집 「언어와 언어학」제10집까지를 발행하여 왔다. 언어연구소의 경우, 예산의 부족등으로 인해 연구논문집 발간외에 특별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연구원에 위촉된 교수들의경우도 주임단축이나 연구비지급 등의 예산지원이전혀없어 연구업무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 그러대의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전문위원만 38명의 위용과는 여러모로 비교가 된다 하겠다.

또 연구활동에 필요한 학술논문집이나, 잡지, 관련 외국서적과 잡지 등이 연구자료로 필요한데도 본교 연구소의 경우는 이러한 자료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국내자료는 세미나 등에서 외부기관과의 교환형태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서적 구매의 경우 소가 1년에 2백만원 안팎의 학교연구보조비로 모든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예산은 논문집 한번 발간하면 바닥이 난다고 한다.

외부보조금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소련및 동구문제연구소」「중동문제연구소」가 문교부지원금 천만원을 보조받고 「한국지역문제연구소」가미국의 「아시아문제연구소」에서 2만5천불의 지원금을 받고있을 뿐 다른 연구소는 외부지원금이 거의 없다. 이런 부족한 재정사정은 연구자료구입문제, 연구요원학보문제와 더불어 진행하는 연구활동에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올해 학기 초 중국문제연구소는 「연구소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건의안에서는「기본도서구입비」「공식연구원의 확보」등을 학교측이 적극 지원해 준다면 3년 정도 지나서는 문교부나 외부기관의 보조금과 기업체와의 합동연구로 자체 운영비를 조달, 학문풍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연구소측도 학교당국의 지원만이아니라 외부기관과의협조등으로 자체운영비를 조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것이다. 학교측도 재정문제에있어 특정연구소를 중점지원함으로써 연구소가 「자생력 (自生力)」을 가질수있도록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본교 특유의 장점인 외국어를 토대로 각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에대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敎授) 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및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라는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연구소의 활동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연륜(年輪)이 깊지 않은 연구소에 큰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하겠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활동의 활성화는 종합대 출범 5년이 지난 지금에 의대발전의 한 초석이 되리라 보여진다.

부설기관인 연구소는 이학계열의 편협성을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탈피하도록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제시와 국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사정등 다양한 학문을 연구발표하고 타대학및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풍진작에 일익을 담해야 필것이다.

본교의 연구소들은 대개가 학교의 특성과 관련된 독특한연구기관들이다. 재정적 무자만 보강된다면 보다 다양한 연구범위의 확대등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다 하겠다.

<기획부>

재정및 외부지원 대폭확대 절실

연구소 통폐합을통한 중점지원으로 외대특성 살려야

외부단체와 공동연구및 산학(産學) 협동 필요

한편, 각 연구소의 구성은 보통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행정간사로 구성되어있는데 소장과 행정간사가 실질위주의 업무활동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연구요원의 경우 언어연구소, 경제·경영연구소 등은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인원확보에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소가 형식적인 연구위원임명에 그치고 있어 연구업무만을 전념 (專念) 할수 있는 전문연구원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우는 업무도 내지 못한채 기증예만 의존하는 경우가많다고한다. 또중국문제연구소의경우는 공산권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비밀문서취급허가」를받아야 필요한 자료구입을 할 수 있는데, 「비밀문서 취급허가」를받기 지못해중공에서 발행되는 「1차자료」를확보하지못해연구활동에 큰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소 관계자들은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예산문제를 들고 있다. 인원부족, 자료부족 등이 바로 예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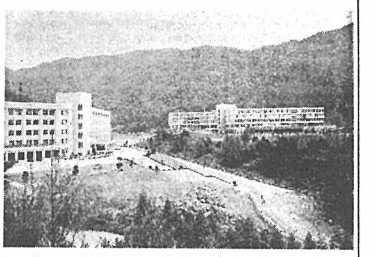
용인캠퍼스의 자율행정

캠퍼스 비대화에 따른 자율적 행정체제로의 전환필요

종합대학교 5년째를 맞이하는 본교는 종합대 승격과 함께 진행된 2,000년대의마스터플랜에 박차를가하면서 종합대로서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캠퍼스는 그동안 질·양면에서 발전을 거듭해온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현재의 「용인캠퍼스」체제는과거단과대성격을 지녔던 「용인 대학」으로 있을때와는 그성격이 다르고, 외적인 성장·발전만을 논하기에는 몇가지지적되어야할 문제가있으며 이는 캠퍼스의 이원화에따른 체제적인 진통이랄수 있다.

지금 현재3개단과대에24개학과, 전체학생수가 4천명을 넘어선 용인캠퍼스의 비대화는 용인캠퍼스 자체내에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한 자율적인 새로운 행정체제로의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의 용인캠퍼스 행정체제는 교학처장, 각단과대학장, 교무과, 학생과, 서무과 3개부서와 각 단과대교학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학처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있는 「위임 전결규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은 서울과의 협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캠퍼스의 발전에 발맞추어 보다 나은 대학체제로서의 진전이 있기위해서는 행정적인 면을 재정검할 필요가 있다.

신임 양인석 용인 캠퍼스 교학처장은 『지금의 교학처장제를 부총장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용인 캠퍼스 전경

대, 인문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 캠퍼스로 분리되어 있는 성균관대를 제외한 8개대학중 부총장제를 두고 있는 학교는 D대 천안캠퍼스를 비롯해 6개대학이며 그중 D대 천안캠퍼스, D대 경주캠퍼스, H대 반월캠퍼스, J대 안성캠퍼스의 경우는 학생활동및 일반 행정사무에 있어서 일정한도내에서 자율적인처리가 이루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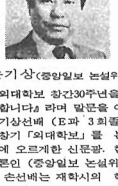
대부분이 지난 80년도를 전후해 설립된 이들 지방캠퍼스들이 당면한 문제점은 대동소이하다. 학적문제, 캠퍼스 시설미비, 대다수의 학생들이 서울을 거주지로 통학을 하는데서 오는 문제점등은 얼마간은 고질적인 문제로 남을것이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 분교장책과 관련된 본교부달국등 삼자 모두의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요구된다. 한국 대학 대다수의 사학(私學)이 겪고있는 자율성 결여는 사학의 재정난등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질의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다.

용인캠퍼스의 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적인문제가 병행되어야 하는등 선결돼야할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대는하나」라는 전제아래 비대화된 용인캠퍼스의 탄력성있는 사무행정과 주체적인 학내 학생활동을 위해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지금의상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개진되어야 할것은 교학처장의독자적 권한이 명시된 기존의 교학처장의 「위임 전결규정」의구체화를 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는, 서울과 용인 양 캠퍼스간에 수평적인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가능한 한 일반사무행정이 자체적으로 처리될수 있도록 부총장·부처장제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셋째는, 용인캠퍼스를 단대 형식으로 취급하는듯한 고루한 인식은 재검검되어야 한다. 네째로, 대학의 전구성원들이 평배된 「서울지향」의 인식을 버리고 현실타개를 위한 시정 노력들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황 하일 기자>

이 사람



손기상(중앙일보 논설위원)

『외대학보 창간30주년을 축하합니다』라며 말문을 여는 손기상선배 (E과 3회졸)는 초창기 「외대학보」를 본궤도에 오르게한 신문광. 현직 언론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인 손선배는 재학시의 학보부편공(?) 을 살려 신문사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외대학보가 계속하여 발전하고 연대성을 가지라』는 의도에서 본보 가십 (Gossip) 란인 크로니클 (Chronicle) 을 27년전 신설하였고, 수습기자생활 남·여기자합병란을 본보의 「편집의 틀」을 굳혔는가 하면, 현재의 제호도 밤을 꼬박새워 가며 만든 장본인이기도하다.

『당시 타블로이드판(본보크기의 반)의 크기였으나 그곳에 모든 정열과 신문에 대한 사랑을 쏟았다』면서 『공산권신문까지 찾아보며 구성을 생각하였고, 어학과 학생들로 7인회를 구성하여 서로 토론후 편집회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당시 신문제작의 열기를 말한다. 모교의 소식을 접할수 있는 외대학보를 무엇보다도 먼저 본다는 손선배는 『외대학보는「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를 통해 사회인식의 장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촌감을 밝힌다. 또한 외대학보에 실리는 논문도 교수와 일반학생들의 논문뿐만아니라 학생기자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마련해보는 것도 권장할것이라고 제언을 하기도.

『그간 외대의 사회기여도를 생각하여 불매 종합대학으로서의 외대발전이 외대학보와 함께 하길 바란다』면서 창간30주년을 맞는 본보와 개교31주년의 모교를 함께 축하해 한다. 28년전 정론과 직필이란 이상을 모태로 그 고고의 성 (聲) 을 발했던 시절, 원고지와 싸워가며 새로운 신문, 힘찬 신문이 되기위해 편집계획에 여념이 없었을 손선배를 바라보며 이시대 대학언론의 위치와 자세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경>

예비군 창설 기념식

예비군의 날 창설 17주년 기념행사가 본교에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황남태 총장과학 처장급으로 구성되어있는 방위지원 위원회 위원 10여명, 소대장급 이상 지휘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기념식에서는 이승대교수등 7명이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간담회도 열렸다.

마인어과 동문회 장학금 지급

본교 마인어과 동문회 (회장 문천보·M I 과 3회졸) 에서는 이번 학기 장학생으로 전웅세 (동양 M I·3)군과 최인에 (어문 M I·3)양을 선발하고 각각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마인어과 동문회는 지난83년과 창설 20주년을 기념하여 구성되었으며 현재 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목표로 하여 모금운동을 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학기 2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 여학생 특강 1학년 대상

용인캠퍼스 교무과는 1학년남학생들의 문무대 입소와 관련 1학년 여학생을 위한 특강을 4월17일(화)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시회과학관 201호에서 개최한다.

성신여대 박용옥 (사학과) 교수의 「근대여성사와 바람직한 현대 여성상」과 본교 서재명 (EC과)교수의 「여성과 경제」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동직원

▲사레지오고등학교
신입생 문무대 환송회 시계탑앞 12일 (금) 오후 3시

▲동북고등학교
신입생 문무대 환송회 시계탑앞 11일 (목) 오후 5시

▲서성고등학교
M·T를 위한 예비모임 도서관 1층 로비 10일 오후 5시

알림

동직원은 학내의 동창회등, 각종모임을 싣는 난입니다. 알리고자하는 모임은 외대학보 기획부로 연락바랍니다.

1학년 필참석요.
▲청탄·남대전고등학교
문무대입소 환송회 상징탑11일 (목) 오후5시 2천원
▲경북사대부고 동문회
12일(금) 오후5시 상징탑
▲여의도고등학교
신입생 문무대 환송회 시계탑 12일(금) 오후5시 3천원

본보 창간 30주년

○…본보는 4월11일(목)자로 창간30주년을 맞았읍니다.

자유언론·정론직필의 고고한 이상(理想)으로 그간 외대혼의 결집을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왔었읍니다.

어투음을 밝히고, 힘찬 외대여사의 한발자욱씩을 해 옥미 흡산 제위의 참여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어느곳에서나 솟쉬는 「외대학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열기로 되어있던 학생회칙 황산골단대공청회가 준비미비와 무성의로열리지 조차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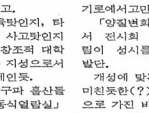
혹자의 잘못을 탓하기 앞서 양자 모두 대의(大義)를 위한 심사숙고가 재고되어야할 사(事).

○…「판단혼란의 시대」에 민주흡산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구습이 캠퍼스 곳곳에 자리잡고있어, 보는이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데.

다름아닌 대학 문화는 포스터 문화라는 공식을 성립시킨 것까지는 좋았으나 천편일률적인 각종 모임 공고는 물론 사후처리조차 미흡하다고.

획일화된 교육탓인지, 타율시대의 경직된 사고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창조적 대학문화의 살아있는 지성으로서 생각좀 해볼 문제인듯.

○…황산골 학구파 흡산들이 새로이 「이동식열람실」을 개관.



마장동에서 통학하는 흡산들이 손에손에 책을 들고 통학버스를 「이동식 열람실화 (化)」시켜 드거운 면학분위기에 심취하고 있다고.

황산의 정기를 이어 받은 지성 흡산들에 의해 흡산문화가 창조될 것 같은 기분좋은 예감.

○…서클 가입 하려는 신입 흡산들이 선택의 기로에서고민에 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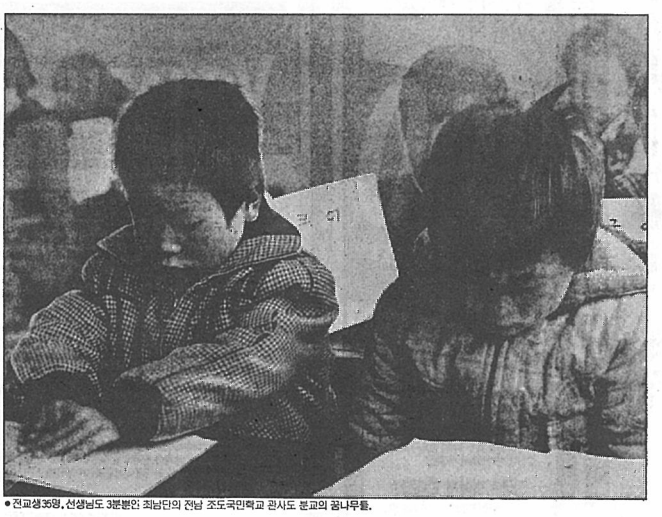
「양질변화」를 시도하면서 전시회 공연등 서클활동이 성시를 이룬 것이 그 발단.

개성에 맞는 서클을 택해 미친듯한(?) 활동, 알찬계획으로 가진 바 모든 교양이 서클 속에서 태어나길.

○…잡조(雜鳥)의 일기

외대가 정말로 민주화됐나 보다. 최루탄 쏠 기회도 없고 앉아서 밥이나 까먹자니 신세한탄이 절로 나온다.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잡연회장사 불참으려 간다고 할 때같걸 괜히 남아도로변에서 달배꿀초나 주워피자니 형편이 말이아니다. 오늘은 3명을 불참았는데 내일은 몇명을 더잡아야될지…정말로 우리 큰잡조는 머리가 나쁘다. 다 잡아 가두던 되는데 말이다. 참, 황산강연회 강사는 손을 썼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잡이와서 이만큼만 쓰자.

잡조의 일기



● 전교생35명, 선생님도 3분뿐인 최남단의 전남 조도국민학교 관사도 분교의 꿈나무들.

선생님과 함께 싹틈도 방교교정을 가꾸면서 소중한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외딴섬의 아이들

외딴섬 산간벽촌의 이 아이들— 이들 속에서도 내일의 한국을 빛낼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코오롱은 그들의 꿈과 재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 외딴섬에도 IQ 135가 넘는 아이, 100m를 13초에 달리는 아이도 있읍니다.
비록 이러한 환경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소중한 꿈과 재능은 틴없이 자라나야만 하겠읍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코오롱은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들 어린이들도 조국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꼭 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

전라남도 조도면 관사도 — 진도에서 뱃길따라 두이시간 걸리는 외딴섬.
이런 곳에서도 우리의 내일을 빛낼 어린 새싹들은 자라고 있읍니다.
세분 계시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 화장실도 손수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나무를 캐서 놀이기구도 만드는 조도국민학교 관사분교의 어린이들…
이렇듯 이러운 환경속에서 자라나는 이들에게도 남못잖은 원대한 꿈이 있읍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라야 고작 35명뿐이지만, 이들중에는 135이상의 IQ를 가진 아이, 100m를 13초에 달리는 아이도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했다며 이미 읽은 책을 또 읽고 또 읽는 아이.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겠다며 군살빼긴 맨발로 갯벌을 달리는 아이도 있읍니다.
다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도시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학습교재, 더 읽고싶은 책…
이런것들만이 없을뿐 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소중한 꿈과 재능은 어떻게 될까?
지금, 누군가 이들에게 조그마한 관심과 도움을 준다면 이들중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아인슈타인, 올림픽메달리스트, 노벨상 수상자 … 이들 어린이들도 조국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무언가 꼭 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코오롱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을 투자하는 기업 — 코오롱

□연작소설

미네르바에 뜨는 별

이 상 룡 (서양·노어과3)

제3화

우리 젊음의 배는 어디로

『사월이 되면 제일 먼저떠오르는 말, 또는 시간이 무엇이지요?』

평소에 수업시간을 정확하게 채우심은 물론이고, 이따금씩은 쉬는 시간까지 헌납을 받아 강의하셔서, 학생들의 원성 (?) 을 한 몸에 받고 계신 선생님이 나른한 봄 날의 오후 수업을, 전혀 예상밖의 담화로 시작하셨다.

아무도 말이 없다. 수업직전의 요란한 소음속의 생기는 온데간데 없다. 모두들 잠시 어리둥절한 채 눈만 멀뚱멀뚱. 』

이윽고 그 정적을 깨고, 한 여학생이 지명되어 답변에 나섰다. 『만우절요.』 엉뚱한 질문의 이유를 찾느라,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강의실에 갑자기 폭소의 물결. 그러고는 모든 기능의 정상회복.닫혀있던 입들이 열리었다. 식목일, 중간고사, 생각나는대로들을 주워 넘기다가, 한쪽에서 4·19라는 말이 나올때쯤에서야 겨우 다시 평정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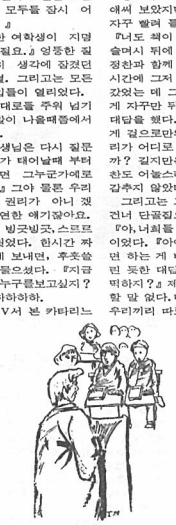
분위기가 정리될 때쯤, 선생님은 다시 질문을 던지셨다. 『자유는 우리가 태어날때 부터 가지고 있리인가요, 아니면 그누군가에로부터 부타받은 속죄인가요?』 그야 물론 우리가 태어날때부터 누릴수있는 권리가 아니 겠어요. 그런것쯤이야 벌써 달연한 얘기잖아요. 시원시원 대답하며 눈짓으로 빙긋빙긋.스트로잡기인 눈초차 흘금기를 싹씻었다. 힌시간 짜리 강의니가 조금단더 이렇게 보내면, 주춧쉽만한데. 선생님은 하나뜸더 물으셨다. 『지금 그 누구라도 만날수있다면, 누구를보고싶지?』

한쪽에서 『영라대왕요.』 하하하하.

또 다른 데서는 『어제 T V서 본 카라리느 비튼가, 바튼가 그 여자예요.』 우와하하하.

그러다가 아까 4·19를 거냈던 학생이 다시 『우리의 자유를위해 기꺼이 몸을 바쳤던, 이름없이 스러져간 젊은듯들을 살아있는 얼굴로 한 번 보고 싶읍니다.』 라고 주의를환기시키자, 다시들 차분히 가라앉았다.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시던 선생님이 질문을 마무리 지으며 말씀하셨다.



『무겁게 틀을 필요는 없지만, 또그렇게가벼운농으로만대답할 성질의 물음이 아니었는데.그렇지요?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그저사고할필요가없는 대화에만 익숙해져가는것 같읍니다.』 『사월의 초입에 들면, 봄이 오는 소리 시냐브로 들리고,라라고 노래한 시인처럼은 못 한다하더라도, 밤도 이리저리 뒤척이며 새워도 보고, 새로운 계절의 흐름을 흘로 고요히 앉아 정관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 특히 여러분처럼 입생지니고 살 뜻이 다져지는 시기의 젊은 이들에게는.』 완곡한 말씀에 동의하는 듯, 모두들 눈빛을 가다듬어 귀를 기울였다.

창밖을 그윽이 내다보시던 선생님이 다시 말을 이으셨다. 『오늘 얘기에 큰 뜻은 없었고, 다만 사월이 되면 단지 자유라는 말이 이따금씩 불현듯 떠오르고, 지녔던 좋은 뜻 펴보지 못하고 먼저 간 청춘시대의 벗들이 생각나, 어려 젊은 이들에게 한번쯤은 꼭 말하잔 하는 얘기였읍니다.』 이 때쯤해서는 모두들그 분위기에 푹 젖어들었다.

『밝고 명랑한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재미스런 어투나 가벼운 형동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언젠가부터 나지막이 가라앉은 눈빛을 지닌 학생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져갑니다.』 여운이 길게 남는 말씀이었다. 나름대로를 생각에 젖혀,활홀히 내리기 시작한 강의실엔 고요만이 가득했다. 이윽고 그 고요를 깨치고 수업종료의 종이 울렸지만, 젊음들이 사뿐하지만은 않았다. 교제는 점어든 강의였지만 많은 걸 가슴에 담는 시간이었다.

푸연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우리의 현재가 문득 부끄러움과 함께 떨림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저 수업과 배움이라는 일상성에 매여 흔들거리며, 우리 앞날에의 꿈빛이 자꾸만 흐려가는 줄을 알면서도, 그저 그때그때 상황마다에 맞는 몸짓을 불생각없이 엮어가고 있는게 아닐까라는 자그만 회한이 자리했다.

평소대로 도서관에서 저녁시간을 책을 펴고 애써 보았지만, 눈은 글줄사이의 공간으로만 자꾸 빨려 들어갔다.

『너도 책이 잘 안장히는가 보구나?』 정찬이 슬며시 뒤에 와 한참 지켜 봤다며 물어왔다. 정찬과 함께 밖으로 나오며 『그때, 아까 수업시간에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생각으로 들어갔었는 데 그게 참 부끄럽기만 하다. 왜 이렇게 자꾸만 뒤덮려가기는 건지?』 라고 막연한 대답을 했다. 『나는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렇게 겉으로만의 생활을 짐스럽게 해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래도 되는걸까? 길지만은 않은 이 젊음의 시절을—.』 정찬도 어눌스레 말을 하면서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냥 대화없이 오래 걸다가 철길 건너 단골집으로 자연스레 옮겨갔다.

『야, 너희들 오늘은 또 무슨 문제야?』 승명이었다. 『아이고 또 너냐. 오늘은 네가 없었으면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다.』 정찬의얼굴 표한 대답을 끝맺 『나도 있는 데. 나는 어떠하지?』 제준이 한편에서 또 나섰다. 『후, 할 말 없다. 대신 너희들은 너네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마시자?』 내가 정찬을 거들었다. 『그게 잘 될까?』 승명이 아롯한표정을지었다.

『네가 빠지면 너희들끼리는 그저 환상속에서 들만 허우적거리잖아?』 승명이 자리에 끼어들어오며 말을 이으려하자, 『그래. 민의의 대변자 너이승명, 제발 주장 늘어놓지 말고, 그냥 차분히 좀 앉아 있어다오.』 정찬이 농만은 아닌 표정으로 얘기했다. 그러고 저녁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촉촉한 봄비를 바라보며, 정찬이 얘기를 계속해 나갔다. 어조도 자꾸 낮아만 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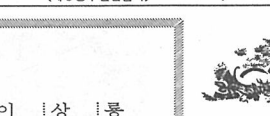
이윽고, 『이렇게 크게 뜻 키우는 일없이 바쁘기만한 생활과 열정에만 들떠있는 가운데 우리가 타고 있는 젊음의 배는 어디로 가는걸까? 머물 섬이 있는 건지—.』 눈빛을 가만이 모으면서 정찬이 말을 흐렸다. 『그런 사춘기적 우문을 우리가 꼭 되풀이 해야 하나?』 말을 잡고 있느라 무던히 애썼을 승명이 또 논리를 폈다. 『그런 것쯤은 물어주지. 이른바 봄바람이 맥주향처럼 코끝에 싸한 계절인데』 승명은 언제이듯 경쾌한 어조로 말을 했다.

하지만 공감의 열이 전연 들지 않았다.정찬의 의 독백이 무겁게만 들리지 않았기에.그건 그만의 독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현주소일 수도 있기에.다만 모두가 그런 독백을 터놓을수 있는 가슴과 가슴으로의 만남이 드문 시절을 가고 있기에,어느새 우리가 잃고 있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기에.『세계를 호흡하는 젊은 가슴』우리가 한번쯤은 불현듯 고가공의 한 귀퉁.사월. 젊음의 꿈과 열정을 문득문득 느끼는 계절. 반도 이 서러운 땅의 슬픈 아들들의 함성이 가슴한쪽을 치밀고.

우리가 앞을 시대는 정녕 없는 것일까? 저마다의 내면을 밝기만한 대화로 감추어도 괜찮은 걸까?

그러면 우리 젊음의 배는 어디로 항해야 하나?

밤지만은 않은 시절에 우리가 다다를 저마다의 섬은, 우리가 엮은 꿈빛대로의 빛깔을 지니고 있을 텐데—.



근동(槿東)에서

김 희 구 (상경·무역학과 2)

난다
떠오
봄빛이
우리가 있으면서 없는
기둥 (槿東) 에게 미리 눈물 끝
부끄럽게 전해주다.

생각 할때마다
해가 산 넘어가기 이전 때에
벌써 시간이 멀 지난 때에
기둥 (槿東) 의 한쪽에 놓인
이것은 분 (槿) 이 아니다.
다 미리가 꿈 봄빛의 한쪽이
다만 눈자국을 치켜드다
자리진 틈틈 속 주전
대구 없이
부끄럽 하기 그윽한
이 산길을 찬물마셔
한마음의
혈관 뛰어다닌다.

시간의 혈관 부끄러 서로 부딪치
안보
꿈물을 뚫겨 나가는 이 땅
부서지며 말을 뿜어낸 시간의
연꽃대에 묻혀
지상으로 걸어하다
때문에 말을 꺼주
표정은 말로도 다 미안의
부끄러
있으면서 없는 봄빛의
기둥 (槿東) 의 한쪽에 부끄
한 줄 가닥지 봄이 아
산길 속에 간다.
산길에 오늘 그 그리움 이 다.

대학영화의 실천적방향 모색

문화시론

「대학영화」는 상업 영화의 조작적·압제적 특성을 극복, 새로운언어를 개발하한다

송 능 한 <서울영화집단 회원>

80년대 이후 대학내에 문화운동의 개념으로서 영화의 매체적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어가고 있고 아직 미약하기는 하나 실천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영화가 우리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표현양식임을 비추어 볼때 매우 의미있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몇몇 영화모임들이 전혀 운동적 성격을 띠고있지 않거나, 초기의 운동적성격을 잃고 기존상업영화의 시스템에 흡수되거나 영화를 예호하는 일레탕뜨틀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현상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들이 한국영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실천적 대안없는 비판과 그 비판의 준거틀을 우리 현실에서 찾기보다는 외국영화나 영화이론에서 찾으려한 점, 따라서 이 양자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구체적인 작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등을 공통점으로 갖고있다. 현단계에서 이 「구체적인 작업」이란 다름아닌 진정한 의미의 대학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를 통해 자기의 영역을 크게 확산시키는 일이다.

「대학영화」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공동체의 집합적 산물로서 동시대의 사회적·역사적 현실과 끊임없이 접맥하면서, 일체의 비민주적이고 부정적인 요인들을 타파하고 극복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질적인 전환을 지향하는 일체의 진정한 가치를 그 내용물로 하고 있는 영화로 규정할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천적 대안이 된다.

결국제작집단은 「대학영화」의능동체이고구체적인담당자로서의 역할을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즉, 집단제작방식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문제, 자율적인 유통구조의 확보를통해 대학영화를 확산시키는 문제, 기존상업영화들의 공통적 특성인 조작적이고 압제적인 영상언어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수있는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는 문제등인데, 이는 대학내의 다양한 제작집단들이 공동의 과제로 삼고 협동 과정을통해 해결해 나가야할것이다.

「대학영화」가 그 방법론의 하나로 추구해 나가야할 「집단제작방식」은 연극등 인접매체와 많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이 필요할 것이다). 좀은 의미에서 「집단제작」「공동제작」이란 표현으로 대체할 수있는 이 방식은 제작집단구성원간의 작품의 전체적 방향,주제, 구성등에 대한 합의와, 기술적 과정에서의 분담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를위해 구성원간의 경험분석능력등의 다양한 차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구성원간의 이념적 공유와 매체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이해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다 넓은의미에서 보면, 제작집단과 작품대상의 사람들이 전반적인 제작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거나, 제작집단의 기술적 도움아래 작품을 주도해 나가는 방법인데 제 3세계권의 진보적 제작집단에의해 주문히 시도되고 있고, 흔히 「현장영화」에서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되고 있다.

문화가 자본에 의해 지배되어서도 안되고 개인독재에의해 이루어져서도 안된다는 기본사상을 토대로 하고있는 이 방법은생산자 (영화인), 자본가 (제작자), 소비자 (관객) 라는 세요소의 통합이라는 진보적인속성이 가질수있는 우리현실속에서의 실질적 의미와 대학내에서 이작업방식을 이상적으로실현할수 있는 방법은 제작 집단이 실천을 통해 체계화 해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대학내에 제작집단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관객과의 만남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영화」가 단순한 실천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만약 1회적이거나, 극소수의 관객을 대상으로한 산발적인 상영에 그친다면 작품은 무의미하게 되며, 소수 엘리트의 유희적 산물로 타락한다는 당연한 사실과 함께, 제작집단이 지속적으로 작업해 나갈수 있는 여러조건들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작품과 관객과의형태를 새롭게 만드는것도 중요하다. 즉 작품을 보여주고, 관객과 수평적인 위치에서 작품의 전반에 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관객을 능동적 위치로 끌어올리고, 작품에 참여시켜야한다. 한편 관객의 의견은 제작집단에의해 수렴되어 다음 작품과 활동에 반영됨으로써 앞에말한 「집단제작방식」과 연결된다.

다시말해 대학영화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것인가? 즉 한작품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자기주제를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작집단에게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대학영화」가 부정하는것은 기존상업영화의 조작적, 압제적 언어이지 그언어자체를 부정하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언어들을 대체할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끊임없이 개발하는것이 중요하다. 영화의 실천적인 기능에 치중함으로써 이언어의 문제에 소홀하게되면, 작품은 결국 관객으로부터 유리되고, 그 기능자체가 무기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함께 기존상업영화들의 언어체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사회는 문화를 산출하고 문화는 그 자체의 총체적인 구조를 통하여 그 사회를 드러낸다. 문화가 부정적인 구조를가지고 있을때, 우리는 곧 그것을 산출한 사회의 부정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역토한 마찬가지이다.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문화를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산출한 사회를 실천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에 다름아니며운동의 차원에서 볼때 이 두 운직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대학영화」와 그것이 갖는 운동적 성격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대학영화」의 주체적 담당자로서제작집단이 수행해야할 실천적작업의 중요성과 당위성도 이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것이다.

우리말의 쓰임새

㉦스산하다

<실제적 분위기를 작품의 재료에서 확연히 볼 수 있었기에 마음이 더욱 스산스러웠다> (이상룡(R·3)의 「미네르바에 뜨는 별」) 에서 「스산스러웠다」는 스산스러웠다를 그렇게 쓴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스산스러웠다」는 「신산하다」의 방언이니 ①맛이 맵고 심 ②세상살이의 쓰라림고 고된 일을 가리키는신산(辛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방언이라 해도 굳어져있고 분위기가 신산과는 다르므로 그냥 쓰는게 어떨지. 그리고 사전에 없는 「스산스러웠다」또한 방언으로 쓰면 좋을것같다.

문화단신

한씨 연대기

—국단 연우무대

「나의 살던 고향은」으로 지난 84년 8월부터 85년 2월까지의 공연정지처분에서. 해금된이후 연우무대의 첫공연. 월남한 의사의 삶을 통해 분단과 6·25의 비극을 재조명한 황석영의 중편소설을 김석만연출로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오후 4시30분, 7시30분.

수 업

—국단 시민극장

무의미할 수 밖에 없는 언어의 홍수속에서 단절된 대화, 소외된 현대인간 의식을 표현하려는 E·이오네스코의 「수업」을 오종자 역, 채승훈 연출로 시민소극장에서 4월12일부터 29일까지 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오후 4시30분, 7시30분.

메디아

—국단 민예극장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러스와 함께 그리이스 3대 비극작가인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를 여석기역 심재찬연출로 민예소극장에서 4월12일부터 28일까지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평일 7시, 토·일요일은 4시, 7시 두차례 공연한다.

신간소개

타이어과교실 퍼냄. 값 10,000원>

본교 태국어과교수의 저서로 태국어과창설 20주년을맞아 태국어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선보이는 서적으로서 태국어의전반적인 문법체계를 집대성한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태국어할자를 태국현지에서 전사하여선명하게 읽을수있는 장점을 가졌다.

<타이어과교실 퍼냄. 값 10,000원>

한국사회연구

—3집

「해방40년과 분단40년의 민족사회와 사상」을 특별기획으로 분단·민족사회·학생운동 (송건호) ,민족분단40년과 기독교 (김홍복) 등의 글을 실은「분단시대 지식인」의 논리」 장을병교수의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전개등을 실은 「정치사회의 구조와 성격」 박현채교수의 분단40년과 한국자본주의와 농업을 실은 「민족경제현실과 노동·농민운동」을 다뤘다.

<한길사 퍼냄. 값 4,000원>

들어라 양키들아

—C.라이트 밀즈지음

1960년 콜롬비아대학 C.라이트 밀즈교수의 루바방문기를 기록 정리한것으로 카스트로수상과의 인터뷰,그밖의 각료,농민들과의 대화및 직접 보고 느낀 관찰기록들이 실렸다.

<도서출판 녹두퍼냄. 값2500원>

외국문학

—볼 호

권투논단으로 한완상교수의 「이데올로기와 해석학적 회의」를 비롯, 일한순교수의 베르톨트 브레히트와 이데올로기 비판, 이성원교수의 인문과학과 문학적 인식등을 담은 특집「문학/지식/이데올로기」를 실었으며 고전문학의 재조명, 외국문학연구의 현단계등이 담겨있다.

<전예원퍼냄 값3,800원>

안경은시력검사에따라 광신안경 ▲고도근시 ▲백내장용 신안과 (광교중간) 1층 (☎ 1-1 별관) (734)0370

大學英語
教養, 留學, 就職, 大學院試驗準備
開講 ⇨ 5月1日
(선착순등록마감)
李在玉TOEFL
아키데미TOEFL
大學生TOEFL
時事TOEFL
Vocabulary22,000 (12,000)
TOEFL LC, AFKN
英文解釋 ①②③, 英作文
Word power, 美人會話 TIME
基礎英語會話 성문綜合英語,
三位一體 大學院受驗英語
민병철生活英語, 美國生活英語
英語實力基礎, 綜合英文解釋
美國語Hearing GRE, GMAT
文法및讀解성인基礎會話
受驗日語 (各種試驗對備)
初級日語 中級日語 東京日本語
高級日語, 基礎日語會話
ダイジスト, 日語高級會話
獨語文法完成 프랑스 語
서반아語, 中國語
院長: 文昌淳
종로2가 종로서적뒤편 734-2442·732-9226
時事英語學院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많은 대학인과 '자성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날수 있게 된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1. 영어회화 S.L.E (각반12명 · 전원미국인강사) 미국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ACTIVE 회화·TOEFL L.C·AFKN 청취반
2. 영어독해 문법 형작·(유학) TOEFL·종합영어 영어작도, VOC.22000·영어실력기초·대학기본영어·푸렉영어·DGR독해·영어문해·TIME
3. 일본어·파고다불어·독일어·중국어·한국어·프랑스어·일본인·독일인·중국인 회화·NHK청취(전원 학사석사출신화국인·강사비자소지)
4. 특수훈련원 최신어학교수법·외국식학습분위기 국내 최신시설·수료증취득·전철통학권발급
문의전화·274-4000 274-8821-2
현재 다음달 예약접수중
종로2가파고다공원건너편흰빌딩
I CAN DO 파고다외국어학원

미국 이디엄의 유래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풀이한 책!
Arthur P. Song, Sr. 저
800 American Idioms
精選 美語 이디엄800
●미국 고등학교에서 35년간 영어를 가르친 한국인 2세가 한국인을 위해 저술!
●미국의 생활관용어구 800개를 엄선하여 한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재미있게 풀이한 이디엄集의 결정판!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국판/312면/ 값 5,000원
문의 (269)6623 (261)5258
(주)시사영어사

TOEFL·취직·대학원 시험 대비!
大学 VOCABULARY
GAINING WORD POWER
Dorothy Rubin著 이용재(고려대 교수) 이가동(연세대 교수)註訳
미국 Macmillan사가 내놓은 최신판!
■「大学 Vocabulary」는 미국대학에서 10년동안 영어어휘력을 강의해 온 Dorothy Rubin교수가 미국에 유학오는 외국학생들이 꼭 마스터해야 할 대학 Vocabulary의 범위를 제정하고, 그 목표를 이렇게 달성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신간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제대로 마스터하면 TOEFL과 TOEIC에 무난히 패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대학에서의 학구생활에도 별 불편이 없읍니다. 또한, 이 책은 국내의 대학원 진학 지망생이나 취직시험 응시자에게도 자신을 갖게 해줍니다.
■「大学 Vocabulary」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매 Chapter끝마다 어느정도 어휘력이 향상되었는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평균 70항의 테스트 문제가 실려있고, 이것을 스스로 채점하여 그 성적을 예상 TOEFL스코어로 환산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大学 Vocabulary」는 한 Chapter의 공부가 끝나면 Crossword Puzzle, Word Scramble, Word Square 등 어휘력 퀴즈를 통해서 이미 배운 것을 재확인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大学 Vocabulary」는 미국 5대 출판사의 하나인 Macmillan사가 최근에 발행한 새책이며, 고려대 이용재교수와 연세대 이가동교수가 주해를 달아주셨읍니다.
이 교재는 미국 Macmillan사의의 판권계약에 의해 시사영어사가 독점 발행합니다.
전국 서점에서 발매중!
4·6배판/352면/값 5,000원
(주)시사영어사
(269)6623 (261)5258

소위원회에 회칙제정 일임

쟁점조항만 전체심의위서 다루기로
중간고사 전에 시안 윤곽 드러날 듯

그 간 별다른 진전이 없던 총학생회회 제정작업은 『회칙심의위원회』가 조속한 회칙제정을 위해 시안제출작업을 『회칙 소위원회』에 일임함으로써 급쿠내로 일단의 윤곽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회칙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월) 오후 5시, 2차 회칙심의회를 열고 문교부의 5개 원칙과 기타 쟁점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누고 대강의 원칙론에 서로 합의하였다.

이날 약 2시간30분 가량의 회의를 통해 양측은 첫째 학생회장 임후보자의 자격을 『다음 학기에 제적되지 않을 학생의 학생』으로 할것, 둘째 예산의 집행문제는 『학생회비 징수를 학교가하고 관리도 학교가 하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예산계획서에 의해 지출해줄것』, 셋째 학생의 정치참여문제는 『정당이나 기타 특정 정치집단의 가입은 규제할것』, 넷째 지도위원회의 권한은 『존속시키되 운영의 묘를 살려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할것』, 학생대표의 교수회의 참여는 『징계위원회에만당사자가 나와 변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다섯가지의 조항의 원칙론에 합의하였다.

이날 약 2시간30분 가량의 회의를 통해 양측은 첫째 학생회장 임후보자의 자격을 『다음 학기에 제적되지 않을 학생의 학생』으로 할것, 둘째 예산의 집행문제는 『학생회비 징수를

□역사기행—수유리 4·19 묘지를 찾아서

새로이시작하는4월

김 남 일 <동문·소설가>

후배들의 느닷없는 청탁을 받고도 그러 쭈저하지 않고 그러마고 응했던 것은,이제 실수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비위를 상하게 하는 휘발유 냄새를 겨우 참아가며 거의 의무적으로 수유리행 시내버스에 올라탔을 때,어떤 강박관념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느낌을 갖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언이폐지하여 그것은 4·19에 대하여 필자로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고 그 생각은, 버스가 북악터널을 지나고 정릉을 거쳐 어느덧 종점을 눈앞에 바라봤을 때,급기야 지독한 무기력과 자기혐오로까지 쉽게 연결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4·19의 무게에 비길 때, 필자의 일상이, 그리고 거기에 바탕한 필자의 관념이 너무도 가벼운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물든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

피곤 때문인 것이 있었다.

「아·····슬퍼요」로 시작되는 강명희양의 시 「나는 알아요」였다.

아·····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며는
달음박질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빵빵빵빵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놀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와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독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당시 수송국민학교 4학년인가에 다니고 있던 강명희 양에 대하여,필자로서는 아무것도아는 바가 없었다. 월간지를 무려 20만 부 씩이나 팔리게끔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한 한간의 저 찬란한 폭로·추적·발굴·잡업의 기사들이 한번씩은 건드려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었지만, 글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닐 터이다. 한 편의 시가,그것도 국민학교 학생이 몽당연필로 힘밭타 쓴 시가 25년을 두고 회자(膾炙)된다는사실 그 자체만이 중요하다.게다가 우리는 전율하지 않는가.그렇다.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 피에 물든 책가방,그 책가방을 품에 안고 쓰러지는 오빠와 언니들.그들에서 4월은 끝없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는 그 무엇이 된다.

역사에 대해 지식인이 갖는 필연적인 도덕적 책무는 일차적으로는 고통의 시작이다. 아도르노의 경우, 그 고통은 아우슈비츠 이후에 어쩌 한 편의 서정시인들을 쓸 수 있겠느냐는 고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은 중요하다.그러나 나무의 아름다움에 대한 언급이 다른 많은 가공할 만한 일들에 대한 침묵을 합축한다면, 그것은 이미 범죄이다. 브레히트가 진단한 우리 시대의 비극은 제3세계의 고통스러운 역사에 더욱 분명히 스며든 낙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하여 우리에게 4월은 피할수 없는 빚으로 다가오며,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 빚을 갚아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4.19묘지의 정문을 들어서자 뜨겁게 외치는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듯하다.

상아의 전리품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짚풀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지고는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악의 현상을 규탄 광정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명명이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체주의의 표독한 전횡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도 민중앞에 군림하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같이 어설픈 것임을 교시한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적색전제에의 파갈한 투쟁의 구획을 장(掌)하고 있는데 크나큰 자부를 느끼는 것과 꼭같은 논리의 연역에서 민주주의를 위장한 백색 전제에의 항의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중략····

보라!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깜깜한 밤의 침묵에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수하에 미쳐 못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서울대 학생회「4·19 제1선언문」에서>

그날「깜깜한 밤의 침묵에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들은 바로 거기에 잠들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산 9의 1번지.

총 면적 35,167㎡로서 1963년9월20일에 건립된 4·19묘지는 중앙에 폭 71m 높이 21m의 기념탑이 서 있고, 후면에 높이 6~8m의 만장(滿章) 20개,그리고 그 둘레에 모두 208위 영령들의 분묘가 가지런히 자리하고 있다. 중앙탑 좌우로 화신영상을 새긴 석부조각들이 밭길을 멈추게 하는데,필자가 그곳에 다가설 즈음, 때마침 찾아온 몇명의 대학생들이 간략한 기례를 끝내고 노래를 불렀다.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핏물마다
그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가슴이 뭉클해왔다.
정말이지 눈이 부신 광경이었다. 아아, 저들에게 4·19는 무엇일까. 새삼 두 손을 모두고 서서 나즈막히,그러나 가슴 저 깊숙한 곳에서 끓어올린 정열로써 노래를 부르게 하는, 아아, 4·19는 진정 무엇인가.

그것은 일차적으로 백색 전제·사회적 필곡에 대한 뜨거운 항의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4·19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데 합의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4·19는 시민사회주축을 위한 시민적 자유를 쟁취하여 반봉건의 기치를 내세운 새기 전환기의 등학, 의병운동, 3·1운동등의 민중사적 맥락을 거듭 확인하였다.

둘째로, 4·19 이후의 모든 사회운동에 정신적인 활력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사회모순의 해결에 하나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 역사상 초유의 지배·통치기구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전면적인 승리였다.

그밖에도 자주적 시민사회 건설이라는 이념으로써 외세를 등에 업은 허약한 통치기구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4.19의 한계를 찾아내는데 소심해서는 안될 터이다.

상황적으로 서구사회의 구조를이나 사회의 도입이 바로 누적된 봉건모순의 해결인 듯 이해되었으며, 게다가 사회적경직성이 모순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또한 4·19가 백색전제에의 강력한 항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대안 또시 처단하며.

1.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1. 경찰의 학원출입을 엄금하라.

1.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치 말라.

등으로 주로 정치현상적인문제와 주도계층으로서의 특수한 학원문제가 초점이 되고있다.

그런데 무릇 운동의 진정한 주체로서의 민중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포섭과 파악이 부족했다. 민중구성의 큰부분인 농대의 농민, 노동자, 그리고 도시빈민의 역할 파악이 부족함은 물론, 그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화시킬 계기의 확산에 실패했다. 생활상의 요구에 기반하지 않은 정의감만으로는 실사 외형적인 독재정권의 타도에 성공했을지라도, 이후의 보다 총체적인 상황 전개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상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이 결여된채, 도덕적인 정의감만을 앞세운것은,결국 일차적 목표가 성취되자 집시회복만을 염두에 두는 소극적 운동논리로 귀착되었다.

이밖에도 조직적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돌발적 사태에의 대중조직의 형태로서는 주어진 기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상적 한계로서, 4·19가표방한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가 된다.그것은 곧 서구식,특히 미국식 민주주의의 구현에 다름아니었는데, 과연 그것이 당대 우리나라의 현실조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이념형이었을까는 의문이다.

「자유」 또는 「근대화」라는 관념의 어구는 기층 민중의 일상적 생활상의 요구와 구체적으로 접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추상적이고 국지적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결국 주도세력으로서의 학생들의 불철저한 운동인식과 계층적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으리라.

이름에서 지식인의 단순한 도덕적 정열은 오히려 역사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백낙청 교수는,

집권의 특심이 없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인간적인 미덕일지는 몰라도 혁명세력으로서는 사후대책이 없다는 뜻이 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있었다는 것이야말로 운동의 영속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다.(「4·19의 역사적의의와 현재성」,「창작과 비평」1980년 여름 폐간호)

라고 지적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필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속에 그들의 피묻은 혼의 하소연이 들릴것이요 해마다 4월이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 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되살아 피어나리라.

<4월 학생혁명기념탑비문>

이 창 영

<동양중국어과4년>

삿갓 선생이 서울에 모습을 나타내기는 참으로 오랫만이었다. 그의 훌연한 재등장은 금새 장안의 대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글 잘하기로 십지어 집지하보다 더 이름 높은 그의 일필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충분한 화제감이었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10년넘게 북한을 방랑하느라 종체 광을 내기가 어렵게여겨지던 사람이었기에 서울 사람들의 유별난 호기심을 발동시켰던 것이다. 선생이야 워낙「은자」에는 없어도 갈데는많은 사람」인지라 처음엔 그저 다투어 관을치는 선전시대에다 헤어진 누더기는 푸였이며 죽(竹)삿갓은 헐밥인가.

또 복장을 그리 하였으면 제격을 갖춰 짚새기를 신어야 하련만 무슨 공공이 속인지 신발만은 「○식스」였으니 「갓쓰고 자전거를 타도 유분수」지 그 돌골이 해괴함수 밖에 없었다. 그 양반 말 잘보 (騎步)를 즐기는 「스포츠 맨」이기때문이라고 박박우기고 나섰으로서 엄숙한 산풍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그의 평판은 엄숙한 분위기를 깨기 이전에 이미한 건 올리고 있었다. 그날 따라 「보호할 주민도 많고, 장내 정리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잠조(雜鳥) 들이 일대 구석구석, 요소 요소에 꽉 깔린다는 사실중은 4·19날 수유리를 가본 사람이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갈길을 막는 자와 가려는 자의 부딪침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그 평판의 화근은 요령부득인 잡조들의 을통성 없는 경비 자세에 있었다. 물론 「이상한 사람」으로 밖에 보여질 수 없는 삿갓 선생의 차림새도 평판의 주요 구성 요소였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기왕에 출동할 때 「이상한 기미가 엿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연행·구금하라」는 잘 알려진 비밀 명령을 하달받은 「안드로메다 군단」의 전사(戰士) 들이 눈알을 부라리며 「그 이상한 사람」을 찾고 있던 차에 삿갓선생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비록 옷 매무새는 허술했지만 범상한 인물은 아님을 알아챈 전사들이 정중히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필차는 거절치만 그 자체부터 대폭같은 선생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다.

그때 그만 성깔대로 조국 산천을 유랑하며 김도사, 이선생 등에게서 틀틀히 전수받은 발솜씨, 주먹 솜씨로 상대를 차례 차례 너 다운을 시켜버렸다는 것. 그때도 양심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을 수상시 여기는 것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했지만, 보다는 민족의 성심(聖日)로 삼고 거국적, 거족적 행사를 치루어도 모자랄 그 날을 욕먹히주는 그 심보를 응징하기 위해서였다는것이 삿갓 선생이 설명한 이유였다.선생이 말한 안했지만,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조국과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살신성인은 못할망정, 전로방해를 일삼는 무리들의 하수인이 되어 권한 사람 겉문이나 하고 다니는 불쌍한 꼬락서니를 각성시켜주기 위함도 결코 작은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긴, 호헤시대의 사람에게주민등록증을 요구한것부터 싸움의여지는 충분했다 할것이다. 전통과 현실의 조화가 소리 높이 외쳐지는 이 시대에「현대화 전통의 엄청난부조화」는 수유리에서도 이렇게 사건을일어내고말았다.

하지만 앞서의 투사건은그야말로 소화(笑話)에 불과한데초심일 뿐이었다. 그날 선생의 평판의 백미는역시 제3한이었다.제3한은앞서의 경우와는 여러가지점에서 달랐다. 우선 순전한 삿갓선생 개인의지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감정의 폭발은 더욱 아니었다. 그의 냉철한머리에서 흘러나온 철학한이성의결과였다.

사건의 개요인즉, 비록 삿갓선생이 앞서의 푸 우연한 사건에 일노(一怒)하고 일소(一笑)하였지만 감정에사로잡힌 4.19의 바른 의미를 그릇 해석할수는 없는 노릇.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분향대 앞에서 숙연 숙연히 엔 것까지는 순조로왔는데 사건은 그「다음에 발단되었다. 난데없는 흐르라기 소리에 이어 일군(一群)의 검은색 승용차 대열이 막 묘지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윽고 차의 문이 열리고 내리는 인간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익히 TV등을 통해 낯이 익은 사람들이다. 일만 열면 조국과 민족에 충성과 사랑을 독점하던 이들이었다. 일굴마다에 개기름이 번지르하고, 무슨 공부를 하시느라 그렇게 눈은 나빠졌는지 하나같이 금테안경을 끼고 있었다.

4·19의 함의미를 진정으로 체득겨 불량이면 혼자 조용히 찾아올 일이지 그 무슨 수행원들은 또 그렇게 많은지. 그러고보니 뛰어는조(弔) 4·19 영령 아무개」라는묘비글귀가 선명한 팔지막한 화환이 뛰따르고 있었다.

「흠거니?」 삿갓 선생이 분향을 하다말고 혼잣말로 중얼대더니 갑자기 이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쥐어잡고 호통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네놈들이 바로 「피 물든 혼의 하소연」을 발로 밟고 서서 온갖 영화를 다 차지한 바로 그놈들이구나!』 장내는 순식간에 삿갓선생의 말 솜씨와 주먹 솜씨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네놈들의 그 더러운 입으로 민주가 어쩌고, 자유가 어쩌다 지껄여 마지막으로 외치다 끝을 맺지못한 한마디.

『4·19는 영원하다·····』 그러면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 내갱겨쳤는데 그게 하필 언론 왕국의 TV카메라를 정통으로 맞춘것은 무슨 하늘의 조화랄.

바로 그날 밤, 9시 연속극에서 주인공의 얼굴을 보지 않는 행운을 국민에게 선사한 것은 모두 다 삿갓 선생의 공이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서 삿갓 선생이 영원히 이아지지 못한다면 더 아깝고 아이까를 들어나갈 수 없게된다. 그래서는 아니된다. 이때 넘어 한 사람을 받쳐든 처녀. 그것도 민주 처녀가 나타나이만 한다. 한데 그여할을 한 사람은 처녀가 아니라 처녀 또 한번 등장 최대의 영광(?)을 안겨준 국회의사당이었다.

『이니 이곳이 어디인가?』 시치미로 떼고묻는 선생의물음에 겁씨 할 『여기가 바로 제가 묻달고 있는 곳입니다 선생께서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했던 4.19의 주역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오후 2시부터 때로는 장황하게, 때로는 간단하게 그러나 소리는 되도록 낮추어 국사(國事) 틀토론하고 있읍니다.』 『4.19 주역들이란 사람들이 그렇게틀할 일이 없는 모양이지. 날틀이일하는 시간까지 꽤 자다가 오후 만치 굳전에 모여 애들이나 보고 있게』 김씨의 안면이 일순 굳어진다. 명랑아 일굴도 달아올랐다. 이어 삿갓 선생의 일장 훈계가 시작 되었다.

『난 다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4·19를 어떻게 팔아 어디에다 이용했는지. 말끝마다 4·19를 붙여 개인의 영화를 복돋우고 치부를 하는데 디딤돌로 밟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일세. 자네가 「조카마저 팔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네만 그래고도 남을 사람이 수없이 많아. 꽃다운 나이에 선혈을 뿌리며 이 나라 민주 재단에 몸을 바친 영령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 남아서 영화를 누린다는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도 않나. 다 좋네.

4·19를 팔을만큼 죽음의 순간까지 은힘을 자네들은 다했는지도 모르나까. 한데 이것만은 알아두게. 어디 4·19가자네들만의 것인가? 온국민의 보배로운 역사적 재산일세.

어느 일개인의 출세나 영화를 위해서 봉사하기에는 4·19의 가치가 너무 위대해. 만일 4·19가 자네들만의 것이라면 주여이라 지처하는 자네들의 욕심과 더불어 4·19는 죽어버렸겨야. 하지만 지금도 온국민의 피속에 그 위대한 정신은 잠재되어 언제든지 꿈틀거릴태세를 갖추고 있어. 자네가 날여기 데려온건 크나큰 실수네. 더 이상 아무얘기도 듣고 싶지않아. 나가겠네.』

화창한 봄날에 모처럼 서울나들이를 나섰다가 욕만보고 실망만 확인한 삿갓 선생은 애의 욕곡도 없는 질즐길기를 계속했다. 어느 한 꾀이지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역사라나 없는 그의 마음은 수울의 깊이만 더해갔다.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 글방에서 심성을 바로 잡아주고 기술은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지내온 수백년 동안의 방랑이 어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기는 드문일이었다.

『이니 이곳이 어디인가?』 시치미로 떼고묻는 선생의물음에 겁씨 할 『여기가 바로 제가 묻달고 있는 곳입니다 선생께서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했던 4.19의 주역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오후 2시부터 때로는 장황하게, 때로는 간단하게 그러나 소리는 되도록 낮추어 국사(國事) 틀토론하고 있읍니다.』 『4.19 주

삿갓 선생의 분노(憤怒)

◇가상테마 시론—김삿갓 방랑기

삿갓선생의 심경변화, 4.19묘지에서의 「깽판」으로 나타나

심심풀이로 왔겠거니 짐작하던 사람들도, 그의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더구나 그가 서울에 도착한 후 첫 방문지가 수유리 4.19묘지였다는 사실은 그의 방문 의도를 훨씬 궁금해 하던 사람들에게 한가닥 짐작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때나마 백밀기 어려운 정보에 근거한 복한 실정을 삽헌히 방방곡곡에 떠돌아대는 별로 떳떳하지 못한 나팔수 노릇으로 탁락하여 우리를 실망시킨 삿갓 선생의 심경에 필경 어떤 변화가 일어난게 틀림없다고 지레 믿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순전히 사기(詐欺)말만은 아니라는 첫 증거는 그가 4.19묘지에서 보여준 이유있는 「깽판」이었다. 구름떼처럼 몰려든 사람들 모두가 「해마다 4월이 오면 접동새 울음속에 그들의 피맺힌 하소연이 들릴 것이요, 해마다 4월이 오면 봄을 선구하는 진달래처럼 민족의꽃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되살아 피어나리라」는 비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집짓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던 차에 나타난 그는 차림새부터가 시대에 동떨어져 전혀 엄숙하지가 못했다. 「피에르까르댕」,「이브생로랑」등 세계의 유명상표가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은 4.19가 타도하려던 세력이거나 적·간접으로 점선이 되어 있던 사람들로서 4.19의 영광을 최소한도로 막아보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보수반동의 입장으로서 결국 구세력의 연명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하나 그런 부류로서 4.19가 혁명이기에는 조건에서 부족한점이나부족합니는입장이있습니다.

유모가 작고 머구나 학생층이 주동이며 정권을 담당한 사회층의 변화같은 것을 찾아보는 이러한 점을 들곤하죠. 그러나 혁명에 결과와 성공여부가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파괴된 혁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읍니다. 4.19를 이념이라는 면에서 살펴볼때 독재의 타도,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라는 구호 밑바닥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열렬한 정열이 깔라고 있었습니다. 4.19는 민주주의를 우리의 피와 살로 만들려는 최초의 자주적인 노력이자 양보할수없는 혁명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4.19가 혁명이되 파괴된 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삿갓 선생, 민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노라니 시 한수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김삿갓의 서울유람 실망만 안고가네
가거라 갈매기야 알맹이만 남아다오.

『4.19는 영원하다·····』면서 돌멩이하나를 집어든 삿갓선생

종속이론을 통해본 4·19의 사회경제적 구조

김 영 우
<정치평론가>

머릿말

올해로서 4.19혁명 25년을맞이한다. 외세에 의존하여 독재를 획책하는 집권세력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민족사의 전기(転機)를이룩한 4.19혁명이 일어난후 4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여러차례 격동을 치르었다. 5.16 군사쿠데타, 유신체제, 10.26, 12.12, 80년 광주사태, 5.17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4.19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사회에 살고 있다. 즉 민족분단의 상황하에서, 민중들의 생존권이 피폐해져가고 있으며 민주제도마저 거의 마멸되어가고있다.

다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불행하이나 냉전체제의 변화속에서 남북간의 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세력이 점차 활성화·조직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4.19혁명의 의미를,특히 60년 여름부터 사회전반에걸쳐 솟아나기 시작했던 민족통일운동을 오늘의 싯점에서 되새겨 보는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Ⅰ.4·19 혁명의 세계사적 의미

최근들어 4·19혁명은 여러가지 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일마전까지만해도 4·19혁명에 대해 이승만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거사(擧事) 적 성격에 주로 촛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4·19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시민혁명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이 틀어섰후기에 접어들면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민족통일논의와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점, 그리고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이 필쳐진 점들을 미루어볼 때 4·19를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으로만 규정하기만 어렵지 않을까. 그러하여 최근 들어서는 「통일민족국가수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민족사의 방향을 바로 잡음으로써 제3세계의 민족해방, 민중해방이라는 인류역사의 새로운 대의에 참여하려는 민중의 의지를 드러냈」것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조망이 시작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4·19혁명은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중이 외세에 의존해 있는 이승만정권의 독재통치와 부정부패를 거부하고 이어서 민족분단을 넘어서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똑똑히 보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전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시발된 4·19혁명이 후기에 접어들어 민족통일운동으로 발전해간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정치적특성 그리고 4·19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1. 한국사회의정치적성과 주요모순

한국사회의 정치적성격을 살펴보는데는 한국사회의 세계체내의위상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와 국가의 성격그리고 한국민족주의의 특수성을 고려할필요가있다.

먼저 전후 세계체제내에서한국이 차지하고있던 위상을살펴보면,한국사회는 일제의식민통치를 겪은데다가 해방후에도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다는점에서 기본적으로 제3세계에 속한다고 말할수있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제3세계 일반과다른점은 단순히 경제적환원위함 식민민족 해방전쟁이아니라 미국 군사전략의 전진기지도 설정되었고 그에따라민족과 국토가분단되었다는점이다.

즉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한국이 떠맡은 역할은 세계경제내에서의 분업보다는 세계정치안에서의 군사적분업의 성격이 더했다. 다시말해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주도국으로서 소련 중공 북한등 동북아시아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항하고 있던 미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안전을 위하여 미국의 군사적 보루인 한국에 상당량의 군사·경제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이것이, 분단상황하에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능력이 결여된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에 휩쓸려는 정치적 지렛대로 기능하였다는 점이다.

두번째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와 국가의 성격을 살펴보자. 해방이후 50년대 중반까지는 민족자본가나 민중부문 그 어느쪽도 지배권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다시 말해서 일제식민통치의 유제에다가 해방후 미국이라는 중심부에 의한 제약때문에 대외적으로 구조적 자립성이 취약했으며, 대내적으로는 민족자본가의 형성이 미약했기 때문에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안에서 기층민중부분의 경제적,정치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제도적 장치와 물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하여 국가는 취약한 기반 위에서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통치 이데올로기와 강력한 통치기능을 필요한 형편 에 처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자율성이 약한 국가였고, 대내적으로는 단순히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였던기보다는 국가 자체의 존속을 위해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지배부문을 육성하면서 민중부문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제약하는 지배부문 내지 주도부문이었다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족주의성격을 살펴보자. 한국사회는 근대사이래 줄곧 일제식민통치및 전후분단상황하에서 민족의 존립 그 자체가 부정되거나 위기에 처해왔기 때문에 민족적 이념 내지는 정체(identity)가 계급적 모순을 내포한채—전면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한 시대에 있어서 민족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 이상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그것이 기본적 모순을 추상한 채 주요모순으로 제기되어 온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국가의 건립이나 정권의 성립에 계급간의 힘의 관계보다는 대외관계가 보다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종속적 경제구조하에서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마저 주요모순의 해결없이는 실현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전후 미국 군사전략의 전진기지로 설정되어, 민족분단·민족상쟁인 관계는 민족적 위기에 처해있는데다가 민족자주적인 국가나 정권의 성립이 어려웠기때문에 민중의 생활상의 자기이해와 민주제도의 실현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그리고 그 차단의 가시적인 구체적 실체가 이승만의 독재통치와 부정부패였다.

2. 50년 한국사회의 기본모순과 한·미·일 관계

앞에서 한국사회의 주요모순을 살펴보았는데 그점을 염두에 두고 4·19혁명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을 살펴보자.

먼저 해방이후부터 4·19까지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반(半)봉건 신식민지사회구성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식민통치하 신민지경제구조의 유제위에서 해방이 곧 업종분단으로 희생되어 공장시설, 지장및 자연자원, 기술인력이 분할되어 한국경제의 자립기반이 거의 파탄되어 버린데다가 6·25전쟁으로 임해 한국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전후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거의 대부분 동화종반과 대외원조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진행되어 생산부문보다는 부기적상거래에 더많은 자금이 쏟붙되어 비생산적성격의 상업활동은 극 확대되는데 반하여 산업자본주의가 성장할 싹이 차단되어갔다. 게다가 원조물자나,자금을 국가주도하에 배분했음으로 이른바 삼백산업 (방직, 제당, 제분) 이라는 소비재산업중심의 자본주의가형성되었다. 이상과 같은 요인때문에 민족자본의 축적가능성이 줄어들고 자립기반이 취약할 상태였다. 1957년경을 고비로 미국의 원조가 감소되기 시작하자 국내경기가 하락되어 경제적인 제약을 받던 기층부문의 생활상의 고난이 가중되고 만성적 실업구조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기본모순은 4·19를 전후한 한국사회의 역사적 변혁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런 조건은 앞에서 살펴본 한국사회의 주요모순에 크게 기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4·19직전의 한국사회는 주요모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단상황하에서 형성된 독점자본의 기본모순이 누적되어 광범위한 피해계층이 형성되어있었으며 이들이 자기이해와 불만을 표출할 제도적 장치와 조직이 마련되지 못했다.

참고로 말시의 사회계급구성을 살펴보면 지·소자 중심의 농민이 전체의 5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26.6%인데 노동자중에서 생산직 노동자층은 10.5%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전문 기술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판매직종사자, 써비스직종사자, 실업자등 비조직부문이다. 그리고 10.5%의 조직부문중에서 농림, 어업종사자 3.5%를 제외한 나머지 7.0%만이 제조업종사자이다.

그리고 이중에서 종업원 5인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구는 23만5천명 정도로 앞서 말한 7.0%, 제조업노동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있고 914개의 노동조합이 형식상으로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대한노총 산하의 어용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를 자신의 조직이 아니었다. 이처럼 한국사회 계급중에서 민중의 대부분은 직종에 따라 여러부분으로 나누어지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하여 당시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조직화·집단화될 수 있었던 학생세력이 한국사회의 주요·기본모순을 인식함에서 이승만정권의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민족사의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이 학생당시의 면장을 불깜아 불태워 죽이는 극한적인 원한들이가 나타나기도하고 또 경상남북도의 6.25 당시 피학살자 유가족들이 처형되었는데 그들을 연무 에 모아 「나이 뉘뜻인데 모르는 스라 南으로 加더」

◇4·19의 격앙된 민족정신은 민족의 자주통일론으로 연결되어 「남북협상회합」으로 번졌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정권이 무너진데에는 당시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후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던 미국이 1958년경부터는 세계경제의 불황을 맞이하여 자국의 군사경비의 감소를 위해 일본을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의 중요한 동반자로 삼기 시작함으로써 일본의 방위력정비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러하여 전범으로 처리되었던 「기시」(전 일본수상) 등이 른바 만주및 관동군 인맥이 일본정치의 주연으로 부상하고, 한국군내에서도 일본육사및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중요한직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바 탈위에서 동북아 군사전략의 필요 토대를 갖추기 위한 한일관계는 재설정이 모색되고있었고 이승만의배일통치이데올로기가 그의 정치적·물질기반인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상충됨으로써 「로의 중립」「한아권고」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Ⅱ.4.19 혁명과 민족통일 운동의 고양

1. 비조직 민중의요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구조속에 내재해있는 한국사회의 주요기본모순이 이승만정권이 무너지자 민족사의 전면에 1960년 7월경부터 대두하기 시작했다.

먼저 비조직적인 민중들을살펴보면 건할양민학살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학살당시의 면장을 불깜아 불태워 죽이는 극한적인 원한들이가 나타나기도하고 또 경상남북도의 6.25 당시 피학살자 유가족들이 처형되었던 시체들이 발견되어 「나이 뉘뜻인데 모르는 스라 南으로 加더」라는 노래가 불리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초기에는 의식수준이 정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것이 서서히 고양되어 어기면서 2월기에 본격적인 민족통일운동으로 발전했다. 예컨대 1960년1월일 결성된 서울대의 「민족통일연맹」은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현실에 입각한 적극의견표 진한한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1961. 2. 14 『제2공화국 정부와 보수당정책은 통일없는 자립을 촉진하는 대신 오히려 민족의 분할을 영구화하고 조국의 주권을 국토통일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학생들의 민족자주성의 입장이 더욱 체계적이고 심원적으로 확산된것은 61년개회된 17개대학의 이른바 「민통성」(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주비대회였다. 「4월혁명을 계기로 민족·대중세력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한게되었으며, 평화세력은 전쟁세력을 압도하였다. 인간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맞습 테러 통치를 타도한 이 나라의 대중세력은 또 다시 압압의 빈곤에서 해방되기위하여 통일투쟁을 감행하게되었으며, 그들의투쟁은 자립경제를 이룩 반통일세력인 외세의존적 맹란세력의 타도에 건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민족의 전위인 우리들은결코 분단으로 불행한 부모형제들의 통일에 한호성을 올리면서 조국의 복받에 받드시 우리들과 공감하고있을것이 틀림없는 우리들의 형제들과열싸안고 말을 치며 울고 싶다』 라 민족통일을 향한 강력한 실천적의지를 보이고 있다.

3. 정당 사회단체의 통일운동

50년대에는 「평화적 국토통일」이나 남북간의 문화·체육 교류를 주장하기만 해도 구속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4.19이후 첫선거인 7.29 총선거에 선도 사회대중당, 한국독립당, 한국사회당 등의 혁신정당들은 보수당인 민주당의 통일론에서 크게 앞서가지 못한것과 대체로 유엔감시하의 총선 혹은 남북교류를 주장하는 정도였다. 이에 반하여 몇몇 사회단체에서는 약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예컨대, 혁신동지총연맹은 「자주성 있는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약요소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적 진보세력이 주도적으로 혁신하고 자립적인 국민앙심에서 전국의 민주적인 제정당및 사회단체가 통일위월회를 구성하여 국제연합의 협조하에 민주주의의 승리에 의한 정치적인 통일을 달성하자』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앞서 언급한 「민통연」을 중심으로한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지지하던서 1961.5.13 시점할 광장에서 「남북학생회담 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를 계획·선포하였다.

이상과 같은 학생사회단체들의 통일운동과 일반 비조직 민중들의 외치기 결심을 거두기도 전에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5·16군사쿠데타 군부에의해 차단되고 말았다. 4월혁명이후 전개된 통일운동의 반공의 보루를 입고 있는 군부세력에게는 사회혁란으로 발아들려져 군사쿠데타를 감행함으로써 6·25전쟁후 10년만에 타올랐던 민족통일의 열원은 다시금 얼어붙어버렸다.

결국 분단상황하의 주요모순은 피해자 「가」이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군부가 해결하겠다고 지정권에 나섰으로써 이후 한국사회는 주변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기본모순이 크게 심화되어가는 역지와 노정을 걸게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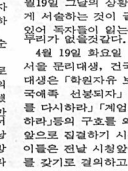
「참고문헌」

·『4월혁명론』강만길외 한길사
·『한국민족주의론Ⅱ』송건호편 창작과 비평사
·『국가와 국제정치·경제체제』 일월진 · 김배원,『한국사회학연구 7』,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4·19 7일의 함성이 (3)

□당시 대학생 이었던 김 춘 식씨

푸른 4월이면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는 느낌입니다



김 춘 식
(4·19회사무국장)

서대문 적십자병원 오른쪽에 위치한 4.19도서관. 이곳이 바로 자유당 부패정권의 대표적인물이었던 이기붕의 집터라는 사실을 앞고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한 이자리에서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맨손의 젊은이들이 피흘리며 쓰러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주위의 호사스런 고층빌딩에 가려 얼른 눈에 띄지도 않는 이 건물은 4월혁명의 비밀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못하다. 이곳 건물 1층 에는 4.19당시 희생자 가족이 모인 4.19유족회와 4.19상이자회,그리고 4월혁명에 가담하여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당시 학생들의 모임인 4.19회가 자리하고 있다.

당시 학생의 입장으로 4월혁명에 참가하여 현재 4.19회 사무장으로 있는 김춘식씨를 만나보았다. 올해로 4.19는 25주년이 된다. 당시 중앙대 학생이었던 김춘식사무국장은 한세월를 뛰어넘은 「어른」이었다.

—4.19를 맞는 감회가 어떠합니까?

『해년 4월이 오면 당시 학생이었던 나 자신을 돌이켜보곤 합니다. 정의에 불타는 뜨거운 마음으로 독재·불의에 항거한 그 당시의 모든 학우들중 157명이 사망했고 6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대한 민중의 움직임속에서 나자신의 외치와 열기가 얼마나한 「벽돌구실」을 하였는가를 생각합니다. 불바람 따라하게 불어오고 화창한 푸른 하늘이 보이는 4월이 오면 당시의 울부짖었던 그 뜨거운 열기가 다시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큰 감회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충격과 세속의 미진이 있었음일까. 그날을 생각하는 김춘식씨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당시 학생들의 마음가짐이랄까 제1공화국의 부패성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했습니까?

『제1공화국의 이승만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올해이 개표, 피아노 개표등 각종 부정선거를 치뢰습니다. 또한 「민의(民意)」라하여 백골단·땃벌떼를 동원하여 공포정치를 하고, 경찰이 국회를 포위하여 소위 「날씨개헌안」이란 것을 억지로 통과하여 일부 의식있는 시민과 학생들의 많은 반발과 민주당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의 서울 시민과 학생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도 한번 들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4·19는 어떤 한 상징적 날일뿐이지 그날 하루에 민의의 함성이 터져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4.19를 전후로하여 수많은 학생들의 시위가 결국 4.19를 「피의 화요일」로 더나아가서는 아나라 학생운동사의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며 민의 등지에서의 학생시위와 시민들의 시위앞에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인다. 4.19에 대한 김춘식씨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4.19를 혁명이냐, 의거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인 견해로 4.19는 혁명도 의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학생들이 그것을 기화로하여 어떤 체제변혁을 바라고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들리게된 탄압에 대해서 학생들은 방향을 바꿔 나갔지만 처음 시위할 때의 학생들의 의식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단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가정치권력을독재권한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의견의 개진 형태였다고 봅니다. 또한 당시 참가한 당사자로서 이것은 혁명이다, 의거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아닌가할 입니다.』

이렇게서는 그간 많은 논란을 거듭해왔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권력측면에서 의미속소를 통해 4월혁명의 열량을 최소한도로 막아보려는 시위 운동의 민족사적 측면과 현재성」을 지녀려는 면에서 상충되었다고 보는것이 설득력을 지닌다. 4·19가 지금에 있어서 의미와 민족사적인 맥락에서의 현재성은 어떤 것일까?

『4·19정신이 많이 퇴색·변질되었다고들 합니다. 이는 당시 4·19참가자들이 후에 유신지지등 권력과의 유착관계를갖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한 이질에서는 그간 많은 논란을 거듭해왔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권력측면에서 의미속소를 통해 4월혁명의 열량을 최소한도로 막아보려는 시위 운동의 민족사적 측면과 현재성」을 지녀려는 면에서 상충되었다고 보는것이 설득력을 지닌다. 4·19가 지금에 있어서 의미와 민족사적인 맥락에서의 현재성은 어떤 것일까?

『4·19정신이 많이 퇴색·변질되었다고들 합니다. 이는 당시 4·19참가자들이 후에 유신지지등 권력과의 유착관계를갖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한 것이 결국 4·19정신과 위배된다는 얘기인데…… 4·19정신은 당시참가자들의 성난파도의 물결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4·19라는 이념적카테고리와 당시참가자일부가 희생되었다는것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9는 당시 외치고 갈망했던 자유와 권리의 정신이 우리 들의 가슴속에 연연히 맥락을지니면서 실화되어지면서 사회의식도 혼란해졌다고봐야겠지요.당시대구매일신문사가 대대적인 테러를 당했는데 경찰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있었고 거창사건, 실업자들의 흥수, 아당계 신문의 구독을상실해하는, 수많은 비리가있었음니다. 그때서야 평이가가 「사바사바」 였지요. 「사바사바」하면안될일도 되고, 아욕적으로 침해하는 한미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묵과하고있다. 한국경제의 악점을 이용하여 미국이 강요한 이 편파적불평등조약, 구세기의 침략적 포악의다…… 내용의 호소문과 격문을 가두에 배포하여 한미경제협정반대 성토대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들의 이런한 인식과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4·19 직전 한국사회의 모순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성장기간에 교육받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크게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학생들의 입장은대내적으로보 현저한 변화를 보인다. 즉 1961.3.19에는 학생들의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정권이 개정하려던 「반공임시특별법안」과「데모규제법」에 대하여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과거에 보안법반대투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보안법을 제정함은 집권을 연기시키려는 의도이다. 2대악법통과되면 국토통일은 영영 못 본다는 고 반공이데올로기의 정략적 의도를 비판하고 반공법과 국토통일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학생들의 민족자주성의 입장이 더욱 체계적이고 심원적으로 확산된것은 61년개회된 17개대학의 이른바 「민통성」(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주비대회였다. 「4월혁명을 계기로 민족·대중세력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한게되었으며, 평화세력은 전쟁세력을 압도하였다. 인간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맞습 테러 통치를 타도한 이 나라의 대중세력은 또 다시 압압의 빈곤에서 해방되기위하여 통일투쟁을 감행하게되었으며, 그들의투쟁은 자립경제를 이룩 반통일세력인 외세의존적 맹란세력의 타도에 건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민족의 전위인 우리들은결코 분단으로 불행한 부모형제들의 통일에 한호성을 올리면서 조국의 복받에 받드시 우리들과 공감하고있을것이 틀림없는 우리들의 형제들과열싸안고 말을 치며 울고 싶다』 라 민족통일을 향한 강력한 실천적의지를 보이고 있다.

3. 정당 사회단체의 통일운동

50년대에는 「평화적 국토통일」이나 남북간의 문화·체육 교류를 주장하기만 해도 구속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4.19이후 첫선거인 7.29 총선거에 선도 사회대중당, 한국독립당, 한국사회당 등의 혁신정당들은 보수당인 민주당의 통일론에서 크게 앞서가지 못한것과 대체로 유엔감시하의 총선 혹은 남북교류를 주장하는 정도였다. 이에 반하여 몇몇 사회단체에서는 약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예컨대, 혁신동지총연맹은 「자주성 있는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약요소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적 진보세력이 주도적으로 혁신하고 자립적인 국민앙심에서 전국의 민주적인 제정당및 사회단체가 통일위월회를 구성하여 국제연합의 협조하에 민주주의의 승리에 의한 정치적인 통일을 달성하자』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앞서 언급한 「민통연」을 중심으로한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지지하던서 1961.5.13 시점할 광장에서 「남북학생회담 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를 계획·선포하였다.

이상과 같은 학생사회단체들의 통일운동과 일반 비조직 민중들의 외치기 결심을 거두기도 전에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5·16군사쿠데타 군부에의해 차단되고 말았다. 4월혁명이후 전개된 통일운동의 반공의 보루를 입고 있는 군부세력에게는 사회혁란으로 발아들려져 군사쿠데타를 감행함으로써 6·25전쟁후 10년만에 타올랐던 민족통일의 열원은 다시금 얼어붙어버렸다.

결국 분단상황하의 주요모순은 피해자 「가」이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군부가 해결하겠다고 지정권에 나섰으로써 이후 한국사회는 주변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기본모순이 크게 심화되어가는 역지와 노정을 걸게된 것이다.

「참고문헌」

·『4월혁명론』강만길외 한길사
·『한국민족주의론Ⅱ』송건호편 창작과 비평사
·『국가와 국제정치·경제체제』 일월진 · 김배원,『한국사회학연구 7』,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4월19일 오전12시경 경무대앞에서 제1공화국의 부패를 규탄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경이발포하여 시위군중이 흩어지는 모습.

4·19정신은 당시 자유를 외쳤던 우리들 가슴속에 연연히 맥락을 지니면서 내려오고 있읍니다

서 시위를 이끌어 나갔다. 이때, 시위군중 속의 한사람이 가슴에 태극기를 감고 앞으로 계속 나갔고 경찰은 드디어 발포하여, 이른바 「피의 화요일」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였고, 흥분한 시민과 학생들은 하수도관을 밟면서 대항하고일부는 태피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당시 시청앞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김춘식씨의 목격담이다.

특집 얼룩진 현대언론사

60년대 한국언론 권언(權言)복합체의 과정

—최 민 지 <일월서각 대표>

Ⅰ. 머리말

전통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은 환경의 감시기능을 첫째로 꼽는다. 즉 역사발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항을 그때로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해서 보도해야함을 의미한다.

언론은 그 시대적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언론의 기능과 역할도 다르게 요청되어졌고 이러한 관계는 한국언론사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언론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비판정신』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따라서 언론은 역사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민중의 의식을 계발하고 조정하여 역사창조에 부끄럼없이 동참하는 언론이어야 한다. 국제적 저널리스트인 올소프형제는 언론가 『뉴스는 흔들한 의미에서 주관적소산』이라고말한적이 있다. 바람직한신문기자란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그시대의성격을 파악하지않으면 안되며 『하나의 사실을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실을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모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우리의 신문윤리강령도 주장하고있다. 이렇게 보면 보도자체가 이미 하나의 의견이며, 주관적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사실이나 사회적 사실에는 예외없이 역사성이 내포 돼 있다. 보도돼 있는 단순한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실이 인간의 역사적 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4.19나 광주사태의 경우 정부 당국자나 제야의 견해가 다른것은 그들의 역사를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를 전진하는 것으로 보는 눈—사상, 곧 기자들의 역사의식이 언론사상을 말한다.

지금 제3세계에서는 언론의 내셔널리즘을 주장한다. 보편타당성 있는 언론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의 실현, 경제개발과 외세침투의 배제 등 강한 주체의식에 바탕을 둔 민족언론을 지향한다. 이에 대항하여 선진 구미제국들은 언론의 객관화, 보편주의를 내세워 접근하면서 실은 언론의 제국주의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60년대에 있어서의 한국언론과 민족언론운동은 통치자의 독재화와 그들의 정권안보의 봉사기관으로의 전락을 강요하는데 대항하여 특립언론을 회복시키는데에 우선이 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엔 어떨 수 없이 언론과 정부간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60년대의 한국언론을 서술하서 말한다면 이미 언론과 정부간의 긴장 갈등관계가 끝나고 권언복합체(權言複合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Ⅱ. 2공화국시대 언론자유와 평가

4·19 학생혁명이 터질 때까지는 신문의 소임이 컸다. 자유당 정권의 독재성이 빚어낸 비행폭로와 민권옹호에 신문은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최 문교수

1960년 4월19일 여당지였던 서울신문은 성난 데모대의 습격으로 불타버렸으며 1년동안이나 폐간됐던 경향신문이 대법원 연합부에 의해 발행허가 정지의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4월27일자로 복간되었다. 이것은 역사와 언론관계를 우리에게 가장 현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후 5·16 군부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1년간은 가히 언론의 자유시대였다. 종래의 언론자유를 명목히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문 (全文) 20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는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은 언론인들의 공분위한 반대로 시행 보류는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발행인들의 투항적 자세를 노정하였으며, 아울러 발행인과 편집인, 기자 사이의 의견 대립을 보여 언론계 전체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윤리위원회법안 파동의 결과가 악법의 폐기에 이르지 못하고 언론과 정부의 타협, 아니 오히려 정부의 우호적 배려로 시행을 보류한다는 형식으로 낙착됨으로서, 일견 언론이 승리한 듯이 보이고 IPI를 비롯해 외국에서는 한국의 언론자유투쟁의 커다란 승리로 찬양해마지않았으나, 실은 이때부터 권력과 언론은 대등한 관계에서 의존관계로 굴절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러한 언론기업화경쟁은 언론으로 하여금 언론본래의 환경감시·비판기능 보다는 상업권을 중시하게 하였고, 시설의 현대화, 사세확장등 언론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아래 정부의 특혜을자를 받지않을수 없는 구조적 병리현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무렵부터 언론의 자유는 현저하게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정부비판을 신랄히 해오던 경향신문이 관권의 압력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매사건에서 신문발행인은 물론, 사실상 모든신문이 수수방관하였다. 한편 경영자와는 별도로 취재기자나 제작자에게 가해진 언론인들에 대한 테러, 구속등도 잇달았다. 그러나 외부압력에 대한 동료언론인들에대해 공공보조나 지면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이어 언론계는 1968년 『신동아』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인 패배와 좌절을 맛보게 된다. 공화당정권의 차관도입을 해부한 기사로 신동아편집책임자의 퇴직은 물론 동아일보 발행인·편집인까지 연쇄퇴진시 동아일보는 나무잎 하루하게 권력앞에 굴복하고 말았고, 언론계에서는 이는 신문도 이 문제를 자신의 언론자유문제로 다루지 않았다. 국회에서 이문제가 야당에 의해 정부의 부당한 언론탄압의 사실로 거론되었을 때 언론계는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하고 있었다.

이것은 1967년4월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권력당국의 언론탄압책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IPI와『언커크』등에언론탄압실태에 관한 소명서를 발송키로 하고 발행인협회, 편집인협회, 기자협회등에 관련탄압에 굴복치말고 언론의 정도(正道)를 지켜달라는 격려문을 보내기로 한데 대해 전언론계가 비난 반박한 사실과 함께 특기할만한 사실로 기록된다.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대한일보등 신문들은 일제히 『언론인체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취소하라』 『한국언론의 자주성을 압보고 언론을 방심하급하지말라고 요구하면서 IPI등에 언론소명서를 제출하려는 것은 지나친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는 한편 정부기관원이 언론기관에 상주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신민당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악선전』(조선일보) 『전혀 근거없는 명랑한 말』(대한, 경향)이라고 반박하였다.

당시 언론기관에 기관원이 투상출입한것은 사실이고, 그들이 사설, 기사등에 관해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고, 언론이 이에 대해 거의 저항을 못한것도 사실이다.

그러고 권력당국이 언론의 주장을 별로 두려워하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일치단결해서 신민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미 언론이 자유·독립을 모두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중요 이슈에 대한 지면의 논조에서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

월남파병문제는 1964년 말부터 정계나 언론계에서 정치·외교적 특실에 대하여 활발히 거론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언론계의 대부분은 월남파병이 한국에 문제를 남길 것이라는 비관적 입장이 우세했으며, 사적인 견해에서는 이점에 있어 거의 일치했으나 파병반대여론은 신문에 한번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월남 파병이 국가이익으로보아 이롭지않으며 파병에반대한다는 주장을 사설을 통해 명백히밝힌 신문은 하나도없었다.

1969년의 개헌논의에 있어서 당시 중앙언론기관에서 앞장서서했다는 점은 개탄을 금할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압력도 높아져서 소위 『학원사태』의 문건(文件) 속에서 격렬한 언론비판의 높은 목소리와 언론화형식까지 튀어나오게 되었다.

이러다가 1970년대에 넘어오면 한국언론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오히려 그 졸안에서 즐기는 유신체제내의 제도언론으로 발전된다.

Ⅳ. 맺는 말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60년대의 한국언론은 한국언론사상 처음으로 기업으로서 근대화의 길을 걸게 된 획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언론이 독립을 상실하고 권력에 완전히 굴복하여 일찌기 『민주언론협의회』 외장인 송건호교사가 정의내렸듯이 권언복합체(權言複合體)를 형성한 점에서 획기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당시 『편집인협회』의 장이었던 최석채씨가 1968년말 신동아사건을 지켜보면서 오늘의 언론상황에 많은 시사를 던져줄 기록을 길트으로 그대로 인용한다.

『신동아사건은 한 사의 주필과 편집국 인사가 3명이나 순수한 자의가 아닌 사직 (辭職)을 하지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언론계에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이 상처를 수습하지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언론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어째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문이 편집인과 기자의 손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경영주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까지 한국언론이 전혀 경험하지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시련에 직면하고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경우 언제나 편집인과 경영주가 한 명이뭐로 뭉쳐서 싸워왔다. 우리언론은 이런 투쟁의 경력이 많고 따라서 경험도 풍부하지만 지금은 경영자, 편집인기자가 각각 흩어져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바요, 의식에도 이런 경험은 없다.

신문사란 일종의 성(城)이다. 이 성안에는 경영주와 편집인, 기자가 있어서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이때문 나가다가는 이 성안에서 불신이 싹트고 반란이 일어나 성주를 향해 주인들이 선전포고를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시점에서 나는 언론의 자유가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는다는 사실은 제2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언론이 스스로 단결하여 싸우지 못하고 성문을 열어 외적을 불러들이으킨다면 누구에게 구원을 청할것인가. 언론계는 이점에 대해 냉혹한 자기 비판이있어야 하겠다….』

60년대 언론은 권·언복합체적 성격과 우민화문화정책으로 인한 황색저널리즘으로 이행하는 성격지녀. 언론의 기능은 비판정신이 우선 되어야.

씨가 편집인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결론지었듯이 『한편으론 승리와 영광을 장취했고 다른 한편으론 패배와 비극을 깊요당했다. 때로는 환희와 열에에 취을 주었고 때로는 실의와 좌절감에넋을 잃었으며』. 편협화장 최석채가 결말하면서 예언한대로 신문이 편집인과 기자의 손을 떠나 이미 자주성을잃고 외부의 손에 마음대로 휘둘리게 되었을뿐 아니라 언젠가는 경영주와 기자사이에, 아니 신문과 독자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끝 70년대 중반에 동아일보, 조선일보기자 대량축출이라는 현실로 적중하게 되는 것이다.

60년대 언론의 기업화와 70년대 유신화와 이어지는 기간을 통해 한국언론은 부정보다는 제도언론속에 안주하고 오히려 체질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 당시 야당인 신민당과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지방유세를 반대운동을 펼을뿐 공화당안에서조차 반대의 소리가 적지않았던만큼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것은 말할것도없다. 그러나 민중의 여론을 대변해야 할 언론계는 이에 아무런 찬·반태도를 밝히지 못하고 사실상 개헌지원 방향으로 논조를 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역사발전에 반하여 권언복합체 (權言複合體)를 형성한 언론계는 유지부족으로 1주 36단위에 발행하지 못한다면서도 다투어 주간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거의 매주마다 여성의 알몸과 섹스, 스포츠와 엽기적화제, 스캔들을 가득 담은 이들 주간지들은 하나같이 청소년생활을 탈락시키는 정부의 우민화문화정책의 첨병으로 황색저널리즘에 병들어 있고 이것을 다름아닌 다름아니다.

박정희정권하의 군정(軍政)은 국가경제의 재건과 정치기반의 안정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면서 정치질서의 개혁과 참신한 정치제도를 부각시켜 그들의 경통성을창출함으로써 제3공화국의 기반을 닦았으며, 박정희대통령은 제3공화국의통치기간 동안 체제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 『조국근대화』 『경제적 정권교체』 『민족 중흥』 『경제개발』등의 구호를 내걸고『행정적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의 토양에착근(錨根)시키려고노력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개발독재성향내지 과부화(寡國化) 경향을보이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분야에 걸쳐 통제를 강화하였다. 여기에서 언론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박정희정부는 근대화-경제개발, 정치적 안정및 국가안보라는 상징조작을 위해 사회개혁과 사회-경제-정치 변동의 중요한 동적(動的)요인의 하나인 매스 미디어를 동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가지 유형의 방식으로 매스미디어를억압통제하기에이르렀던것이다.

Ⅰ. 유신체제 등장의 의미

막스 베버와 하버마스가 말한 바와같이 모든 정치체제는 각기 자기의 정통성 (legitimacy) 의 원리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한다. 이같은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의 정부는 발전, 즉 경제발전을 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경제발전이야말로 정치체제의 안정성에 직결된다고 보기때문이다. 클라우스 블러가 잠재적인 불안정성의 원천을 경제발전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것은 이 같은 명제의 반어법 (反語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거의 예외없이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정치변동이 제도화하기전에 아이젠슈타트 (Eisenstadt)가 말하는바와같은 이른바 『근대화의 좌절 (挫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새로운 정치변동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는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근대화로 표현되는 후발적 (後發的) 발전의 특징은 발전이 목표로서 자각되어 있고, 그 발전 자체가 대개의 경우 합목적적으로 추구된다는 사실이며 서구여서와 같은 자생적 (自生的) 인 결과로서의 발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위로부터의 근대화, 즉 정부주도형의 개발이 되기 쉽고 또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들이는 여러 요인들과 서로 얽혀서 정치의 권위주의화를 재촉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이전사회로 확대되고 매스 미디어와 교육이 보급되고, 도시화를 통한 공업노동자의 대두등의요인으로 인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라는 요구와 정치적 민주화가 또다른 요구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가 사회한층에서 강하게 일어나면 정치체제를 위협하게 되므로 이러한 제반 요구는 지배층의 강력한 반발을 받는다. 이처럼정부집권층이 사회혼란을 막기위해서이든, 또는 국가통합 (國家統合) 의 필박한 사정에서이든, 집권연장을 위해서이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면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갖가지 정치·사회적 갈등과 긴장으로 말미암아 정치체제의 정통성이 위기에 봉착한 박정희정부가 새로운 『유신체제』를 정통화하려고 한 것은 이같은 측면에서 이해될수 있을 것이다. 안병준교수는 『박정희대통령은 자기의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와 당시에 즐기차게 논의되었던 미군 (美軍)철수문제등 국가안보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말해서 국가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이통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헌정 (憲政) 을 중단하고 정치체제를 재구성하기로결심했던 것이니 이것이 『유신』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있다. 즉 표면상으로는 『국가안보 위기의 극복』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장기집권을 가능케한데 그 를립이 있다고 하겠다.

Ⅱ. 박정희정부와 언론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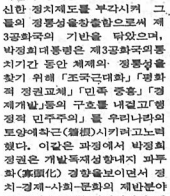
언론과 정치권력은 상호갈등하면서 존재한다. 그것은, 정치권력의 목적 그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안정성 (stability) 에 있는 반면,정치참여자들의 목적은 변화성 (mobility) 에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변화인 매스 미디어를 동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가지 유형의 방식으로 매스미디어를억압통제하기에이르렀던것이다.

> 언론과 정치권력은 필연적으로 상호 갈등하면서 존재한다

성된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력의 언론관 (言論觀) 이 정부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부의적입장에서 현실을 보는 언론과는 갈등하지 않을수없다는 것이다.

박정희정부하의 언론도 정부와 갈등하면서 유신체제하의언론으로부까지 변질되어갔던 것이다. 변영권·권오기·최영철당시 동아일보기자 테러사건과조동훈 (당시 동아방송)프로듀서 테러사건 등에서 보는바와같은 언론인들에 대한 폭행과 회유, 그리고 동아일보, 민국일보, 한국일보, 신동아월화사건등에서 보는 언론및 언론인에 대한 탄압과 언론계 추방의 사례들은 그같은 갈등과 긴장의 표출에 다름아니다.

박정희정권하의 군정(軍政)은 국가경제의 재건과 정치기반의 안정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면서 정치질서의 개혁과 참신한 정치제도를 부각시켜 그들의 경통성을창출함으로써 제3공화국의 기반을 닦았으며, 박정희대통령은 제3공화국의통치기간 동안 체제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 『조국근대화』 『경제적 정권교체』 『민족 중흥』 『경제개발』등의 구호를 내걸고『행정적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의 토양에착근(錨根)시키려고노력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개발독재성향내지 과부화(寡國化) 경향을보이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분야에 걸쳐 통제를 강화하였다. 여



김 진 홍
<홍보학과교수>

기에서 언론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박정희정부는 근대화-경제개발, 정치적 안정및 국가안보라는 상징조작을 위해 사회개혁과 사회-경제-정치 변동의 중요한 동적(動的)요인의 하나인 매스 미디어를 동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가지 유형의 방식으로 매스미디어를억압통제하기에이르렀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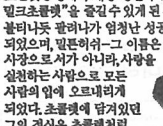
Ⅲ. 유신체제하의 한국언론

1)언론의 유신화과정

모름지기 70년대 전후의 한국언론은 외형적 비대화 (肥大化)·와 내재적 (內在的) 인 위축(萎縮) 을 동시에 능축시키면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5·16 이후의 한국언론은 60년대의 언론기업화 (言論企業化) 시대와 70년대 전후의 언론유신화(言論維新化)시대를 거치는 동안 결국 변질되어 제제내의 제도언론(制度言論) 으로 동화되어 갔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는 일부 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백년간의 한국언론사상 가장 중대한변화를 한것은 60년대후반이라는 것이다. 즉 60년대후반을 분수령으로 해서 한국언론은 바야흐로 편집인의 손에서 떠나 이미 자주성 (自主性) 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견해에 의하면, 5·16 이후 경제적 수혜 (受惠) 를 크게 입어온 한국언론기업은 70년대에들어서면서 마옥 권력의 혜택에 참여,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는 언론활동을 유신체제에의 제도언론으로 변화시켰으며 그리하여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주장하는 기자들을 기업주들이 쫙대시키는 언론사상유례를찾아볼수없는1975년봄의 언론파동을 야기시켰다는 지적

무엇이 허쉬를 유명하게 만들었나!

「1899년,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사용되던 허쉬초콜렛 최초의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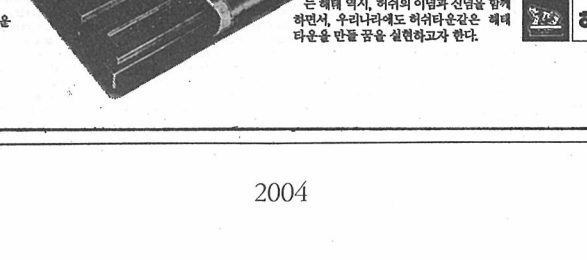
허쉬의 기업을 위하여 사람들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허쉬가 존재하였다. 한창 뻗어나가고 있는 카라멜회사를 100만불에 팔고서, 펜실베니아 데리코의의 옥수수밭에 초콜렛공장을 세울 계획을 발표했을때 사람들은 모두 허쉬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가진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는 결코 미친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그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만큼 커다란 초콜렛공장을 농장근처에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과 학교, 교회 등을 함께 세웠다.

옛날 궁중에서나 혹은 귀족들만이 맛볼 수 있었던 초콜렛을 그의 초콜렛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게되어, 비싸지 않은 "허쉬 밀크초콜렛"을 즐길수 있게 된것이다. 초콜렛은 불티나듯 팔리나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밀톤허쉬-그 이름은 초콜렛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초콜렛에 담겨있던 그의 정신은 초콜렛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운 허쉬타운으로 나타났다.

천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발견한 것. 밀톤 허쉬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장을 공개했다. 1927년에서 1973년 중반에 걸쳐 천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그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무엇이 사람들을 허쉬타운으로 끌어들인 것일까? 허쉬는 그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많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장부근에 그들이 살 주택과 학교, 은행, 소방서, 상점, 우체국 등을 지어 그들을 위한 타운을 만들었다. 나무와 잔디에 둘러싸인 그림같은 집들, 갖가지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 허쉬타운은 그야말로 행복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방문객들은 세계 제1의 초콜렛공장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휴타운에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선물가게, 카페 등도 세워졌다. 이모든 것들은 기업을 위하여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허쉬"가 존재한다는, 밀톤 허쉬의 신념과 사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허쉬와 손잡고 허쉬초콜렛을 우리에게 선보이는 해태 역시, 허쉬의 이념과 신념을 함께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허쉬타운같은 해태타운을 만들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해태제과

자유언론을 위하여

○····언론이라 함은 환경감시 기능과 비판정신을 그····○
○····수임의 첫번째로 손꼽는다. 일제시대 동아일보····○
○····창간이 한국에 있어서 본격적인 언론활동 개시····○
○····의 시대로 상정한다면 우리의 언론은 그동안····○
○····수만은 우여곡절과 그 극복을 위하여 노력해왔····○
○····다. 그러나 현재 과연 한국의 언론이 제 역할····○
○····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접하게 될때 우····○
○····리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답하게 될가. 그러한····○
○····의문에 대하여 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언론에····○
○····대한 통제와 그 방식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민····○
○····중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
○···· <편집자주> ····○

이 태 호
<자유 기고가>

1. 머리말

우리사회에 제도언론과 민중언론이라는 대칭되는 언론이론제하고있다는 사실은 단적으로 말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상을 대변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의 의식구조가 양분되어 국력이 크게 낭비되고있는 슬픈현실을드러내주고있다. 혹자는 언론을 통어 제도권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국론이 통일되고 정치가 안정된다고보며 그러한 전술에 입각하여 정권을 연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야 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 와같은 편협함과 어리석음의 표본이라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면 국론은 최소 공배수로 축소되고, 제도권밖의 언론이 활기를 띠게 되어 결국 그러한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거짓 술책이 폭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모든위 위는 마침내 전리 앞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이 사회과 공리(公理)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한정권이 붕괴되고 다른 정권이 언론의 정도 (正道) 를 인정하기까지의 긴 과정은 국가 민족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족간의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뒷걸음질을 강요하는 반역사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갚내하기 힘든 역사의 순간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억압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후회시킨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제도를 자신의 철학과 소신으로 비판하고,그것을 철폐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은 언론기관과 그 종사자들에게도 우리는 준엄한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권력과 언론의 반민중적 결속의 실태를 분석하고,민중이 창출하고 있는 대체언론의 실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제도언론과민중언론의 개념

제도언론이란「체제 속에 함몰(陷沒)된 언론」이라고 필자는 개념지은바있다(충전호의 9 인공저 「민중과 자유언론의, 아침출판사, P.13). 여기서 체제란 넓은 의미로는 통치체제를 가리키고,좁은 의미로는 언론통제체제를 가리킨다.

통치체제란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규범을 편제화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언론통제체제란 독재 정권이 언론을 자기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개편·조종·처벌·폐쇄하는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구라 할 수 있다. 통치체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선정 또는 악정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체제란 악정의 발판이되는 통치체제와 그것으로부터 수행되는 언론 통제체제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언론사에 있어서 「제도언론」이란 개념은 유신체제 (維新體制) 의 산물이었다. 유신체제는 1972년 10월17일부터 박정희씨의 장기집권을 위한 방탄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김재규씨의 총탄에 의해 1979년 10월 26일에 사실상 붕괴된 독재의 한 유형이었다.

박정희씨는 1961년에 일어난 5.16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언론을 음양으로 규제하다가 이른바 10월유신으로 언론을 거의 압살한 장본인이었다.

박정희씨의 언론통제의 유형은 ①법률적 통제로서 헌법,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계엄법, 형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국민투표법, 방송법,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의 제반규정 ②행정적 통제로서 프레스 카드제의 실시, 안보를 내세운 규제, 각 부처 대변인제의 도입, 각 기관에 대한 취재의 제한, 외신 취재와 보도의 규제,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외뢰, 비상시의 보도지침을 통한 규제등 ③물리적 통제로서 기관원의 언론기관 출입, 임의동행 형식의 연행조사, 기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 나타났다(김진홍, 「동아일보 광고통제에 관한 시론적 접근」, 『언석 박유봉박사회갑기념논총』P P.460~475).

유신체제하의 언론통제는 이상과 같은 일반론 외에 유신체제 때문 도전, 안보의 중대사항,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사들을 자제해야한다는 1973년 12월 6일 편집국장클럽과의 간담회석상에서의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의 발언과 1975년 5월13일에 선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 호」로 그 특징이 집약된다.

즉 박정희씨는 각종 규제조치와 문화공보부장관의 발언으로도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긴급조치 9호로서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및 폐기를 부장하거나 청원·선동 도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구속영장없이 체포함으로써 그가 피심될때까지 언론을 체제속으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선 기자들은 1970년대초 자유언론수호선언등을 통해 산발적인 저항을 시도했지만 권력의 탄압앞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선언」을 「실천」으로 옮긴 적극적인 투쟁단계는 1974년 3월 6일에 시도한 동아일보 언론노조 결성운동과 그것이 관과 회사의 탄압으로 공중분해되자 다른 형태로 저항의 지를 결집한 1974년 10월24일에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3. 제도언론의 반민중성

제도언론은 반민중적 제도에 편입된 이상 반민중적 속성을 지닐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는 1980년대 제도언론의 반민중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제도언론은 왜곡보도로 민중을 기만한다.

1980년 11월 14일에 실시된 언론통폐합조치에 의해 통폐합된 언론기관이 제도언론의 글레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은 작금의 보도 태도로 입증되고 있다.

제도언론은 1982년 5월 7일부터 전직고관 이철희와 그의 부인 장영자가 저지른 거액 금융부정사건을 보도하면서 권력층 내후 개입설에 대해서는 전혀 추적하지 않고 이사건이 혹심많은 한 여인의 부정행위로 저질러진 것처럼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관보적 성격을 드러냈다.

제도언론은 또한 1983년 7월 5일 이른바 밀성그룹 부정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한 후 한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다가 8월 1일부터 국세청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싣기 시작했다.

밀성그룹 회장 김철호부부는 군의 자전지역 연예서까지 위락시설을 할만큼 막강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단편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언론은 그 배후를 파헤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채 전 교통부장관 윤자중이 군에 협조를 요청하여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 검찰의 발표문만을 보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도언론은 대학생들의 민주운동을 왜곡해서 비난해온 점에서 공통적이고도 일관된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반정부 데모에 참여한 학생들을 「파괴화된 학생」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파괴화」란 말말이야말로 불확실성의 표본이 아닐수 없다.

첫째, 파악과 우의의 판별기준과 생성배경은 무엇이며 극우가 극좌를 부르고 극좌가 극우를 불러올 경우 그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둘째, 「파괴」 과 「우경」은 어느 정도의 경향을 가리키며, 더구나 변수에 지나지 않는 경향이란 말앞에 다시 「××화」 라는 조건절을 덧붙일 때 도대체 「××화」 는 어느 선을 가리키는가.

세째, 「파괴화」의 내용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으며 「파괴화」 한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때 그를 처벌할 근거는 무엇인가. 네째, 파괴화의 범위는 무엇이며, 국민이 그것을 판별할 기준은 무엇인가. 제도언론은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않은 채 데모 학생을 막연히 「파괴화된 학생」으로 규정하여 그들의 행위를 왜곡해 온 것이다.

그들은 반정부 데모에 참가한 학생 수를 줄여서 보도하면서도 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一言半句) 의 배경 설명도 하지 않는 반면, 데모를 비방하는 주민들의 말만 확대하여 전하고 있다.

둘째, 제도언론은 민중을 학대하거나 적대시한다.

제도언론은 민중의 머리를 돈란에 빠뜨리는 이른바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정책의 총실한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타, 서통, 태창섬유, 무궁화 메리야스, 대우 어패럴, 대우 자동차, 삼성일용 노동자들의 피어린 생존권운동과 목동·신정동 주민들의 민중저항운동을 주로 질서파괴행위라는 차원에서 보도함으로써 제도언론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땅의 민중은 독재권력의 피해자다. 정부의 강제철거정책에 밀려 생존의 터전을 잃게되는 도시의 빈민, 과다한 사납금과 노조탄압에맞서 싸운 택시운전사들, 노조 여성간부를 끌어앉게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원풍모방) 불량

◇제도언론의 대응양식으로 나타난 민중언론의 한 형태인 대학의 자유벽보

4. 민중언론의 의의

제도언론의 횡포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자구행위(自救行爲)를 불러온다. 이땅의 민중들은 1980년대에 두드러진 권력과 언론의 밀착관계 (이를 권언복합체라고도 부른다) 를 타파하기 위해 제도언론에 대해 공격을 하는 한편 자체의 전달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하여 1980년대는 제도언론과 민중언론의 양극분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민중언론을 「억압받는 민중의 이유있는 소리」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것을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피면 민중언론은 「민중사관 (民衆史觀) 에 입각한 역사창조행위」라고 볼 수 있다. (졸고, 「민중언론 그 의의와 실태」 『공동체운동』 제 2 집, P.114). 민중이 역사의 주인임을 표방하고 역사를 주도할 식견을 갖추며 민중사의 앞날을 구상하는 민중언론이 민중을 억누르고 그들의 권익을 빼앗는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민중언론은 현실의 개혁을 전제로한 역사창조 행위라 하겠다.

대학생들은 대자보, 각종 성명서, 보고서, 학생들에 의해 취재·편집·제작되는 신문 (서울대의 「자유언론」 「전진」 등이 선구적 역할을 맡고,비롯의 많은 대학들도 학생 고유의 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및 지하운동 성향의 주장을 담은 글 (「지낭」 등) 을 통해 이 시대의 모순을 분석하고 민중과의 연대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 농민,도시의빈민, 해직 언론인, 여성들이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민중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음을 줄기차게 외치는 수백종에 이르는 유인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유인물은 인권운동단체를 매개로하여 서로 교환되거나, 유인물을 가진 사람들에의해 주택가나 번화가에 뿌려지기도 한다.

민중언론은 1980년대의 모습을 의나타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위해민중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고있는 민중언론은 첫째, 민중을 의식화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둘째 의식화된 민중을 행동으로 유도하는 촉진제이며, 세째, 반체제행동을 효율화하기위한 연대 무쟁의 발판이 되고있다는점에서 사회사적의의를지니고있다.

제도·민중언론의 대립현상은 현 민주주의의 미성숙을 대변

헌신개헌을 전제로한 민중언론은 저항운동의 실체적 역량을 발휘

저항의식이 약화된 언론은 대중의 호기심과 영합하는 결과를 초래

70년대는 권력과 언론기업이 이전의 글종관계에서 「자발참여」로 변화하는 권(権)·언(言)복합 체적성격을 띠어

제도언론과 민중언론의 논리

유신시대의 언론은 무엇보다도 「국민총화」 「국가안보」라는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획일적 보도경향을 띠게 되었다. 정부는 종래의 홍보개념, 즉 홍보주체로서의 정부, 홍보매체로서의 언론, 홍보객체로서의 국민이라는 관념에서 발피하여 언론과 국민를 다같이 자발적인 홍보주체 (弘報主體) 로 가담시킴으로써 정부·언론·국민이 삼위일체를 이룬 총화홍보(總和弘報)의 주체가 되도록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언론과국민을 자발적으로 총화체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유신시대의 언론은 저항의식이 약화되었고 약화된 저항의식의 결과는 정론(正論) 보다는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저속한 내용의 기사를 많이 싣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대의언론, 특히 신문들이 잡지식 편집으로 변모한 것은 그러한 사정을 대변한다.

유신시대의 언론은 결국 언론수용자들의 불만을 불렀다. 1973년 한국신문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문독자의 63.95%가 보도내용에 대해 공정치 못했다는 응답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봐도 언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대단했으리라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글절된 언론유신시대의 상황에서도 기자들의 언론자유운동이 무차해 있었는데 기자들의 일련의 움직임도 언론에 대한 이같은 사회적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60년대 후반후터 70년대 중반까지 한국언론의 현장에 있던 필자의 경험적 인식에 기초한다. 그 움직임의 뿌 듯기는 1973년 10월23일 경향신문 기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언론자유수호운동과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기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신문사에 번졌던 언론자유실천운동이 그것이다.

1) 제도언론하시대의 언론상황

한국언론은 이와같은 자유언론실천운동들에 동아일보 부터 기광고해약사태에 이은 독자들의 격려광고의 물결속에서 1975년3월 동아일보기자들이 대량 해임되고 곧은해 5월13일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것을 계기로 소위 제도화된 언론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언론은 이 긴급조치가 발효된 이후,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정권이 종료될때까지 단 한번의 언론자유운동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한 의미에서보면 제도화시대의 언론은 유신화시대의 언론보다 더욱 권력구조속으로 개편된 양상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언론의 이중은 권력을 가리켜 권(権)·언(言)복합체의 결과로 보고 있기도 하다.

3) 박정희정부의 언론통제방식

프레드 시버트가 지적한바와 같이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은 「체제안정적」으로 나타날수도 있고 때로는 「체제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때 박정희정부는 「유신제1기」 의 「언론유신화시대」 와 「유신제2기」 의 「제도 언론화시대」 를 거치는 동안 「체제파괴적 언론」 에 대해서는 갖가지 방식의 통제를 가했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정부는 경제발전과 정치안정및 국가안보등 중요한 요인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론을 「체제안정적 언론」 으로 유도했으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언론매체기관의 다각 경영 형태 (Conglomerates) 가 언론기업의독점화가 이슈화될 정도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같은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박정희정부하의 이같은 언론통제는「정향행사(influencing)」와 「제한(restricts)」의 통제의 두가지 기본유형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고 보아진다. 즉 설득과 압류와 위협등으로부터 폭력과 바일위협과 법적제한등에 이르는 언론통제의 모든 국면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정희대통령정부하의 한국언론은 정부가 그려는 언론지도(言論地圖) 안에서 순치(馴致)된 언론으로 존재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大学生·成人을 위한 英語 Training Center

時事英語社 直営

현대외국어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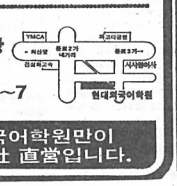
—英語·日語—

●TIME, 時事TOEFL, 아카데미 TOEFL, L.C. 이재욱TOEFL, AFKN 청취, Word Power Vocabulary, 성문 綜合英語, 英語実力基礎 英文読解, 英語順解, 綜合英文解釋, 英作文 日本語 初·中·高級, 日本語会話, ダイヅエスト

●韓人会話-(Welcome to English英語会話)

●美人会話-(New English Course英語会話)

5月 1日개강
수시등록
☎(273)4395~7



현대외국어학원만이 時事英語社 直営입니다.

30여년을 오직 외국어 교육만을 위해 일하고 있읍니다.

한국외국어학원

HI-AV 시청각
미국인회화 코스
이재욱홍 TOEFL
아카데미 TOEFL
VOCABULARY
성문綜合英語
영어실력기초
한인영어회화
日本語入門
日本語会話
日本語청취
프랑스語
독일語
中国語
서반아語

종로2가YMCA뒤
313
-0601/4
HLI

OKLAHOM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OKLAHOMA
대학(원) 편·입학안내

상기 주립대학들은 미국내에서도 유수한 명문 주립대학으로서 특히 학비가 한국 대학 정도이며, 이때까지는 위 대학에 수학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5학년도 봄학기부터는 다음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추천의뢰가 있어 널리 광고하오니 유학에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많은 문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학과 :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이학계열, 법정계열, 상경계열, 예능계열, 간호학계열
2. 자격 : 1) 대학재학생 및 졸업자
   (대학원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에 한함)
   2) 재학 및 졸업성적이 C+ 이상인 자
   3)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3. 학비 및 생활비(1년기준 1$=₩800)

구분	Tuition	Dormitory	Books	Total
$	2,850	2,500	250	5,600
₩	2,280,000	2,000,000	200,000	4,480,000

4. 구비서류 : 1) 자기소개서(국문)……1부
   2) 이력서(국문)……1부
   3) 재학 및 졸업, 성적증명서(영문)·각4부
   4) 기타서류는 직접문의바람
5. TOEFL Score가 낮거나 준비못한 분은 입학후 Oklahoma 주립대학교 어학 훈련후 본 강의를 받게 됨으로·TOEFL 응시와는 무관함.
   (전화)783-7835, 7836, 7837, 6537
6. 기타 상세한 것은 우편이나, 직접 문의 바랍니다.

어려모슨씩음정교회
국회
버냉원에서 한국선교회 R/D 4층

문학과교육연구소 이사장

鄭飛石長篇小說
小說孫子兵法

천하면장 孫武와 그의 손자 孫臏
제새의 호걸 오자서와 경국지색 서시,
와신상담으로 야망과 복수의 칼을 가는
5패18국의 제왕들 그 최대의 영웅
미녀들이 얽어가는 춘추정쟁사와
이하잔산의 드라마를 통해 인간사의
처리를 새삼 깨우쳐 주는 감동적인 小說

소설 손자병법은 합리적인 기업경영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세상사의 처리를 터득하여 성공의 지름길을 찾고자 하시는 바로 당신이 읽으셔야 할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망설이면 남보다 늦습니다!
먼저 읽는 분이 勝利합니다!

긴급특급정보
긴급특급뉴스
일본상업부 긴급특급정보!
SD종합상사 일본상업부 3명 전부인, 시모조구치조부 위기로 불가
SD그룹 회장님에 이어 SC, DD
H-H재벌 그룹 회장님의 긴급특별명령!
SH재벌 그룹 회장님의 긴급특별명령!
호꼬부터 모든 산업사원은 소설손자병법을 읽으시오!

*처칠놈은 처세의비법을 깨우쳐 줄 재미있고 유익한 小說孫子兵法!

한국출판사상 초유의 판매부수 기록!
1984년 2월 20일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당당 1위!

소설손자병법 이 작품은 이 세대 경영사회 속의 호모 사피엔 간은 어떻게 지내야 할고 방기해답 이라는 지식의 원천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라는 지식의 원천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소설인데 재미 있게 재연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해 날에 읽는 부담을 덜어 줬다는 것이다. (매일신보)

♣서점에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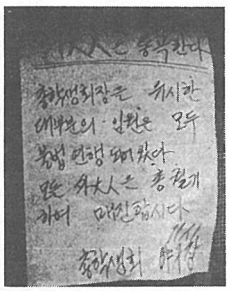
고려원
서울·종로구 수송동 88-22
전화 : (730) 7291-3
전송 : (733) 1706-1082

평3권/각권 2300만내외
각권 22.2, 800원

창간30주년 기념 보도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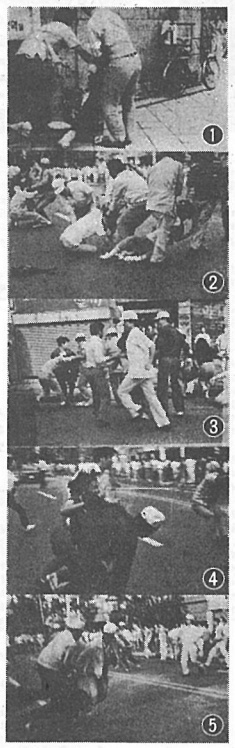
▶83년 총학회가 부활되었다가 5·17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해체될 때 「교대운동 불붙은 광경」

▲64년 정부의 한·일굴욕회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 이날 경찰과의 충돌로 3명이 부상하고 1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외대학보 80년 5월16일자 301호 신문으로 계엄군의 신문검열로 삭제된 부분이 군데군데 보인다. 이 신문의 3면에는 본교 교수단의 「시국선언문」이 실릴 예정이었으나 기사의 삭제로 외대학보사상 처음으로 전면백공고가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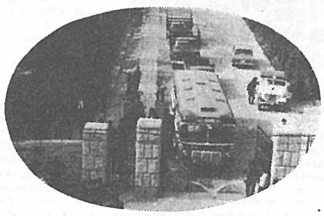
▲84년 5월18일 5개대학 연합시위때 학생들이 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페퍼포그를 쏘는 전경차에 호스를연결해 물을뿌리며 맞서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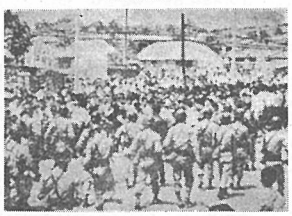
▲학생들이 학교밖에서 시위도중 사복경찰들에 의해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모습. (번호는 상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임)

밟아도 꺼지지 않을 민주의 횃불이여

▲60~70년대 후반까지 학원가는 당국의 탄압에 의한 휴교령과 위수령으로 점철된 파란의 역사였다. (사진은 그당시 외대학보의 필기사 제작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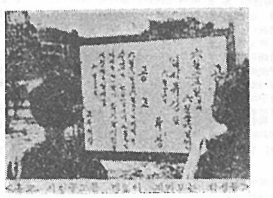


▶학교안팎로 진압한 경찰 (상)과 65년 6·3사태 당시 학교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고있는 데모대열 (하) 이당시 학생들의 분노에도 복구하고 한·일굴욕회담과 체결되었다.



▶탈춤생활 학생들이 옥상에서 물을 타고 내려오면서 유인물을 뿌리며 데모를 주동하고있다.

▶휴학 중인 학생들이 휴교령을 철폐하라 시위를 하고있다.



"A는 A다라고 말할수없었던 암울의 세월들"

파란의 격동기, 그 당시 편집장에게 듣는다

—본보 창간 30주년 특별좌담

△참석자
조재린<본보7대편집장·자동차보험 상무이사>
김형철<본보15대편집장·(주)금성계전 기획부장>
권영욱<본보16대편집장·삼아약품이사>
김강민<본보25대편집장·신세계근무>
△사회:박종규<본보현편집장>
△기록정리:송지현·이경희기자
△일시:1985년. 4. 6(토) 오후 5시30분
△장소:세실레스토랑

▲사회 : 외대학보가 올해로 창간30주년을 맞게되었읍니다. 외대학보가 창간된 이후 학내외적으로 수많은 격동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60년대의 「4·19」와 61년의「5·16군사 쿠데타」64년 「6·3사태」69년 「3선 개헌」70년의 「교련반대데모」72년 「10월유신 반대데모」로 일찍꽃던학원가는 휴교령, 위수령으로 인하여 휴강, 개강, 종강, 조기방학의 아픈현실을 되풀이하였읍니다. 그러고 79년 10·26과 80년의 5·17을 거치면서 또 다른 격동기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외대학보에서는 뜻깊은 창간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당시 외대학보 편집장을 맡고 계셨던 선배님들을 모시고 그 당시의 상황과 에피소

△조 재 린

드, 학생활동등 여러가지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조재린 : 외대학보가 벌써 창간 30주년이라…. 감회가 깊습니다. 4.19 당시가 격동기이긴 했지만, 학보는 그다지 그당시 상황을 지면에 반영시키지는 못했어요. 학교소식을 전해주고 학생의 글을 싣는 문예지역할만 하던 시대이니까요.

▲김형철 : 초창기에는 조 선배 말씀대로 외대학보는 학습지·문예지 역할만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69년 3선개헌이 있은 뒤부터 그것에서 탈피, 학내이슈등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최초의 필화사건이 70년 우리때 일어났지요. 146호가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요.

그때가 6월이었는데 교련반대데모가 심했었어요. 학보도 교련폐지론을 주장하는글을 실었는데 신문제작까지 모두마친 다음날 학교로부터 배포금지가 내려왔어요. 찍어낸 신문은 압수 당하고…. 그러나 배포금지를 예상했던 우리는 신문 전부를 미리 빼돌려 배포를 해버렸죠. 그당시 그것이 문제가되어 학생기자들은 무기정학을당하고 지도교수 (현재는 주간교수) 인 허세욱교수와 마광이심해 기자들은 총사퇴를 했는데 쥐어지느니 맞어지느냐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었읍니다.

▲권영욱 : 기자 총사퇴후 후임으로 들어간 기자가 바로 저였읍니다. 저도 그때 군데군데대후

△김 형 철

이 됩니다. 당시 학장님이 제적생이 학생수에 비해 너무 많다며 숫자를 줄였는데, 저도그곳에 포함되어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지요.

▲조재 : 그 때는 대단했군요. 4.19당시 외대생들은 종로 4가까지 갔다가 경찰관이 공포(空砲)를 쏴 모두 흩어져 을지로 입구까지 밀려났는데 그때 을지로 빵집에서 김형필교수와빵을먹고 흔비백산해서 흩어진기억이 나는군요. 당시 학보사내에서도 무언가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왔지만 대학신문이 정학이 안된때라 지면학보에만 신경을쓰던 시대여서 호지부지돼 버렸지요.

▲김강 : 79년도는 신문에 편집장 이름을 올리지도 못할정도의 암울의 극치였습니다. 학생들은 억눌리는 상황인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의 시대이었으니까요. 그때 협박이나, 돈키호테나라는 논쟁이 심했는데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협력

△조 재 린

△김 강 민

△권 영 욱

△박 동 규

△사회 : 좋은 얘깁니다. 모든 해결의 조건은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김형 : 학보가 다수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학생과 학교, 또 사회를 유기적으로 종합해주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간가교역할을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강 : 결국 환충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동감입니다. 학생들이 시위할때 후배기

차들도 참여하고 싶어했지요. 그때마다 저는 「너희는 「아」도 「어」도 돼서는 안된다」며 시위를 말리곤 했는데 비겁한 사람들의 은 항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화사건이 터질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울분은 어떻게 달래셨는지요?

▲권영 : 매일 술이 였지요. 퍼

▲조재 : 한마디로 신문을 볼때마다 「적세지감」이란 말이 실감나더군요. 당시와 비교해 지면학대는 틀린이고 기사의내용도한 상당히 시사성을 띠고 있읍니다. 외대학보의 발전된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내고싶읍니다.

▲김형 : 타블 로이드판에서 그 배판, 월간, 순간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는 8면 신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비만이라고할수있

▲김형 : 그것도 그렇지만 한번 겪었으니까 다시 경험하고싶지 않다, 이거 아니겠어요?

▲권영 : 쉽게 얘기해서 신물난거지.

▲사회 :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제 정리하는 뜻으로 외대학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형 : 대학언론에 잠시 몸담았던 것이 사회에 나가 많은 도움이 됐읍니다. 학내에서 사회와 직접 접촉할수 있는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학보였기에 학생기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읍니다.

▲조재 :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자기발전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현재 사회에 있는 동문들은 다들 잘해 나가고 있읍니다. 외대발전을 위해 학보는 틀린 후배들과 학교당국 모두 더욱 분발해야 하겠어요.

▲김강 : 외대학보의 기자를 만큼 외대를 사랑한 학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대한 흥보기사 혹은 비판기사라 말지라도 그 자체는 사랑이었으니까요. 학생기자는 기자로서 철저한 자각과 역량을 가지고 대학신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재 : 학내언론은 학교와 학생과의 대화창구를 만들수 있

△참석자
조재린<본보7대편집장·자동차보험 상무이사>
김형철<본보15대편집장·(주)금성계전 기획부장>
권영욱<본보16대편집장·삼아약품이사>
김강민<본보25대편집장·신세계근무>
△사회:박종규<본보현편집장>
△기록정리:송지현·이경희기자
△일시:1985년. 4. 6(토) 오후 5시30분
△장소:세실레스토랑

▲조재 : 좋은 얘깁니다. 모든 해결의 조건은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김형 : 학보가 다수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학생과 학교, 또 사회를 유기적으로 종합해주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간가교역할을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강 : 결국 환충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동감입니다. 학생들이 시위할때 후배기

△김 강 민

차들도 참여하고 싶어했지요. 그때마다 저는 「너희는 「아」도 「어」도 돼서는 안된다」며 시위를 말리곤 했는데 비겁한 사람들의 은 항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화사건이 터질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울분은 어떻게 달래셨는지요?

▲권영 : 매일 술이 였지요. 퍼

▲조재 : 한마디로 신문을 볼때마다 「적세지감」이란 말이 실감나더군요. 당시와 비교해 지면학대는 틀린이고 기사의내용도한 상당히 시사성을 띠고 있읍니다. 외대학보의 발전된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내고싶읍니다.

▲김형 : 타블 로이드판에서 그 배판, 월간, 순간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는 8면 신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비만이라고할수있

▲김강 : 그렇군요. 언론의 허상을 학생시절에 깊이 겪은 때문이겠지요.

▲권영 : 공부를 안해서이겠지. (일동웃음).

△참석자
조재린<본보7대편집장·자동차보험 상무이사>
김형철<본보15대편집장·(주)금성계전 기획부장>
권영욱<본보16대편집장·삼아약품이사>
김강민<본보25대편집장·신세계근무>
△사회:박종규<본보현편집장>
△기록정리:송지현·이경희기자
△일시:1985년. 4. 6(토) 오후 5시30분
△장소:세실레스토랑

▲조재 : 좋은 얘깁니다. 모든 해결의 조건은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김형 : 학보가 다수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학생과 학교, 또 사회를 유기적으로 종합해주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간가교역할을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강 : 결국 환충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동감입니다. 학생들이 시위할때 후배기

△김 강 민

차들도 참여하고 싶어했지요. 그때마다 저는 「너희는 「아」도 「어」도 돼서는 안된다」며 시위를 말리곤 했는데 비겁한 사람들의 은 항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화사건이 터질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울분은 어떻게 달래셨는지요?

▲권영 : 매일 술이 였지요. 퍼

▲조재 : 한마디로 신문을 볼때마다 「적세지감」이란 말이 실감나더군요. 당시와 비교해 지면학대는 틀린이고 기사의내용도한 상당히 시사성을 띠고 있읍니다. 외대학보의 발전된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내고싶읍니다.

▲김형 : 타블 로이드판에서 그 배판, 월간, 순간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는 8면 신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비만이라고할수있

▲김강 : 그렇군요. 언론의 허상을 학생시절에 깊이 겪은 때문이겠지요.

▲권영 : 공부를 안해서이겠지. (일동웃음).

한·미 40년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1945년 2차대전이 끝난후 미군이 남한에 진주한 이래 미국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대한 영향을끼치고있다. 4월24일부터29일까지지난81년에 이은 대통령의 미국공식방문이 있다고 한다. 40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대(對)한반도정책을 알아보고 한미현대사 연표를 싣는다. <편집자주>

박 권 상
◇자유기고가
◇서울대 영문과 졸업
◇전동아일보 논설주간

Ⅰ. 머리말

흔히 미국은 일관된 장기정책이 결여된 믿을수 없는 나라라고 개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와 관련해서 70년에 시작되어 79년에 끝난 미군의 철수정책만 해도 몇차례의 수정과 반전을 보았고 여기에 당사국인 우리는 물론, 동부아세아의 관련국이 그때마다 새로운 미국의 정책에 적응하는데 진땀을 뺐다.

구체적으로는 69년에 「니슨독트린」이 발표되어 아세아대륙에서의 지상군철수라는 구상을 밝혔고 월남철수에 앞서 한국에서 1개사단을 빼냈고, 당시 구상으로는 나머지 1개사단에서 5, 6년후에는 철수한다는 정책목표를 한국에 통고하였다. 박정희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한편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유신체제라고 하는 일인독재체제를 굳혔다.

닉슨의철수구상은 그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권좌에서 물러가고 포드대통령이 취임하므로써 중단상태였는데, 76년 대통령선거에서 카터민주당후보가 미지상군의 단계적 전면철수를 공약하여 당선됨으로써 미군철수는 확고한 정책으로 미국유권자들의 승인을 얻었다. 카터대통령은 대통령취임과 더불어 철수공약을 실천에 옮겨 78년에는 제1진 3천명이 한국서 떠남으로써 한국, 북한, 일본, 중공등에 미치는 충격파는 엄청난 것이었다.

자주국방을 표방한 박정희정부는 안으로 정치탄압으로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는가하면 미사일 개발, 심지어 핵무기의 개발까지 준비하는등 비경제적인 군수산업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미간에는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고, 미국의 진보파들은 안으로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밖으로 미국의 정치질서를 파괴하는 박정희정부를 규탄하였다.

그러나, 1979년 1월 카터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증강이라는 새로운 정보입수를 이유로 전행중인 철수계획을 무기간 중단하였으며, 1981년1월 들어선 레이건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보강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안전보장을 다짐하였다.

이상은 70년대에 전개된 미군의 철수문제를 에워싼 미국정책의 불확정성을 대충 살핀 것인데, 그러는 가운데, 미국지도자들의 무정견과 미국여론의 심한 동요가 일관된 한반도 정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Ⅱ.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노선

이렇듯 정책이 때로는 갈피를 못잡는 본질적 요인은 미국의 정부형태에 기인된다. 즉, 미국의 대통령제 정부 형태하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임기기간 동안 소신있게 정책을 수행할수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삼권의 엄격한 분립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정부는 하나가 아니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배하는 행정부이외에도 입법부가 있고,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상호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다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지고, 공화 민주 양당은 다시 보수·진보 두파로 갈라지는데 미국정치를 출발하는 정치력을 제도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 즉 권력의 분산이야말로 미국정치의 힘이자 약점이고, 분산되어 서로 견제되는 다원적인 정치권력은 늘 선거민들의 찬반여론과 합수관계에 있어 여론을 형성하고 반영하고 때로는 조작하는 정치과정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고간에 장기간 일관된 성격을 띠고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 일당독재체제의 나라와 판이한 미국정치의 장점인데,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세계최강의 「수퍼 파워」이고보면 미국대외정책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이 다른나라 특히 미국의 그늘에서 사는 나라들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럴에도 불구하고 뜬물거리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이 전혀 손에 잡힐수 없을 정도로 전무한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계제일의 나라로서 그에 도전하는 소련과 견제·대결하는데 있어 전략적 목표는 전후 40년간 일관되었다. 군사적으로 소련의 평창주의를 저지해야겠고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고 미국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교하여야겠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체제를 옹호하고 미국의 원료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상품을 팔아야겠다는등 몇가지 대외정책의 기본조건은 불변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Ⅲ. 미국의 한반도 정책

이런 불변가치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불변가치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적용시키는데서 일어나는 이익, 대가 위험부담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네이산 화이트교수는 다음과같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수립에 있어 네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시대에 따라 미국의 선택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지적하였다.

첫째대안은 미국은 한반도의 운명에 간여할 필요가 없고 간여함으로해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이득이 별로없다는 생각이다. 즉 철수정책이다.

둘째대안으로 미국은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장래, 즉 평화와 통일에 적극 기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절차 정상해야한다는정책적배려이다.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정책이요 중재역할 여하는 학계 언론계등 지식인들은 늘 이상 네가지의 선택을 내놓고 토론하는등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반영한것도 사실이다.

첫째 대안인 철수 정책은1945년에 남한에 상륙한 미군이1949년 완전 철수할때까지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무성은 물론 일본점령군사령관이 머글러스 맥아이 장군까지도 한반도의 군사적가치에 부정적이었고 아세아 대륙에서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전략개념자체를 부인하였다. 한반도의 포기정책이다. 한국전쟁이 미국이 전면 개입함으로써 이 정책은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등장한 일이었으나 70년대 미국의 진보파들 사이에서는 이정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들의주장은 미국에서 골치앓고있고,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것은 미국의 개입때문이라고 단정하고 미국이 손을 떼므로써 미국의 부담은 일거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여론의 대세는 그렇게 되므로써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깨고 한국전쟁을 재발시킴으로써 동아세아의 정세에 예측할수 없는 가공할 사태가 벌어진다는 주장이었다. 70년대 카터의 철군정책을 반생시킨 세력, 그리고 그것을 취소시킨 세력등 상반된 여론의 흐름이 있다.

철군시비가 한참 벌어진 78년에서 81년까지에 한국에서전쟁이 일어날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방위에 나서야하느냐는 정책대안이다.

우선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공평한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동서 데탕트가 고개를 든 70년대에 미국 조야일부에서 연구 검토는 되었으나 정책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이 정책대안의 결점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모두 평화통일을 갈망하지만, 어느쪽도 40년간 발전시킨 사회체제와 생활양식을포기할 생각이 없는한, 다시말해 어느한쪽이 다른 한쪽에 흡수될 용의가 없는한 평화적 통일은 미국이 주선하고 노력한다고 성취될수 있는 일이아니다.

세번째 대안으로 미국은 한국과의 통명관계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안전을 유지하고 한국과의 경제적 상호발전을 기했다는 정책이다. 휴전이후 32년간 추구해온 정책의 기본흐름이고 보면, 미국으로써 큰 불편이없는 한 이 정책대안을 그대로 밀고나갈것 같다. 적어도 본질적인 정책의 근간은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30여년간 실제로 실천에 옮겨 전쟁 방지와 남한의 군사경제발전에 성공하였다고 미국스스로 평가하기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북분단에서 연유한 긴장은 그대로 남아있고 항구적인 준전시상태가 계속되는가하면 전쟁의 재발가능성을 배제할수없지 않는가.

이러한 정책적인 결함을 보완하는데서 네번째 정책대안인 남북한분단의 현상동결을 전제로한 남북의 화해정책이다. 특히 미국과 중공이 30년전의 적대관계에서 70년대에들어서 일종의 유사동맹관계로 발전 접어해와「일민족 두국가」라는 독일식 해결방식이 차츰 각광을 받고있다. 74년 키신저가 제안한 남북한과 미·중이 참석한 4자회담안이 바로 여기에 속하며, 워싱턴과 북경 남북한의 직접대화를 적극 권장하는것도 바로 이러한 정책배려에 속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의 엄격한 권력분립은 미국정치의 강력한 힘이자 또한 약점이기도 하다 〈사진은 미 대통령 취임식〉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 유지강화와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전제로 남북한 화해정책 추진

Ⅳ. 맺음말

다만, 만일 「일민족 이국가」라는 방식이 성취될때—북한의 반대로 이것도 큰전제은 없지만—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관계라든가 또는 미국과 북한관계가 어떻게 조절될는지는 분명치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다같이 평화공존체제를 받아들이고 한국을 둘러싼 미·일·중·소등이 어떤 종류의 협약으로 이를 보장할때 미국의 대남한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제3대안과 제4대안은 발전여하에 따라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점 미국안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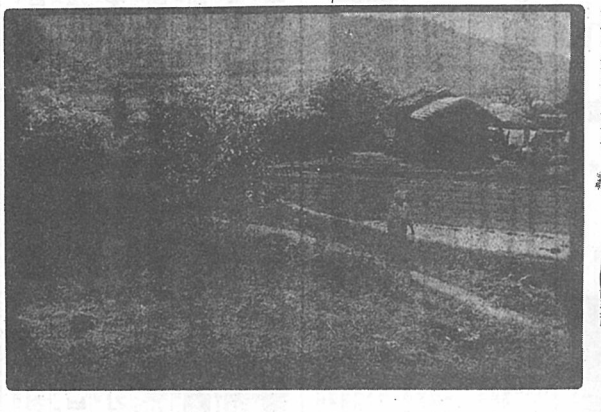
지금의 레이건행정부는 제3대안을 원칙으로 하고 제4대안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다고 보겠고, 그것이 80년대를 지배하는 정책의 큰흐름이겠으나, 88년거에서 진보파가 집권한다면 제4대안내지 제2대안으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현대사 연표

1945.	8. 15	일본, 무조건 항복발표
〃	8. 20	소련 원산상륙, 22일 평양진주
〃	9. 2	연합군최고사령부, 북위38도선 경계로 미소양군의 한국분할점령을 발표
〃	9. 7	미 극동군사령부, 남한에 군정선포
〃	9. 8	하지중장의 제24군단 서울에 진주
〃	9. 11	군정장관에 아놀드소장 취임
〃	10. 10	김일성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설치
〃	12. 6	군정청 일본인 공사유재산 몰수
〃	12. 8	모스크바3상회담 5개년 한국신탁통치안발표
46.	2. 14	군정청최고고문기관인「남조선민주의원」구성
〃	3. 20	1차미·소공위, 5월6일 무기휴회
47.	5. 21	제2차 미소공위
〃	6. 3	군정청, 한국인기구를남조선과도정부로개칭
48.	1. 8	유엔한국임시위원단내한
〃	2. 26	유엔소총회, 가능지역총선거안가결
〃	5. 10	유엔한위감시하 남한총선거실시(좌익계, 남북협상파불참)
〃	8. 15	하지중장, 미군정폐지 발표, 대한민국수립.
〃	8. 25	한·미 잠정군사협정 체결
〃	9. 13	한·미 행정협정 완전이양.
〃	12. 7	소련군 북한서 완전철수 발표.
49.	1. 1	미·한국을 정식승인(2월20일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50.	1. 12	애치슨 미국무장관, 한국은 미태평양방위선 밖이라언명.
〃	1. 26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조인 (3월30일·국회비준)
〃	7. 6	부산에한미연합해군방위사령부설치안가결.
〃	7. 7	한국군 유엔군에 편입
〃	7. 12	한국군 통수권의 미군이양에관한 협정(한·미 대전협정) 체결
52.	5. 24	한미경제조정협정(마이어협정)조인
〃	12. 2	아이젠하워 미대통령 내한
53.	7. 27	휴전협정조인
〃	10. 1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워싱턴) (54년11월17일 발효)
54.	7. 25	이승만대통령 방미 (~8월13일)
55.	5. 31	한미잉여농산물 원조협정조인
57.	5. 31	미, 주한미군의 핵무장설치 발표
58.	1. 29	주한미군핵무기도입 정식발표(2월3일공개)
60.	4. 19	4월혁명
61.	5. 16	군사쿠데타, 혁명위원회구성
〃	5. 26	국군작전권 유엔군에 복귀
〃	11. 11	박정희고회의의장 방미 (~12월2일)
63.	11. 24	박의장 케네디장례식참석, 25일 존슨대통령과 회담
66.	7. 9	한미행정협정조인. 10월14일 국회서 비준동의안 가결, 67년2월9일 발효.
70.	5. 26	미의 대한지원원조 (무상천만불) 공여에 관한 마지막 협정조인.
〃	7. 25	한·미 M.16공장 건설차관합의.
71.	2. 6	한·미 주한미군감축과 한국군현대화계획에 합의.
〃	3. 27	미7사단, 주한23년만에 철수 (첫미군철수)
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 국회해산, 비상계엄선포.
77.	3. 9	카터미대통령, 회견서 주한미지상군은 4~5년에 걸쳐 철수한다고 발표.
〃	5. 29	카터미대통령, 한국피침탄 핵사용 언명.
78.	11. 7	한미연합사 발족
〃	12. 13	주한미군투부대1진299명 오산기지출발 철수
79.	6. 29	카터미대통령 내한(7월1일)
〃	7. 1	팬스미국무장관 남·북한·미국3국회담제의 (10월 북한 거부)
〃	10. 26	박정희대통령 김재규에 의해 피살(10. 26 정변)
80.	3. 11	한·미국방장관, 한·미군단을 한미연합야전군 사령부로 개칭
〃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	5. 18	광주에 대규모 학생·시민의 항의시위 발생 (27일 계엄군의 무혈진압)
〃	5. 31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신설 (의장에 최규하대통령, 상임위원장에 전두환대장)
81.	1. 28	전대통령 방미(2월3일 한미정상회담 14개항 공동성명발표)
〃	5. 18	미 잉여농산물(P.L. 408호)도입 종결 (55년이래 17억달러, 소맥15만톤 마지막 서명)
82.	3. 18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 1명소사, 3명부상, 30일 수사본부 방화범 4명검거 주범 문부식등4명 수배했다고 발표
〃	4. 1	부산 미 문화원 방화주범 문부식의 배후 조종자김현장을 원주 카톨릭교육원서검거함.
〃	4. 8	원주 카톨릭교육원장 최기식신부구속됨, 미문화원 방화 배후조종자 김현장 은닉혐의
〃	4. 15	교회사회선교회,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성명발표, 21일 검찰성명서 기초한 목사등 7명 환문, 23일 형사처벌 유보
〃	5. 6	원경 주한 미대사, 한국내 반미감정 보편적 음직임 아니라 지적(관훈클럽 초청연설)
83.	2. 6	슐츠 미국무장관 방한
83.	3. 8	대법원,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피고인 김현장, 문부식에 사형. 최기식신부등의 유죄 도 확정.
〃	5. 2	미국, 이미 한국에 전술 핵무기 배치했으며 휴전선지역에 핵지뢰불부설 (미국 칼럼리스트 척 앤더슨 발혀)
〃	11. 12	레이건 미대통령 내한, 12일 국회서 연설.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 봄은 더 따사롭다.

나드자패션 캐드브리지



한가로이 마음을 바우고 눈을 감으면
문득 기억 속에 낯익은 고향 마을이 떠오르다.
이런 날날이면, 수풀 곡대기로
초가지붕 위로 나지막히 다가온 하늘이, 그 하늘에서
내리쬐는 나른한 햇살이 더욱 정겨웠다.
풀냄새, 땅냄새가 물물 파이오르는 고향의 공기는
얼마나 순수하고 싱그러웠던가.
물도 순하여, 그 물에 밥짓고 물샛던
우리 시골 사람의 인심은 아낙도 사내도
욕심없이 곱기만 했지.

그리고 나그리운 고향의 풍경에
점점 넓가슴이 소년이 바람 결에 피워 보던
때묻는 꿈이, 청춘의 행세가
아직도 가슴에서 설레며 뱀도는 것을····

세월이 흘러, 이제 나는 이곳에 나는 저곳에
멀리 흩어져 서로 낯설어졌어도,
희미한 추억 속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는
햇모습 변함없는 고향의 마을과 동무들 얼굴 위로
여전히 밝은 햇살이 흐르고 있다.
나이 마흔에 맞는 봄이 더 따사롭다면
그렇듯 고운 고향을 잊지 못해서이리라.

캠브리지 MP 스포츠 코트/실크글렌 재킷

CAMBRIDGE | Pierre Cardin PARIS | TUXEDO | 한복 캐드브리지

㈜캐드브리지·삼중

◇좌 담 회

한국의 여성운동과 그 방향

여성해방은 인간해방이다

▲사회—오늘날 지구상에는 많은 부분에서 해방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읍니다. 제3세계 민족해방, 인종차별로부터의 해방등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성해방의 문제만큼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성해방이야말로 모든 인간 해방의 최후에 이루어질 운동이라고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서구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많은 특수상황하에서 우리의 여성운동의 필요는 더욱 절실하면서 또한 가장 미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읍니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뭐이나 뜻깊은 일이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요즈음 서구 여성해방 운동 이론의 쟁점이 되고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특히 우리의 분단 상황과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의 여성운동을 논의해 보고 들쎄로 우리의 여성운동의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성 운동의 전

이 미 경

박 영 미

개 방향과 대학내 여성운동에 관해서도 토론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이미경선생님께서 서구여성해방이론의 쟁점이 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여성해방 이론의 갈래

▲이미경—서구여성해방이론은 지금 여러 갈래가 있읍니다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유주의, 여성해방론, 사회주의론, 급진주의 여성해방론 등으로 구분하죠. 이것들은 대략 여성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문제해결방법은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데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은 여성문제의 기원을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다 두고 있죠. 현재 사회제도나 법적차원의 문제가 모두 남성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아주 현실적으로 법제도개편이나 여성의 교육이란 면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은 그것보다 좀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성불평등의 기원을 찾고 있는데 단순히 제도적인 면을 떠나서 그 기원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생겨난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부장제 생성 배경으로 나타난 성별 역할 분업에다 문제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사회와 가정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 가정이 사적(私的)영역으로 취급되어지고 현금을 획득할수있는 공적인 노동만에 가치를 두고있어 현대 사회와 같이 현금을 버는일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차별 제거를위한 민주제제확립을 위해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이미—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농촌여성은 농촌여성 나름대로 노동여성은 노동여성 나름대로 각각 농촌운동, 노동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지요. 당분간은 자기 위치에서 각각의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야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는 리만으로는 깨어질 수밖에 없으며 여성의 문제와 자기 위치에서의 문제를 병행해서 이루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투가지 문제는 여성의압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밀째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계급분화와 여성문제

▲사회—여성 운동의 문제에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계층의 여성이든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싶시 그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서지—그래요. 대부분 모든 계층의 여성들은 각각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논리를 펴서 걱정이에요. 사실 중산층여성과 노동여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노동여성은 노동여성대로 중산층 여성은 그들대로 자기들만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운동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맞아요. 여성운동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계층의 분화와 계급의 대립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손 미 숙

▲서지—여성해방운동은 투쟁해야할 대상도 많고 여성 스스로의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쟁처럼 전략을 쌓아 진격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타나는 양상이 여러가지 일수 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여성해방운동가들은 다른계층여성의 운동방식, 표현방식을 포용하지 않으면 여성들사이에 분열만을 초래하게되어 여성의 힘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됩니다.

중산층 여성운동

▲사회—만약 제가 노동여성이라면 중산층여성과는 융화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여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피부에와 닿는 것이 그를때문에 우리가 좀 머뭇산다고 생각하는 그런것 아니겠어요? 즉, 중산층여성이 생각하는노동여성보다는노동여성이 생각하는 중산층 여성이 보다 더 적대적이라는것이지요.

참 석 자

서 지 문
(고대영문과교수)

이 미 경
(여성평우회대표)

손 미 숙
(본교사대여학생회장)

사회 : 박영미
(본보특집차장)

날 짜: 4월 8일(월)
장 소: 세종홀 커피숍

제3세계 여성은 민족 경제의 자립 획득을 그 핵심으로 삼아 민족 해방 운동에 적극 참여

한국적 상황과 여성운동

▲사회—이선생님께서 여성해방 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무조건 서구의 사상을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상황속에서 우리의 여성운동은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손미숙—오늘의 현실이란 곧 제 3 세계속의 우리, 그리고 분단상황속에서의 우리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제 3 세계 국가의 대부분이 열강에 종속되어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구에 있어서와 같이 대남성투쟁, 또는 법적인문제에있어서의 투쟁과 함께 또 다른 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제3세계 여성운동의 양상을 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 이들은 이들의 가장큰 문제점인 경제적 자립과 성차별주의의 제거를 위하여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민족경제의 자립 획득을 그 핵심으로 하고있는 민족해방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들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동시에 남녀평등을 이루어 가고 따라서 중산층 여성 스스로가 여타계층 여성들에게 「우리」라는 관념을 심어주어 같이 여성운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중산층 여성에만 맞는운동은 독단적이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중산층의 여성 운동단체가 여성노동자를 위한답시고 공장에 가서는 겨우 공장 근로자들의 아기를 돌보아 준다거나 하는 일이 그런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공장에 가서는 공원들에게 노조설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준다거나 하는일이 바람직한것이지 공장근로자들에게 아기는 우리가 봐줄테니 일이나 더 열심히 하라는 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서지—앞서도 말했듯이 여성은 인류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계층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합하기가 어렵다는점, 그것때문에 다른 어떤 운동보다 진전을 못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노예해방운동을 노예들이 아닌 지식층 노예해방론자가 주도한 것처럼 중산층 여성이란 개념이 막연하기는하나 지식있는 여성들이 많이 앞장을 서서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야합니다. 이선생님이 계신 「여성평우회」같은 곳은 범여성운동단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대를 많이걸고 있는데요.

▲이미—저희단체는 주부회원이 별로 없어서인지 주부문제보다는 직장여성의 문제를 견해 대 (対)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성 해방 운동의 방향은

▲사회—아직까지「여성평우회」는 우리가 생각 하는 바람직한 여성운동의 초기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해방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가장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념정립과 어떠한조직을갖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택해서 풀어가느냐하는 것인데 여성운동가간의 방법론에있어서는 다양하게 접근해나가되 이념에있어서는 통절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향점을 갖는 여성운동, 목표나 방향이 우리나라에 맞게 정립이되고 각여성단체가 같은 할수있는이념을만들어내기위해서는 당분간 지식층여성의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또한 여성해방운동이 특여성에게만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남성, 또 계층별로도 더다양하게 전개되도록 해야겠지요. 남성들은 아직까지 여성운동의 이념이 정립되어 보여지지않기때문에 여성운동에대해 오해도 많이하고있고 도대체 여성운동이 뭐하는 것인가 의문을 품기도 하는 경우도있으며 계층별로도 여학산회어 여성운동이라는것이 자신들에게도 필요하다는인식을 줄 수있는 방향제시가 되어야하겠다고 봅니다.

▲사회—그런데 지식층, 농민, 노동자끼리 단체를 갖고 있는데 당분간은 그런 형태로 서로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를 발견해 나가면서 서로가 필요한 경우에 연대할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나가야 할것입니다.

앞으로는 근로여성의 힘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숫적으로도 많고 자신이 갖당해야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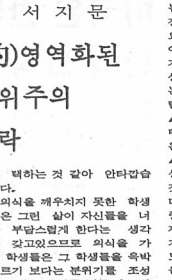
▲서지—법 개정과 같은 큰 과제는 운동이 아니면 달성하기가 어려운데 조직적인 운동과 함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사람은 자신이 생활인으로서 대접을 받을수 있고 여성문제이외의 어떤 문제도 참여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여성이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설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운동인 동시에 생활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학여성의 의식

▲사회—대학내에서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미—대학내에서 여성 문제라는 것은 사회의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인 동시에 여성이라는 점, 여학생이 남학생에의해 주변부로 밀려나고 주체적으로 여학생이 대학인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문제지요.



서 지 문

성별 역할 분담으로 사적(私的)영역화된 가사노동의 가치는 금전 위주의 현대 사회에와서 더욱 하락

여성이기때문에 일의 프로그램에서 빠지고 그렇지않으면 아주 소극적으로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는 점입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틀톤이고 여학생들조차 그런 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더 문문제가 될 것 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은 대학내에서 주체적인 대학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제까지 교육 받아온 여성답다는 여성에 대한 기존관념에 매몰된 나머지 자신이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택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식을 깨우치지 못한 학생들은 그런 삶이 자신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으면서 의식을 가진 학생들은 그 학생들을 육박지르기 보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손미—의식자체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성단체에서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지—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우월감을 가져서는안돼겠지요.

▲손미—작년 총학생회쟁이 일어나면서 사범대내에서도 사범대여학생회를 구성했습니다. 사범대학생인원 600여명중여학생이 500여명이나 되니까요.

▲이미—여자로서 사범대 학생회장이된 사람이 있읍니까?

▲손미—아직까지는 없었읍니다.

▲이미—여학생이 500여명이나 된다면 됐을만도 한데….

▲손미—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못하다는거죠.

▲이미—의식이 아직 약하군요. 여성근로자가 많은 곳은 대부분 여성이 근로자 부장이 되었읍니다. 이제까지는 남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여성들이 우리가 더 잘해보겠다하고 출마하면서부터 주세는 바뀐 것이지요.

▲손미—꼭 학생회뿐만 아니라 과대표같은 것만 보더라도 여학생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대표는 남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 즉 전통적인 허의식이 뿌리깊이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서지—꼭 여자라고 여자만을 뽑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공정하게 평가되어야할 문제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여성해방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만 가능한얘기죠. 아직 우리 단계에선 여성이 있는데도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여성의 의식문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손미—능력을 떠나 여자이기 때문에 안찍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여성문제의 교육의 차생활의 차를 떠나서 쯘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의식하고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또하나 무엇을 위해 여성운동을 해야하는가 하는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에 조직력과 계층간의 포용력이 필요하겠지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읍니다. 바쁜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世界의 文學
봄호 통권35호
民音社 • 값3,500원
특집/國家理論
金弘明·마르크시즘과 國家理論
崔章集·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朴相燮·플란차스-밀리반드 국가론
논문 백대웅·명창과 판소리의 미학
존 바스·蘇生의 文學
아우얼바하·아담과 이브
소설 金容誠·뱀탕과 종이鶴
金周榮·천둥소리·4
玄吉彦·헬로우, 아이 러브 유
시 B.브레히트/金光圭譯 「죽은 병사의 전설」외 11편
黃東奎·金準泰·安洙環·李起哲
김정환·최승호
서평 金弘宇·鄭鎬植·車東守·沈在箕·김용구
崔東鎬·정과리·金仁煥·李京洙·김 현

民音社 입사를 보내시는 분께는 도서목록을 보내드립니다.
110, 서울·종로구 관철동 44의1/734-4234·2000·6110/735-8524

한국인문·자연과학의 총람을 잡지하기는 본격적인 모노그래프!

음악의 理解 李康淑
이 지구상에 최초로 존재했던 음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음악과 인간존재의 원초적 관계는 무엇인가, 현대음악이 왜 이렇게 쉬운가, 서양예술음악의 가치와 한국음악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개별작품과의 직접적 경험에서 시작되는 〈음악의 이해〉에서 경험의 조건, 경험방식, 경험대상의 선택은 어떠한가. 「음악의 理解」는 이러한 모색을 통해 음악에 대한 상부적 이해를 넘어선 그 본질적 이해를 꾀한다. 값4,000원

文學芸術作品 로만 인가르덴/李東昇 옮김
심오한 관념론적 미학이론을 문화예술작품의 근본구조와 존재방식을 총체적으로 파헤쳐 현상학적 존재론과 무용한 관념론을 다시 뛰어넘어 현대 문학의 최초의 소개서가 되다. 값6,000원

르네상스와 신고전주의 비평 英美批評史硏究 I (1530년~1800년)/李商燮 著
英美批評의 전개사를 총체적으로 체계화하고 비평적 관점을 독자적 새로운 시대구분과 주제별 분석틀로 재조명하여 비평사를 재정립한 문제작! 값6,500원

동유럽공산정치론 리차드 F. 스타아/김영래·한석태 옮김
동유럽국가의 역사적 개관을 공산화과정과 권력구조, 경제 및 대외정책을 정리, 소개한 동유럽 공산국가의 전모를 제시한 공산권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 스타아교수의 명작! · 값7,000원

韓國語의 系統 金方漢 · 값2800원
韓國近代小說의 理解 金光鎬 (전2권) · 값5000원 · 6000원
프랑스現代批評의 理解 李桓 · 洪承五 · 元潤洙 編 · 값3500원
現代獨文學의 理解 金光圭 編 · 값5000원
詩의 理解 · 單文斗 · 金柱演 · 許平 · 權 · 編 · 값4500원
現象學의 理解 權圭淑 著 · 값4500원
金光鎬 著 · 값3500원
프랑스現代批評의 理解 金基樂 著 · 값3500원
英美批評史硏究 I 李商燮 著 · 값4500원
르네상스와 신고전주의 비평 李商燮 著 · 값4500원
동유럽공산정치론 리차드 F. 스타아 · 김영래 · 한석태 옮김
韓國語의 系統 金方漢 · 값2800원
文學社會學 김현 · 값2200원
印度哲學史 吉藏義 · 값3200원
遊牧民族帝國史 룬데 · 쉬롤러 · 값2200원
韓國의 風水思想 崔昌祚 · 값4000원
社會科學과 數學 李永魯 外 · 값2300원
方言學 李崇寧 · 값3000원
中國古代文學史 金學主 · 값2500원
日本의 萬葉集 金思燕 · 값2200원
現代意味論 李益燮 · 값4200원
構造主義 · 값4200원
外交制度史 · 값2900원
베트남史 · 값3200원
증세철학사 · 값3500원
슬라브文學史 · 값3500원
詩와 깊이 J. R 리사트 · 尹英愛 · 값3500원
韓國現代小說史硏究 金光鎬 外 · 값6000원
정보이론 · 값4500원
金永植 · 값3200원
현대기초물리학 · 값3500원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金容沃
동양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과 학술한 주제의식으로 주시되어 동양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용옥 교수의 논문집. 동양철학의 기본적 무주관, 인생관에서부터 구체적 방법으로서의 변역의 해석학, 리스·랜스주의의 도입 이후의 중공철학계의 변화, 중국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새 중국어 표기법인 C-K표기법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논문을 싣고 있다. 역사 속에 해결의 주제의식과 학문적 열려성을 일깨우는 보기드문 가볼어! • 값3,500원
英雄時代
李文烈장편소설전2권
양동한 조선시 지음이나 일삼는 채 먹지 않은 소설자는 쓸른 질책으로 다룬다. 읽다 보면 등속적인 재미와 고급한 지사이 함께 종부해서 그 무기지 요소가 서로 유한 관련을 없으면서 이 소설의 흥 취를 유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소설이 빛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지명 이데올로기 문제를 주제로 한 소설이 이렇 수 있어 복잡의 힘을 — 깊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위에가는 사람은 순경"식의 점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예림서·소설가) 값3,000원
젊은날의 肖像 값3,000원
사람의 아들 값2,500원